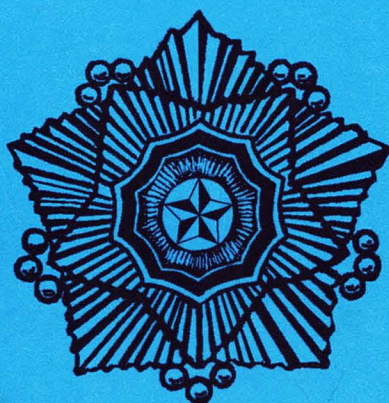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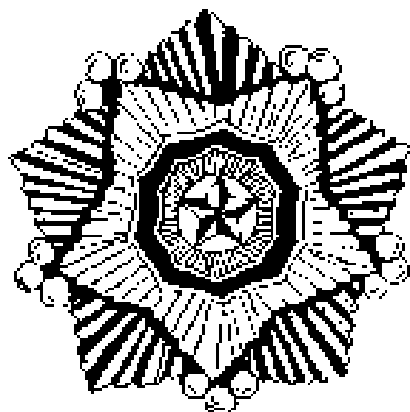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조선문학



2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2호

(루계 제 712 호)

◇◇◇◇◇◇◇◇◇◇

차 례

◇◇◇◇◇◇◇◇◇◇

위대한 탄생	4
백두산의 호랑이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그이는 봄날에 탄생하시였다	5
숲의 교향곡	6
장군님의 명절	13
백두의 고향집	13
해 솟아 달이 솟아	14
우리 군대 만세	14
내 조국 강토여	15
무포의 하늘아래서	15
마술을 쓰는 대장수	16
병사는 큰길을 걷네	17
축 하	18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송가	18
정 일 봉	18
오, 다박술초소	19

총대의 의미	19
개천절을 두고	20
선 군 만 세 !	21
아, 새벽문과 저녁문	21
정의와 량심에 살려는 작가를 믿어주고 이끌어주시여 (1)	22
주체문학의 대강	24
심장으로 불러 찾는 어머니	24
내 조국을 사랑다해 받들립니다	24
내 고향의 동구길	25
빛나라, 위대한 선군길이어!	25
병사와 아기	28
병사들의 가슴에 새긴 철의 진리	29
우리 장군님 시간속에	29
눈내리는 그밤에도	30
사랑하는 나의 집아	31
서정시 《용서하시라》의 깊은 여운을 두고	32
아아적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33
그 진정은 강렬하다	33
조국송가가 주는 의미깊은 서정	35
돌산의 노을	37
심장의 결정체	47
아 직 은...	47
일 거 사 득	47
몇번째나 오시고도	47
우리 장군님은 그런분이신걸	48
제대군인부부의 집에서 (1)	48
제대군인부부의 집에서(2)	48

아쉬워말라	48
다 보여주자	49
다녀가신 영광의 그날에 이어	49
선군시대 일군들의 형상과 총서 《불멸의 향도》	50
지휘관의 마음	54
새삶의 고고성	55
고향의 역두에서	55
민 음	56
나의 심장은 높편다	56
심장의 고백	56
달을 보며	57
고려종이	57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58
삼국동벌의 겨울	67
땅의 노래	67
봄 빛	68
담담한 정서속에 메아리치는 필승의 찬가	69
아들아, 너 지켜선 그 자리는	71
바뀌여진 주인공	72
독특하고 훌륭한 작품을 쓰라	77
우는가 웃는가	78
일화를 통하여 본 고전의인소설 《옥포동기완록》	78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80

위대한 탄생

오영재

신비로운 산
조선의 지붕
구름위에 떠있는
하늘의 산-백두여

민족의 기상으로 솟은
그대 메부리
광야의 폭풍으로 숨쉬고
누리를 물들이는 그 노을
만민의 뜻으로 붉은
위대한 성산

천하를 뒤흔들
결출한 영웅이 태어날 산이었건만
승업한 그 자태
세월의 운무속에 감추어져
만년을 말없이 솟아있던 백두

기슭으로 끝없이 흘러간
력대왕조의 소란스런 흥망의 역사도
감히 그대를 깨우지 못했고
신화와 전설속에 굶어쳐간
인민의 념원만이 쌓이고 쌓이더니

때를 기다렸던가
한낮의 마른 번개속에
백호의 발굽만이 소리없이 날으던 그 산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애국의 피끓는 대오를 거느리시고
항일전의 퇴성으로
그대 가슴을 울릴 때

이 땅을 위해
결코 잠들수 없었던가
돌렸던 구름을 거두며
처음으로 자기의 웅자를 나타낸 백두

봄의 첫 빛발

가사

천리수해우에 쏟아져내리던
2월의 하늘높이
그대 온 대으로
위대한 한 아들을 받아들여올렸거니

이날에 백두여
성스러운 그대 이마
신비로운 채운에 덮이고
천지에 뿌리내린 무지개는
강토의 창공에 아롱졌도다

백두가 지너온
민족의 슬기와 힘은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쏟아내린 지맥따라 3천리에 흐르는데

해돋이의 첫 해살을
한몸에 받으시며
천산만악우에 첫걸음을 옮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백두의 폭풍을 숨결로 지니시고
천리수해를 푸른 방석으로 삼으신 그이
장군봉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주를 향해 첫 미소를 보내실 때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혁명의 붉은 기폭에 얼굴을 묻으며
5천년을 참아왔던 그 목청을
비로소 터친 백두의 목소리
새 역사의 하늘에
환희로운 봄우뢰로 높이 울렸거니

-맞으라, 누리여
새 세기의 빛나는 태양을
조선아
미래를 말기라
위대한 영웅의 크나큰 품에!

백두산의 호랑이

문기창

천만의 산악을 한눈아래 굽어보며
백두산마루에 올라선 호랑이
서리발 그 눈빛 한번만 번쩍이면
일제의 토벌대들 열빠져 쓰러졌네

백만의 대적을 발굽아래 굽어보며
천고의 밀림을 흔드는 호랑이
사나운 폭풍을 한번만 불려오면

원썩들 비명소리 하늘땅 울렸네
천리도 단숨에 주름잡아 내달리는
백두의 호랑이 빨찌산 김대장
위대한 전설로 삼천리를 수놓으며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왔네

아 백두산호랑이 조선의 그 기상
사회주의수호전에 장군님은 펼치시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는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일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김정일은** 내 사랑보다도 **빨찌산대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나와 전우들사이에 오고간 혁명적동지애와 공산주의적도덕이라는 **김정일이** 태어난후부터 **김정숙**과 **김정일에** 대한 도덕의리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갓 태어나자 **김정숙**은 그에게 나와 자기 군복을 줄여서 지은옷을 입히었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지니고있는 필승의 신념과 철의 의지, 혁명적락관주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 더욱 풍부하게 더욱 굳건히 련마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령도자가 된 **김정일동무**의 위업은 앞으로도 필승불패할것입니다.》

그이는 봄날에 탄생하시였다

김경남

눈이 내린다
온 천하가 눈의 세계다
하건만 땅속엔
무수한 생명들이 태동하는 봄
그이는 이 봄에 탄생하시였다

훈풍이 불어오고
록음우거진 여름날도 있건만
새파란 하늘아래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날도 있건만
2월에 탄생하신 장군님

노래에도 있듯이
정이월 가고 3월이 오면
강남갔던 제비도 날아오고
산에 들에 첫꽃이 피어나는
그런 봄날도 있건만
눈이 내리는 봄의 첫 기슭
2월에 탄생하신 장군님

계절의 봄은 있어도
삶의 봄이 없던 그 세월
천년 얼어붙은 땅에 열을 주고
쌓이고 쌓인 원한을 씻어주려
수령님 안아오시던 그 봄
활짝 꽃피우시려
그이께선 봄의 첫 기슭에서 탄생하시였던가

수령님 한생을 바쳐 찾아주신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 수령님 손저어
가리키시는
저 미래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려
수령님 안아키우신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을 따듯이
품어주시려 ...

봄의 첫 기슭이 있어
씨뿌리는 봄이 있고
성장의 여름이 있고
결실의 가을이 있거니
이 모든 성장과 결실을 위해
그이께선 봄의 첫 기슭에서 탄생하시였던가

수수억만의 생명을 안고있는 봄
성장의 결실도 다 안고있는 봄
이 봄날에 탄생하신
그이는 아버지이시다
창조이시다
열정이시다
미래이시다
승리이시다

새 세기와 더불어
봄이 영원하듯
그이 봄의 청춘으로 영원하시여
이 땅엔 열정과 창조
성공과 승리만이 수놓아지리라



리정옥

강철목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도의 책임일군이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기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은 여느때와 달리 준비도 없이 떠난길이었다. 협의회, 전원회의, 현지도... 그때마다 부르시는 뜻과 용건이 뚜렷하거나 그 범위를 짐작할수 있어 해당한 자료들을 갖추고 떠날수 있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못하여 마음이 몹시 긴장되었다.

《무슨 문제때문에 부르실가?》

차가 떠나자 그는 안주머니에 언제나 품고다니는 두툼한 수첩을 꺼내들었다.

눈감고도 알수 있는 내용이였지만 다시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과업을 주신 공작기계생산과제, 새로 착공을 시작한 5호발전소와 6호발전소건설문제... 련두봉기습에 일떠서는 새 문화주력들, 농사문제...

어느 하나도 놓칠세라 꼼꼼히 따져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보아도 장군님께서 왜 급히 부르시는지는 가늠이 안갔다. 강철목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틀었다. 북방의 산악들이 우줄우줄 차창밖으로 흘러간다.

《고난의 행군》후파라 나무들이 많지 못한 산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살림집을 건설하고있는 마을들도 흘러간다. 산기슭에 새로 짓는 제대군인마을이다. 그것을 보자 철목의 가슴속에서 용암같은것이 서서히 끓어올랐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도를 받고 이곳 사람들이 울고웃으며 환호를 터뜨리던 모습이 그우에 새겨졌던 것이다. 지금 도의 어디나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관철에 부글부글 끓고있다. 공장과 농촌, 발전소건설장과 립산사업소... 철목은 안경을 벗어들었다. 눈앞이

흐려져서였다. 조건이 불리한 산악지대 이라면서 류다른 관심을 돌려주고계시는 장군님의 그 은정이 목메이게 안겨든다.

그는 운전사에게 차속도를 더 높이라고 조용히 일렀다. 어린 아이의 심정인양 그의 마음은 장군님께시는곳으로 차보다 먼저 달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산강의 주류가 시작되는 다리입구에서 강철목을 기다리고계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해빛에 굵실거리는 강물을 굽어보고 계시다가 강철목을 보고 반색을 지으시였다.

《아, 철목동무가 왔구만.》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강철목은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나와 함께 천삼봉군부대에 가보자고 불렀소.》

다음 순간 강철목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분명 도와 관련되는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때문이라고 예상했던 자기의 생각이 너무도 빗나가서였다. 더구나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대는 도경내도 아니고 도린접도 아닌 먼곳에 있는 부대였다. 그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채 강철목은 장군님의 차에 올랐다. 하늘에서는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가는 길은 멀었다. 가는 도중 장군님께서서는 도내공장들의 생산실태며 발전소건설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강철목은 그동안 도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결린 고리들에 대해 될수록이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보고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수고했구만.》하고 치하도 해주시고 어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시였다. 그

러시며 걸리고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책을 의논해주기도 하시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부대주둔구역안에 들어서고있었다. 길 좌우에 준비하게 늘어선 수삼나무들사이로 《일당백》, 《결사옹위》라고 쓴 구호판들이 보였다.

차는 소리없이 멎어섰다. 군부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었다.

《이 부대에서 수림을 잘 가꾸었다는 말을 듣고 그걸 한번 보자고 왔소.》

부대로 들어가는 길가의 수삼나무들뿐만 아니라 부대주변의 둔덕과 산들이 모두 수림으로 뒤덮여있었다. 나지막한 건물들은 수삼나무숲과 어울려 산뜻하고 청신한 색조로 빛났다. 그 햇빛과 푸르른 숲의 정기가 강철목의 가슴을 쿵하고 울려주었다.

(수림... 바로 이 문제때문이였구나!)

철목은 장군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까닭을 알아차렸다. 사실 수림은 강철목이도 적지 않게 고심하던 문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뿐 아니라 이 나라의 수려한 산천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었다.

산을 잘 가꾸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철목은 전망계획을 세우고 산림조성을 하느라 애쓰기는 했지만 나무모가 모자라 더 힘있게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평양시교외에 훌륭한 양묘장이 꾸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전에 사람을 띄웠었다. 그런데 그곳 책임자가 계획분에 없다면 딱 잡아떼더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의 일군들이 산림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있지 않는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일군들의 관점?...)

이 말을 전해들은 강철목은 속이 후끈 달아올랐다. 도대체 산림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이 바로 서있지 않다는것은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인가. 생각갈아서는 자기가 직접 양묘장에 가고싶었으나 시간을 내기가 험치 않았다. ...

《이깎나무숲이로구만.》

장군님께서 《이깎나무숲》이라고 쓴 수림구역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곧게 자란 자기의 자태를 뽐내듯 서있는 이깎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혼자소리로 되뇌이시었다.

《창성이깎나무로구만.》

철목은 눈곱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끼며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지금껏 창성이깎나무가 있다는것은 알았지만 어떤 나무인지는 딱히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얼마나 나라의 산림에 관심이 크셨으면 아직 잎도 돋지 않은 나무를 보고도 이렇게 가려보시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이의 높고

큰 뜻을 받들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앓아몽개는 자신이 못내 한스러웠다.

《창성이깎나무는 일반 이깎나무와 교잡한것인데 가만...》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누구를 찾으시는듯 뒤를 돌아보시었다.

이윽하여 부대장의 뒤에 서있는 한 군관을 손짓하여 부르시었다.

《주동무, 나무에 대해서야 여기 수림의 주인인 동무의 설명을 듣는것이 제격이지.》

부대장의 뒤에 서있던 젊은 군관이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다.

《어서 여기로 와서 설명해주시오.》

몸매도 얼굴도 가름한 군관이였다.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이라는 인상보다 대학생과 같은 체취가 더 진하게 풍기는 모습이였다. 그한테 류다른 인상이 있다면 두눈에 어린 푸르른 빛과 몸매에 비해 류달리 크고 흙빛이 도는 두손이였다.

《어서...》

장군님께서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자리까지 띄워주시며 그를 고무하듯 재촉하시었다. 두어걸음 앞으로 나온 젊은 군관은 이깎나무를 향해 그 커다랗고 흙빛이 도는 손을 들었다.

《창성이깎은 여느 이깎과 같아보여도 서로 다릅니다. 보통이깎나무에 비해 3~4년은 더 빨리 자라고 나무가이 아래로 드리워지는것이 특징입니다.》

젊은 군관이 자기를 얼핏 띄여보는 순간 강철목은 무엇인가 가슴을 쿵 찌르고 드는듯 해서 몸을 흠칫했다. 그리고는 그의 정기어린 눈매며 가름한 얼굴, 커다란 손을 왜서인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눈여겨보았다.

그는 젊은 군관의 얼굴과 눈빛, 목소리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과 표정,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은 실패와 좌절감에 흐려있었고 목소리도 비감에 젖어있었다면 지금 젊은 군관의 눈빛은 해빛과 엷섞여 빛나는 숲의 생신한 푸른빛으로 반짝이고있는것이였다. 목소리는 행복감에 젖어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젊은 군관에게 정보당 나무심는 대수며 그 리용전망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대답을 끝내자 장군님께서서는 젊은 군관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다정히 물으시었다.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아버지한테는 종종 편지를 쓰오?》

《장군님! 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종구만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렇게 숲을 가꾸었다면 말이지. 정말 용하오. 얼마나 좋은 일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옆에 서있는 철목에게 시선을 주시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떤 나무들을 심고있

소?》

《장군님, 주로 이 짝나무와 세 잎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나무그루수를 늘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처럼 수종이 좋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먼저 심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철목은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적어나갔다.

어느덧 장군님을 모신 일행은 키가 큰 나무구역이 끝나고 키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장군님께서 강철목을 앞으로 부르시었다.

《철목동문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겠소?》

철목은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일없는 나무가지를 조심히 매만졌다. 안경을 추슬러올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딱히 알수가 없었다.

《이 나무가 바로 쪽가래나무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소. 기름나무로서는 좋은 나무요. 철목동문 뭐 생각되는 것이 없소?》

철목은 조금전에 젊은 군관의 모습에서 련상되던 그 무엇이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쪽가래나무와 함께 눈앞에 확확산되어 떠오름을 느꼈다.

그렇다, 그의 도에도 바로 이런 쪽가래나무가 있었다. 하나의 크지 않은 시험장이었는데 지금은 그자리에 발전소가 들어앉았다. 어쩔수없이 철목은 6년전 그날에로 빠져들어갔다.

사흘동안 련이어 쏟아부은 무더기비에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났다는 통보를 받은 철목은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태는 엄중하였다. 적지 않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땅이 못쓰게 되었다.

당장 집부터 짓고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했다.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철목은 눈앞의 일에 정신이 쏠려 아까부터 자기를 만나려고 서성대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지 못하였다. 긴급대책을 세우고 그가 막 떠나려는 순간 무작정 차문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가 희숙한 반백의 사나이였다. 그의 손에는 뿌리에 흙이 붙어있는 쪽가래나무모가 쥐여져 가볍게 잎새를 떨고있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사나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절망과 애원의 빛이 어린 두눈이 똑바로 철목을 주시했다. 옆에 서있던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학자가 애지중지하던 시험장이 통채로 묻혔다고 귀뜸해주었다. 강철목은 당장 뭐라고 위해야 할지 생각이 안났다.

《어찌겠습니까. 학자선생, 이왕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다른 곳에 시험장을 잘 꾸립시다. 저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철목의 말에 학자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

도당위원회에서는 시험장자리에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략착지었다. 그 자리는 발전소를 건설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자리였던것이다.

철목은 학자에게 인차 시험장을 꾸려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겹쌓인 난관들때문에 시험장일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니라도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던것이다.

도당위원회 정문에서 그를 몇번 띄여보는 하였으나 그때마다 기다렸다는듯이 다른 일들이 철목의 발목을 붙잡곤 했다. 시험장일은 멀리 지는 해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의 방에 불쑥 학자가 들어섰다. 한순간 철목은 그가 누군지 인차 알아보지 못하였다.

고통에 이그러진 얼굴과 가볍게 떠는 손놀림을 보고서야 다름아닌 시험장일때문에 찾아왔던 학자임을 알아차렸다. 서둘러 의자를 권하고 물을 권했다. 학자는 군소리없이 의자에 앉았다.

《책임비서 어른, 바쁘겠지만 어찌겠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요.》

철목은 온몸이 긴장되었다. 《어른》이라는 말도 낯설었지만 끝내 해주지 못한 시험장때문에 학자가 어떤 노여움을 품고있는지 자못 두려웠던것이다.

《내 떠나기전에 이 말만은 꼭 하고싶소. 자고로 생명의 기원을 론할 때에는 태양과 그리고 식물을 들었소. 태양이 아낌없이 쏟아부는 빛을 식물이 합성하여 그 영양분으로 생명을 탄생시켰기때문이요. 식물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 엽록소가 없었더라면 만물의 령장인 인간을 탄생시키고 번성시키는 거창한 일을 하지 못했겠거요. 엽록소는 다름아닌 이 태양과 지구상의 생명을 련결하는 중계자이며 곧 나무인거요.

세상에는 산림을 망탕 다루어 멸망한 나라들이 적지 않소.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인 엽록소의 거대한 형체-수림을 흠시하고 황폐화시키면 자연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한테서 꼭 그 비싼 대가를 받아내요. 강물은 흐려지고 마르고 장마철엔 토지를 쓸어갈거요.

수림은 수천만자금과 로력을 들여 건설한 저수지와도 같소. 쏟아지는 눈과 비를 고스란히 받아 자기품에 저장하였다가 땅이 목마르지 않게 필요한만큼 공급하오. 이 나라의 강들이 항상 푸르러있게 하는것도 바로 숲이요. 숲이 이루어놓은 그 강줄기들이 있어 인간의 삶의 보급자리들이 생겨나고 오늘의 도시와 국가, 문명이 이룩된거요.》

학자는 갑자기 고개를 푹 꺾었다. 목

소리는 꺾 막히듯 잦아들었다.

《술이 없으면 산짐승과 새들도 정든 고장을 떠났어요. 나도… 오늘 이 고장을 떠나가요. 나는 책임비서 어른이 부디 나라와 민족의 재부인 산림을 귀중히 여기고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해서 이 말을 하는거요.

난… 가겠소.》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학자는 일어섰다. 그의 몸이 균형을 잃은듯 휘청거렸다. 철목이 급히 잡아주려고 하자 학자는 철목의 부촉임을 만류했다.

철목은 그가 왜 떠나는지 물어볼념도,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만큼 학자의 모습은 처절하였다. 철목은 한개 도의 책임임금으로서 한 학자와의 관계에서 미흡한 매듭을 남겨놓은 일이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 아픔을 드리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었다. 고즈넉한 정적이 깃든 골안에는 무성한 잡관목과 꼬불꼬불한 소나무들이 앙상하게 서있었다. 강철목은 시간을 절약하고싶어 조용히 장군님께 밀접드렸다.

《앞에 보이는 저 산을 넘어가면 원평강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별로 쓸모없이 흐르는 강인데 그 강을 막아서 300미터정도 굴을 뚫고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는 새로 건설한 공장과 로동자구 주택들의 조명, 난방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강철목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이 산지형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강철목에게 고개를 돌리시었다.

《저 골짜기에 뚝을 막고 호수를 만들어 또 한번 락차고를 조성하여 소형발전소를 건설하면 어떻겠소?》

강철목은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올렸다.

《장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산모양새를 주의깊게 살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몇그루의 쪽가래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었다. 허리를 굽히시고 흙탕물이 묻고 불품없이 서있는 쪽가래나무를 손으로 쓸어보시었다. 줄기밑부분에 접목한 부위가 있었다.

《여기에… 주인이 있구만.》

장군님께서서는 혼자 말씀처럼 나직이 뇌이시었다.

철목은 속이 뜨끔했다.

《발전소건설장이 되기 전에 이곳에 뭐가 있었소?》

《사실은… 산림과학원의 한개 시험장이 있었습니니다. 발전소위치를 확정하기전에 의견상이가 있었는데…》

철목은 장군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다.

《원래 이 골짜기는 주명선이라고 하는 산림학자가 오래동안 시험장으로 정하고 일하던 곳입니다. 평지에서 자라는 호두나무를 산에서 자라는 쪽가래나무와 접하여 새로운 품종의 호두나무를 얻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보기 전에 그만… 산사태에 몰렸습니니다. 다른 곳에 시험장을 꾸리려고 했는데 제가 무관심해서 끝내 하지 못했습니니다.》

강철목은 머리를 숙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시험장 주인의 정성이 느껴지는 쪽가래나무를 어루쓸기만 하시었다. 침묵, 또 침묵…

이윽고 장군님께서서는 강철목을 돌아보시며 물으시었다.

《그 학자가 지금 어디 있소?》

철목은 얼른 몸자세를 바로했다.

《학자는… 이 고장을 떠났습니니다. 제가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해서…》

철목은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한 눈길로 다시 한번 몇그루 남아있는 쪽가래나무를 하나하나 굽어보시다가 뿌리가 뽑힌 한가지지를 드시고 황폐화된 골안을 근엄한 안색으로 둘러보시었다.

《철목동문 학자가 왜 떠났다고 생각하오?》

철목은 숙였던 머리를 쳐들었다.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학자의 연구사업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조건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니다.》

《…》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이 없으시었다. 천천히 앞으로 몇걸음 옮기시었다. 장군님의 나직한 음성이 철목의 귀전을 울렸다.

《과학연구사업이 헛치는 않지. … 한생을 바쳐도 성공못할수 있소. 그러나 철목동무, 일시적인 곤난에 부닥쳤다고 해서 자기의 정성이 깃든 창조물을 쉽게 버리는 사람은 없소.

여기엔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소. 얼마나 정성스레 접목했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지경이요. 이 모든걸 두고 떠나자니 학자의 걸음이 제대로 옮겨졌겠소? 그가 떠나기전에… 자세한걸 알아볼걸 그랬소.》

철목의 가슴은 심한 자책감으로 옥죄여들었다.

《주명선?! …》

장군님께서서는 학자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여보시었다. 쪽가래나무가 아니라 성공못한 학자가 이 자리에 망연히 서있는 모습으로 편상되시는듯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었다.

일군들이 그만 내려가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지만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을 바라보시었다.

…

《장 군님, 여기까지가 새 수종의 나무들입니다.》

젊은 군관이 조용히 장군님께 아뢰었다. 철목은 생각에서 깨어나 자신을 다잡았다. 세상은 얼마나 오묘한가. 6년전에 헤어진,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간 사람의 혈육을 여기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그것도 장군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그는 분명 그 학자의 아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하나같이 미끈하게 자란 나무들을 바라보시었다. 대견하시였다. ... 무엇보다 기쁘신건 젊은 군관의 생기에 넘친 모습이었다. 몇년전에 이 부대에 왔을 때와는 전혀 판판이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구분대 교양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한 3명의 전사들을 만나주시었다.

그들중에 이 주혁성이 있었다. 고향은 어디이며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나이가 들어 군사복무를 하니 힘들지 않는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나서 집에서 편지는 오는가고 물으시었다. 모두 편지가 온다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장군님께서는 얼굴이 다소 창백하고 애티가 나보이는 주혁성에게 집에서 온 편지를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왜서인지 그는 머뭇거리며 주저했다.

장군님께서는 긴장되어 서있는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무슨 비밀이 있는 모양이로구만.》 하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혁성이 얼굴이 새빨개서 변명했다.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주혁성은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장군님께 보여드리며 머리를 푹 수그렸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일생을 실패한 학자이다. 네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나의 한생의 소원을 풀어주기 바란다. 그래서 부디 산림부문을 공부시킨게고. 아버지가 너에게서 바라는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뿐이다. 부디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고 돌아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다오. ...》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장...군님.》

주혁성의 떠들거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장내를 흔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전 꼭... 군사복무를 잘하겠습니다.》

《응당 그래야지.》

장군님께서는 그의 등을 또다시 두드려주시었다.

《내가 보건대 동무아버지는 훌륭한분임이 틀림없소. 조국의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이라도 귀중히 아끼고 가꿀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요. 나는 동무가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기 바라

오.》

장군님께서는 주혁성에게 아버지의 일로 신심을 잃지 말라고,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당부하시고는 언제건 부대에 꼭 다시 오시겠다고 사랑의 약속까지 해주시었다. 그길로 평양에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주혁성의 아버지께 대해 알아보시었다. 알고보니 그는 얼마전에 강철목이 이야기하던 바로 그 학자였다. 학자가 얼마나 피로왔으면 군사복무를 하는 아들에게 그런 편지를 했으랴 싶어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무척 괴로우시었다.

한생 숲과 인연을 맺고 산림학연구에 바쳐온 그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이 그대로 옮겨와 장군님의 심중을 무겁게 내려누르는것만 같으시었다.

이 땅의 력사는 어버이수령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해방된 어느해 봄날 문수봉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앙상한 나무들이 몇개 간신히 서있는 봉우리를 바라보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일제놈들이 파괴해놓은 이 땅에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을 꼭 세우자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시었다.

전쟁의 불구름이 온 강토를 휩쓰는 준엄한 시기에 산림조사대를 무어 온 나라의 산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게 하시고 파괴된 산림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립엄총계획도를 세우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과학자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에게 자기가 연구하는부문의 전문가로 될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는 애국적이며 참다운 과학일군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을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울었던가. 이 학자도 모름지기 그들중의 한사람일것이다. 그 높았던 포부와 꿈을 버리고 정든 보급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필경 말못할 깊은 사연이 있을것이다.

불현듯 로씨야의 한 학자의 동상이 떠올랐다.

그의 기념비에는 수백마디 말대신에 나무잎사귀 하나가 그려져있었다. 눈길은 멀리 앞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친근한 길동무를 바라보듯 기념비옆에 서있는 나무를 보고있다. 과학의 세계란 무한대한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명선을 만나고싶으시었다. 그가 고민하는것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과 방안을 세워주고싶으시었다.

한밤중에 장군님께서는 전화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찾으시었다. 최근 산림학추세에 관한 자료들과 우리 나라 산림연구부문실태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시었다. 긴박한 집무를 처리하시고는 산림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실패의 우여곡절,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보시었다.

그 파정에 학자가 숲을 떠난것이 단순히 연구사업의 고달픔과 실패에 있는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시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연구방법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손상을 입은 산들을 빨리 추켜세울수 없다.

산림조성과 수종연구에서도 혁신적이고 가급적 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종래의 전통화된 세습적인 실험방법으로는 몇십년, 지어 한생이 걸려도 그 해결책이 묘연하며 더구나 자기가 하고있는 방법으로는 안된다는것을 느끼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로학자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모 대기고있었을것이다. 거기에는 시험장상실과 일 군들의 무관심, 자신의 로쇠와 나라에 들이닥친 엄혹한 시련이 겹쳐져 번민에 잠겼을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이 나라의 수림도, 한 학자의 운명도 고이 품안으시고 한시바빠 재생의 숨결을 부어넣어주어야 한다는 무한한 애정의 열기로 잠 못이루시였다. 그랬다. 수림의 운명이자 곧 학자의 운명이였고 이 나라의 운명문제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 운명을 책임졌다는 심리적인 중량감으로 더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개별적이고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가 아니라 국가에서 틀어쥐고 현대적이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나무모를 통이 크게 길러내어 산림학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에게 과업을 주시여 평양시교외에 양묘장을 새로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빨리 자라면서도 수송이 좋은 나무모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수만그루나 양묘장에 보내주시였다. 양묘장의 첫 책임자로 시교외의 산림시험장에 조용히 묻혀있던 주명선을 임명해주시였다. 그가 새로운 수종의 나무들을 연구하고 풍토순환시키는 과정에 한생에 품었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새롭게, 힘차게 자기 길을 걷도록 마음쓰시였다.

《정말 우리 병사들의 애국심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애국심이면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인간 못지 않게 자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린 참으로… 포성 없는 전쟁을 치르었습니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일제의 식민지강점으로 산림이 란벌당하고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조국의 산과 들은 폐허가 되엿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시적인 경제난관앞에 우리 인민이 무릎을 꿇고 조국의 자연부원을 되는데로 없앨것을 꿈꾸고있지만 어렵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고난의 행군〉의 상처를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의 통장훈을 불러야 합니다. 나는 가까운 앞날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온 나라의 산들을 꼭 뒤덮을 결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철목동무, 나는 〈고난의 행군〉으로 손상이 간 숲들은 물론이고 잘 자라지 않는 림지들도 빨리 자라고 경제적가치가 큰 나무들로

전면교체할 생각인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에서 동무네 도가 앞장서볼 생각이 없습니까?》

강철목은 목이 짝 메여올랐다. 저도모르게 한 걸음 나섰다.

《해보겠습니다. 장군님.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였다. 미더운 그의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그 각오가 아주 좋습니다. 내 그래서 동무를 여기로 데리고 온것입니다. 이 지대가 동무네 도와 비슷하기에 참고가 될가 해서…》

철목은 가슴이 후터워올라 눈을 습벅이였다.

장군님께서 부르신 뜻이 너무도 가슴벅차게 안겨왔던것이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엔 아직 이르오. 도의 모든 산들을 수림화, 원림화하자면 애로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닐거요. 욕망만으로는 안되는 일이니까. 제일 걱정되는것이 무엇보다도 묘목일거요. 그러나 철목동무… 묘목보다도 중요한건 사람들의 정신상태요. 정신만 강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수 있소. 난 우리 병사들이 안고있는 애국심을 떠라배운다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 보고.》

참… 듣자니 양묘장에 갔다가 퇴박을 맞았다면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철목은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 나무모를 좀 방조받았으면 합니다.》

《허허허, 철목동은 여기 와서도 제 욕심은 다 차리누만.》

장군님께서 룡조로 말씀하시자 모여섰던 사람들이 모두 유쾌히 웃었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허지만… 양묘장책임자도 안준걸 아들이 주겠다고 하겠소? 아버지를 〈쫓아낸〉…사람인데》

강철목은 놀랐다. 양묘장책임자가 주명선일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뜨거운것이 입안으로 짝 차올랐다.

장군님께서 학자를 아시게 된 때로부터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며 사랑과 정을 기울여오시였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던것이다. 아버지는 물론 아들까지도…

젊은 군관은 장군님의 자애깊은 말씀에 얼굴을 붉히며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소슬바람에 건똥 가지를 흔들며 서있는 저 나무들, 그 하나하나에 과연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것인가. …

강철목은 머리가 수그러졌다. 젊은 군관이 장군님께 도에 나무모를 보내주겠다고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랄거요. 할바에는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봅시다. 모든 시, 구역, 군들에 양묘장을 건설해놓고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하겠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국토와 풍만한 자원을 물려주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철옥동무네 나무모는 나도 좀 주겠습니다. 나는 철목동무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꼭 앞장서리라고 믿습니다.》

철목은 두눈을 습벅이며 장군님을 우러렀다. 이 순간 다른 말을 더 할수 없는 자신이 못내 안타까웠다. 가슴은 걱정으로 달아오르고 심장은 무한히 커졌다.

《장군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을 돌아보시였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그냥 갈수야 없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나무를 심는다는데 우리도 나무를 심읍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성큼성큼 부대뒤산으로 오르시였다. 나무를 심던 군인들이 두팔을 추켜들고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눈부신 해빛은 병사들이 심고있는 나무가지마다에 스며들어 금시 새움을 튀우고 꽃을 피우는듯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삽을 드시고 나무를 심으시였다. 소담한 잣나무뿌리에 찬바람이 스며들세라고루 흙을 펴시고 뽕뽕 다져주시였다. 그이의 품에 온몸을 맡긴듯 잣나무는 가볍게 잎새를 떨었다.

강철목의 심장은 이 나무가 뿌리박은 대지만이 아닌 온 나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이 와닿는듯싶어 쿵쿵 세차게 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를 환하신 안색으로 바라보시였다. 수림은 마치 그 안광의 자애롭고 따뜻한 눈길을 받아 아득히 저 끝까지 춤추며 설레이며 파도치는듯 했다.

×

온 도가 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철목은 협의회를 끝내자 곧장 차를 타고 나무심는 곳으로 향했다. 읍거리를 벗어나니 북천을 따라 펼쳐진 산기슭은 물론이고 멀리 절골령까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나무모를 맞들고 가는 처녀들, 바깥으로 신나게 물을 길어오는 청년들, 걸쭉하게 삽질을 해대는 아주머니들, 젊은이, 늙은이, 노동자, 농민, 사무원, 가정부인...

산판은 그야말로 전투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나 어린 소년단원들까지 합세하여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강철목은 눈곱이 찌릿해졌다.

장군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대시며 나무모까지 보내주셨다고 모두들 이렇게 떨쳐나선것

이다.

끓어오르는 열기그대로 옷동을 벗고 일판에 뛰어들고싶었다. 강철목은 서둘러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마주 내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책임비서동지! 제 주명선입니다.》

《예?》

강철목은 눈을 크게 홑떴다. 주명선이라니?...

철목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양묘장에 갔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명선은 다른 곳에 출장을 가고 없었다. 끓어오르는 충격과 흥분을 쏟을길 없어 철목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학자선생... 우리 꼭 본때있게 수림을 가꾸어 봅시다.)

그렇게도 만나고싶었던 주명선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작 마주서고보니 말대신 걱정부터 앞섰다.

(우리의 장군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강철목은 주명선의 손을 세차게 잡아 흔들었다. 절망과 좌절감에 싸여 떠나갔던 연구사...

그때의 절망감은 간곳없고 활기와 젊음에 넘친 얼굴이다.

《안됐습니다. 내가 제구실을 못해서 선생이 고생을 했겠군요.》

철목은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주명선은 얼굴의 땀을 훔치며 빙긋이 웃었다.

《한개 도의 사업을 맡아보시는데 그럴수도 있지않습니까. 제가 외곬으로만 생각했었지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전 자신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새길에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환생을 한셈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산들도 말입니다.》

철목은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웁습니다. 장군님의 품속에 안겼기에 인간도 산천도 활력을 다시 찾은게 아니겠습니까.》

철목은 거세찬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그랬다. 산림을 이 나라 인민들의 오늘과 래일의 운명 문제로 보시고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 키워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품, 이런 위대한 분의 태양같이 따사로운 사랑을 받으며 일하는 자신들이 무한히 행복하고 긍지스러웠다.

진정 오늘날만이 아니라 래일의 영원한 행복까지 창조해가시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 나라의 숲과 인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활력과 번성의 기쁨을 안겨주실수 있었다. 그 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군시대의 새로운 인간들로 태어나고 새 삶을 받아안았다.

강철목은 주명선과 함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얼마전 부대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태양의 빛과 같이 빛나던 그 영상이 이 산관우에도 짝 찬듯싶었다. 온 강산에 메아리치던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

강철목에게는 그 환호소리가 그대로 숲이 설레이는 소리로 들리었다. 맵시를 뿜내는 은백양나무며 점잖은 평양단풍나무, 곧고 매출한 이깔나무, 줄기가 하얀 자작나무며 분홍꽃아카시아나무들이 한꺼번에 달려와 환호를 터치는듯 했다.

광대한 열기를 우주와 지구에 아낌없이 뿌려주는 태양은 자기 온도의 불과 얼마 안되는 열밖에는 식물의 엽록소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랑과 열정, 파사로움은 백이면 백, 만이면 만이 그대로 이 땅의 행복과 번영을 창조하는 빛이 되고 자양분

이 되었다. 이 나라의 숲은 태양보다 더 자애로운 장군님의 품속에서 움트고 자라 무성하게 설레이는것이라. 가슴이 들먹거려진다. 시라도 한수 읊고 싶다.

오, 숲이여, 내 나라의 푸른 숲이여.

강철목의 눈앞에는 지금 온 나라에 펼쳐질 무성한 숲이 보이고 그 숲의 설렘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숲의 교향곡이었다. 머지 않은 태일의 조국의 숲, 그 푸르디 푸른 숲이 영원한 태양에게 드리는 감사의 교향곡, 감사의 설렘소리였다.

봄날의 태양은 더더욱 뜨거운 별을 온 누리에 아낌없이 뿌려주고있었다.

장군님의 명절

김은숙

여기선

한그루 푸른 나무도

그날의 사연을 담아 설레이는듯

한점의 바람도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며 불어
에는듯...

온 나라 인민이 축원의 꽃을 삼가 엮는

뜻깊은 2월의 아침

생각도 깊고 가실 곳도 하 많으시건만

여기 전선병사들이 보고싶으시여

이른새벽 길을 떠나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바람세찬 전선길에서

그리고 고생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날에도 이날에도

야전차의 차창가에 별무리 싣고

눈보라 천리길을 달리셔야 했던가

멀고 험한 산밭을 넘으셔야 했던가

나의 병사들은 하나같이 꿀꿀하다고

맑은 미소속에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며

나는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우리 장군님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실 때

걱정으로 솟구치던 감격의 눈물이어

온 한해 야전복차림으로 전선에서 사시는 그이

오늘만은

부디 오늘만은

멀고 험한 전선길 걷지 마시기를

천리방선 병사들 그리도 간절히 바랐건만

오 그이의 마음속엔 2월의 명절이 없었구나

목매여 우러르는 후더운 가슴들에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것은

조국수호의 길에 영원히 식지 않을

심장의 불이었다

한생토록 안고 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믿음이였다

눈이 와도 가시고 비가 와도 가시는 길

솟는 해 뜨는 별을 맞으시며

장군님 가시는 최전연은 그이의 정든 집

우리 장군님의 2월명절은

조국의 한 전호에서

병사들과 함께 쇠시는 복무의 명절, 애국헌신의

2월명절이여라

백두의 교향집

한광춘

여기선 흐르던 흰구름도 삼가 멈춰선다

바람결도 쉽없이 천지의 정기를 모아오고

소백수 물안개도 그윽한 정 싣고오는

백두밀영교향집

승엄하구나

피창가에 비긴 가없는 하늘도

설레며 파도치는 아득한 밀림도

벽이며 문이며 소중히 쓰다듬는

이 마음도

집이어

봄도 2월의 환희로운 그 봄
서리꽃도 노을빛에 붉던 그 아침
조선의 영광이고 자람이며 슬기인
백두광명성 받들어올린 고향집이어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을 맞이하려
성스러운 백두는 이 땅에 거연히 솟아있었던가
력사의 그날을 기다려
수수천년 눈보라와 폭풍우속에서
그 메부리는 장엄함과 기세참을 떨쳐왔던가

그렇구나 이 집은
백두의 천년암반으로 초석을 놓고
애국의 그 뜻으로 만년기둥을 세운 집
삼천리강산을 향해 추녀를 펼쳐
이 나라 강토를 한품에 안은 집

가사

해 솟아 달이 솟아

김명익

내 나라 강산에는 흐르는 세월도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서 흐르네
비오고 눈내려도 그 영상 그리면
사람들 가슴에는 해가 지지 않네
아 장군님 그리움에 해솟는 강산아

어디나 그 어디나 이 땅의 길들은
불밝은 당중앙에 이어져있다네
깊은 밤 한밤에도 그 영상 그리면

바라보면 저 하늘은
고향집 창가에서 푸르게 열린
열리어 세월의 끝까지 창창한
내 조국의 맑은 하늘
굽이치며 나아가는 천만의 대오는
백두의 이 요람에서 생을 받은 혁명의 대오

여기서 시작된 트랙은 이 땅 한끝에 닿았고
여기서 불타는 해돋이는 온 강토를 물들인다
가장 밝은 아침이 여기서 펼쳐지고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여기로 달려온다

아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시절 그 언제나 2월을 안고있는 집
백두산이 영원하듯이
무궁세월 높이 솟아 빛나리라
백두의 고향집
조선의 고향집이어!

사람들 가슴에는 달이 지지 않네
아 장군님 그리움에 달뜨는 강산아

해빛이 그림듯이 그 미소 그리워
달빛이 정답듯이 그 품이 정다워
꿈에도 꿈결에도 그 모습 뵈오며
내 한생 아버지의 그 품에 살리니
아 장군님 그리움에 해솟고 달이 솟네

우리 군대 만세

병사들 나간다 지구를 흔든다
전설의 령장이 거느린 대오다
이 강군 당할자 세상에 있으랴
장군님군대 우리 군대 만세

총검을 들고서 붉은기 지킨다
백두의 준령을 넘어온 대오다
이 강군 당할자 세상에 있으랴

장군님군대 우리 군대 만세

조국도 민족도 총대로 빛난다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든 대오다
이 강군 당할자 세상에 있으랴
장군님군대 우리 군대 만세

아 장군님군대 우리 군대 만세

내 조국 강토여

아득한 예로부터 아침의 나라였네
사시절 구름우에 백두산이 솟은 땅
김대장 빨찌산이 이 조국 찾자고
성산의 눈보라를 피로 다 물들였네
아 성산의 눈보라를 피로 다 물들였네

얼마나 성스럽더냐 그대가 고귀해
총잡고 나라지킨 애국자가 많은 땅
내 한생 바친것 없인 사랑할수 없는
한없이 귀중한 내 조국 강토여

아 한없이 귀중한 내 조국 강토여
한밤도 야전복이 날리는 소리런가
철령의 바람결에 들리어오는 땅
김정일장군님이 이 조선 빛내시여
이 강산 삼천리도 반만년도 있다네
아 이 강산 삼천리도 반만년도 있다네
아 한없이 귀중한 내 조국 강토여

무포의 하늘아래서

서봉제

예서 평양은
산넘어 천리여도
마음은 지척인듯
구름타고 조용히 날은다

두만강 건너 저편 이국의 산과 들
그 만리광야 그 험산준령에
수령님 찍어오신 피어린 자옥자옥
백두의 눈보라길도 뜨거이 걸어보시며
우리 장군님 깊은 사색의 바다를 펼치시던
아, 무포, 력사의 낚시터여

하얀 봇나무잎 미풍에 설레이던
타향의 그 봄날도 그려보시고
얼음뱀 진대나무에 앉으시여
인간의 자주정신과 투쟁의 진로를
항일혁명의 긴긴 나날에 밝혀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위업 되새겨보시며

불길만리 혈전으로 이어지고
결사의 각오로 헤쳐오신 그 걸음걸음
장백의 련련 산발마다에 밀림의 우등불로 새겨오
신
불멸의 그 사상 그 업적
어찌 지나간 력사로만 남겨두실것인가
어찌 위인의 전기로만 새겨두실것인가

만경대가문의 두자루 총대로
화전의 언덕에서 추켜드신 붉은기였고
동지로 시작된 조선혁명이였기에
끝끝내 해방의 봄을 안고오신 피어린 산발
백두광야에 천이던가 만이던가
외우기조차 서슴어지는 항일의 혈전만리
그 뉘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오직 총대로 개척하시며
거세찬 설한풍속에 진리로 익혀오신
영생불멸의 사상의 거봉 백두산에서 솟았나니

총대높이 수령님 헤쳐오신 조선혁명
총대의 불로 수령님 밝히신 그 철리
우리 장군님 주체사상화의 위대한 강령으로
온 누리에 붉은 노을을 펼쳐주신
2월의 장엄한 선언이여

아, 무포의 하늘아래
여기 두만강낚시터에서 열리였구나
백승의 사상으로 만민을 이끄는
선군태양 찬란히 빛나는 자주의 궤도우에
우리의 이 행성 지구는 실려가는구나!
인류는 휘황한 미래를 안고 따라섰구나!

-무포혁명사적지에서-

마술을 쓰는 대장수

김일성 장군유격대가 대마록구를 습격했다는 급보를 받은 적들은 눈이 뒤집혀돌아갔다.

안도와 화룡지구의 《토벌대》 사령관놈은 수많은 병력을 걷어모아가지고 부리나케 대마록구로 와닿았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다.

유격대는 감쪽같이 쳐들어와서 총 한방 쏘지 않고 순식간에 《토벌대》 본부와 병실, 경찰서 그리고 포대들을 제압한 후 목재소창고에 있는 식량과 천, 의복들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정치사업까지 벌이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대병력을 휘몰아가지고 왔으나 행차후 나발격이 된 사령관놈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빠가! 그따위 소린 걷어치우고 유격대가 얼마만 한 짐을 가지고 떠났는가를 말하라.》

불이 번쩍나게 귀썽을 서너번 얻어맞은 왜놈순사놈은 봉어눈을 디룩거리며 떠듬떠듬 그 수량을 말하였다.

《그러니 유격대가 그 많은 짐을 지고 떠났단 말이지!》

《헛-》

순사놈은 그제서야 조금 활기를 띠었다.

그놈의 말에 의하면 유격대는 술한 식량을 지고 떠났으며 그밖에도 목재소로동자들이 너도나도 하며 한짐씩 짊어지고 떠나더라는 것이었다.

사령관놈은 뽀족한 턱을 살살 문질렀다.

《음— 그러니 네 말대로 계산하면 유격대는 기관총을 포함한 수십정의 총과 10 여상자의 탄알, 100여벌의 군복과 700여포대의 밀가루를 지고 떠났다는 말이 아니냐?》

《웁습니다요. 사령관님!》

《그렇다! ...》

사령관놈은 잠시 눈길을 수림속에 두고 무슨 생각에 잠기는듯 하였다. 재빛승냥이처럼 번뜩이는 그 눈길은 어딘가 깊은 눈에 덮인 먼곳을 바라보고있었다.

(파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유격대는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갈길은 가파로운 울리막 외통길뿐이다. 그러니 아무리 축지법을 쓰는 백두산대장수이라도 이번엔 어쩔수가 없을것이다.)

사령관놈은 이런 생각을 머리속에 굴린 후 빨리 대병력을 출동하여 유격대를 뒤따라라고 호통쳤다.

사령관놈은 직접 말에 올라라고 박차를 가했다.

《야 이 굼벵이같은 놈들아, 빨리빨리 발을 옮기지 못해? 이제 조금만 달려가면 유격대가 나타난다. 어서 걸음을 다그치라!—》

사령관놈은 유격대를 놓칠가보아 말채찍으로 졸병들의 상판이며 등줄기를 가림없이 휘둘러댔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고달려도 유격대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나 달려온 거리로 보나 지금쯤이면 유격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가보자!...》

하지만 짐을 지고 가는 유격대는 통 그림자도 볼수 없으니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사령관놈은 분통이 터질노릇이었다.

그러나 중도에서 물러설수도 없어 온밤 눈길을 따라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런데 날이 흰히 밝을 때 보니 제놈들이 떠났던 대마록구목재소가 바로 코앞에서 나타났다.

《토벌대》는 온밤 눈길은 수림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왔던 것이었다.

졸병놈들은 맥없이 눈우에 털썩털썩 주저앉으며 저마끔 한마디씩 하였다.

《우린 백두산대장수의 마술에 걸렸구나.》

《길이 베게 떠났다는 유격대는 다 하늘로 올라갔는가. 등이 휘게 지고 갔다던 밀가루포대는 다 땅속에 갇아들었는가?》

《유격대가 승천입지한다더니 사실은 사실이야!》

사령관놈은 졸병들의 이런 푸념소리를 들으면 서도 뼈꼭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자기스스로서도 리해가 안되는 일이었다.

마치 여우귀신에게 홀려서 온밤 그짓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유격대는 분명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났다. 길은 눈속에 묻혀있었고 가파롭고 미끄러운 외통길이다. 그런데 유격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령관놈이 아무리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생각을 굴려보고 쥐어 짜봤으나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사령관놈은 이 지방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고있는 한토막의 이야기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다.

그것인즉 이러했다.

대마록구목재소가 습격받은 날 많은 목재소로동자들이 혁명군을 도와 한짐씩 짊어지고 나섰다.

그러다보니 대오가 무려 수백명에 달하고 선두는 벌써 멀리에 갔으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인민들의 지성어린 그 원호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 걱정하였다.

인민들의 성의를 마다하자니 인민들이 떨어지겠다고 하지 않지, 그렇다고 많은 식량과 피복들을 떨굴수도 없었다. 분명 왜놈 《토벌》대가 달려들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지휘관들은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골을 앓았다.

이때 백두산대장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의 《걱정》을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동무들은 별걱정을 다 하고있소. 그런 걱정은 아예 말고 내가 시키는대로 행동하시오. 그 걱정보따리는 조금 있다가 속시원히 풀어주겠소》

그러시면서 대장수님께서서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집결지점에 도착하면 멈추지 말고 행군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주시었다. 하여 행군대오는 수림속외통길로 모두 들어서게 되었다. 길은 가파롭고 눈까지 평평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간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서 부대지휘관들은 대장수님께서 보내신 전령병을 만났다.

전령병은 즉시 대장수님의 명령문을 전달하였다.

명령문은 간단하게 세 글자로 되어있었는데 지휘관들은 그 자리에서 옳지,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춤을 추듯 뛰어가는것이였다.

잠시후 배 부대들에는 등에 지였던 무거운 짐들이 감쪽같이 없어졌고 유격대원들도 인민들도 날개가 돋힌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축지법으로 그 많은 짐들을 순간에 없애버리셨다우. 이런 일이야 옛날 마술사들의 책적에서나 생겨났다는것 같은데 대장수님께서 진짜 마술을 부리신게 분명하우.》

전설을 전하는 인민들은 그때 거의나 다 유격대의 짐을 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라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명령문에 써주신 세 글자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세 글자인즉 《눈속에...》였다. 다시말하여 짐들을 모두 눈속에 파묻으라는 간단명료하신 명령이었던것이다.

백두산대장수님의 명령을 받은 부대마다 일정한 장소에 눈을 깊숙이 파헤치고 밀가루와 쌀, 무기를 묻은 다음 눈을 두텁게 덮어버렸다. 그리고는 그우로 길을 내며 지나갔다.

뒤따르는 수백명의 대오가 계속 밟고 지나가니 눈이 다져져서 큰길이 되고말았다. 여기에 유격대원들이 로획품을 묻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다.

결국 사령관놈은 밤새껏 유격대가 묻어놓은 짐들을 밟고다니면서 다람이가 채박퀴돌듯 제 소굴을 돌고돈것이였다. 후날 사령관놈은 대마록구에서 이 전설이 계속 생겨나는통에 그 책임을 지고 파면되였다.

가사

병사는 큰길을 걷네

문원모

배움의 나래펴고 학교길 오가던 나

오늘은 병사되어 훈련길 달려가네

칼벼랑 깊은 강 넘고 헤치며

땀배인 배낭 메고 쉽없이 걷네

아 병사가 가는 길

행복을 지켜가는 큰길이라네

산악이 막아선다 물러선적 있으랴

높은 산 진펄길도 웃으며 극복했네

지도에도 표식없는 험난한 길이어도

병사는 위훈 안고 속보로 걷네

아 병사가 가는 길

선군위업 펼쳐가는 큰길이라네

평탄한 길이 아닌 험한 길 가는

병사들을 조국은 축복해주네

세상에 천만갈래 길은 많아도

장군님 명령 지켜 한길로 걸으리

아 병사가 가는 길

최후승리 향해 가는 큰길이라네

만민의 축원, 2월의 송가

축 하

에르난 알따미라노 팔꼬니

밀림도 그이를 축복하는듯
기쁨 넘쳐 설레이네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었다고

다투어 피어나
무지개를 수놓으며 속삭였네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었다고

나무잎 누비며
가볍게 불던 바람도 기세차게 불며
감격에 넘쳐 기쁨에 넘쳐
하늘땅에 전했네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었다고

흐름도 유정한 소백수 맑은 물
바위에 부딪쳐 물보라 일으키고
은구슬 옥구슬로 흘러흘러
폭포되어 춤추며 노래했네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었다고

가지각색 꽃들도

(베 루시인)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송가

제가 지은 시 조선말로 읊어도
뜻은 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시구도 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심장의 노래 화원마냥 꽃피웠기에

주체혁명의 해불은 타오릅니다

당신은 강의한 의지를 지니신분
당신은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분
당신은 조선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향도의 별
당신은 삶과 혁명의 샘
사랑과 예지의 마를줄 모르는 샘

당신은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분
당신은 조선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향도의 별
당신은 삶과 혁명의 샘
사랑과 예지의 마를줄 모르는 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당신의 뜨거운 은정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이 시에서 보실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영상을 흠모하는 마음을
당신은 깊이 헤아려주실것입니다
당신의 천재적인 창조의 열정을 따르는 마음을
당신은 조선을 빛내이시는 태양이십니다
당신의 품이 있어
조선은 밝게 빛나고

당신은 진주와 산호마냥 빛나는 예지의 대해
사상과 리론의 창시자
주체조선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는
당신은 인민의 운명의 개척자
웅장한 도시와 동력기지
새들이 우짖는
아름다운 공원을 안겨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씩씩하게 나아가십니다
조선을 건설해나가십니다

(니까라과시인)

정 일 봉

알렉산드르 브레쥬네프

정일봉. 이는
조선의 자연이 지닌 영광
이 나라 인민이 지닌 용감성과 대담성
힘이며 위대한 조선혁명의 뿌리!
자본주의를 타승하는 사회주의수호!

정일봉. 이는
철의 사상
독특한 집단주의
주체사상의 드팀없는 교수

정일봉! 이는
모든 소원을 현실로 꽃피워주고
자유로운 조선의 기발을
평양의 하늘가에 백두산의 하늘가에
펼 펼 휘날려
기회주의자들, 반역자들을
전틀시킨다!

정일봉! 이는
조선의 성새
주체사상의 불멸의 해불
이는 세세년년 세계에 영광떨치시며
영원히 백전백승하시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로씨야시인)

시조

선군찬가

김송남

오, 다박솔초소

오, 다박솔초소
우리 장군님 오늘도 못잊으시고
우리 군민이 길이 안고 사는 언덕길
다박솔그루마다 전하는 사연이여

찾아오신 그이를 맞아
꽃다발을 드리는
병사도 목이 메이고
꽃다발을 받으시는
장군님의 눈빛도 젖어만 들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께 경건히 인사를 올리신 걸음
여기 다박솔초소에 이어놓고
저 멀리 휘발하강변에 맥박친
《ㄷ. ㄷ》의 첫 총대의 숨결을
가슴뿌듯이 다시 안아보시는 장군님

곧바로 이 길로 가야 한다

《ㄷ. ㄷ》의 구호높이 시작한
선군의 이 길에서
철석의 신념을 초소의 눈길에 찍어가시는
그 자욱자욱은
내 나라에 거룩하게 새기시는
비상한 각오였다

화전의 산발
휘발하기습이 고이 간직한
그 력사의 자욱자욱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반들어올리신
시대사상의 불멸할 기치였다

오, 다박솔초소
다박솔 다박솔 그루마다가
그날의 설눈을 털며 더 푸르게 일떠섰거니
선군, 선군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주체의 이 강산이 더 높이 솟아올랐다
자주의 봄누리가 더 넓게 펼쳐졌다

총대의 의미

총대의 의미를 생각하노라
만탄창된 그 한점한점의 불씨
서슬푸른 날창에 비껴든 사명이
어디에 다 있는가를 생각하노라

우리의 총대는 백두산총대
지금은 묵묵하고 조용한 이 순간에도
끓임없이 터치는
폭풍같은 언어가 있나니

그 말은 마치도
총신강을 떠난 탄알처럼
쉽없이 과녁에 날아가 박혀
핵무기를 휘두르는 저 원썩놈들
제 허를 깨무는 치욕과 패배를 준다

그 말은 또한
날창끝에 서려도는 해빛처럼
이 나라 산과 들을 비치며 어루만지며

서리바람 눈속에서도 솟구쳐오르는
푸른 싹의 싱싱한 숨결을 준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원천이 되고 나래가 되어
새 벽체 새 기둥을 세워가는 이 총대
원썬놈들의 사소한 도발에도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여
굳건히 평화를 지켜가는 우리의 총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여
조국수호로
더욱 뜨거워진 애국의 열기가

일심단결의 힘으로 만탄창된 무적의 총대여

이것이 아니었다면
저 하늘이 백번도 더 무너져내렸으리
이 땅이 천번도 더 꺼져버렸으리
우리의 두손목에 발목에 또다시
노예의 사슬이 채워졌으리

아 우리의 총대란 무엇인가
말하고싶구나 웨치고싶구나
백두의 이 땅에 뿌리내리고
맑고 푸른 우리 하늘을 받들어올리는
영원불멸의 기둥이라고!...

개천절을 두고

머나먼 태고적에
이 강산 푸른 하늘은 열리어
내 나라가 명절로 맞이한
그 개천절은
정녕 단군시절에 생겨났더냐

하늘은 열리었어도
머리 이고 살 인민의 하늘은
그 어디에도 없어
력사 반만년이 오늘처럼
맑고 창창한 하늘을 마주한적 있었더냐

비로소 열리었어라
인민의 《개천절》은
주인으로 태어난
로동자, 농민이 큰 숨을 내뿜던
해방된 그해의 기쁜 하늘이여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선군세월의 이 아침, 이 낮과 밤들이여

우리는 보았다
제재와 압살의 광풍을 뚫고
주체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온 나날에
력사반만년이
자기의 새 년륜을 감으며
어떻게 광휘로운 빛을 뿔어올렸던가를

그것은
오랜 력사의 갈피속에

설명절기쁨이 제자리를 찾은 세월
정월대보름, 추석날 둥근달이
더욱 밝아지고 환해지던 나날들

무지개빛 령룡한
녀인들의 치마저고리단장들에도
조선-그 이름이 한껏 빛을 뿌리고
《대황소상》 꽃굴레 왕방울소리에도
조선-그 기상이 기세차게 차넘치던 년대들

태고적 주름살을 밀어내며 걷어내며
바둑판같은 새 벌들이 펼쳐진 나날이여!
닭공장, 오리공장, 청년염소목장
새로운 창조물들이 이 땅을 덮고
먼 대륙의 타조무리조차
이 땅을 찾아 깃을 옮긴 선군시대여!

다름아닌 그 하루 낮과 밤들이
비로소 맞이하고 또 맞이한
우리의 《개천절》들이 아니었으랴
정녕 우리 장군님 천지개벽을 펼쳐
이 강산 새 하늘을 열어오시였거니

그러하여라, 그러하여라
우리 장군님 안아오시는
선군세월의 이 하루하루는
그 모두 우리에게 빛발치고있어라
새 력사의 뜻깊은 《개천절》로...

선 군 만 세 !

해빛 창창한
우리의 오늘을 주고
래일을 펼치는
선군,
선군 만세

예지의 빛발이 번쩍이고
의지와 담력이 맥박치고
불같은 사랑이 깊이 숨쉬는
이 세상 하나인 사상과 령도
선군,
선군 만세

선군이 아니었다면야
어찌 다시 바라볼수 있었으랴
변함없는 주인의 눈빛으로
영원히 따사롭고
영원히 맑고 푸른
저 하늘, 저 해빛, 저 산줄기와 넓은 들을

이것으로 하여
백두산총대는 더 번개치는 날을 세웠고
백두산인민은 더욱 노도치는 힘을 길렀다
이 길에서 우리 지켜냈나니
주체의 사회주의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것을...

선군—이것이 어찌
하나의 새로운 시대어이기만 하랴
그것은 이미
우리의 가슴에 뛰는 피방울이며

그 뜨거운 열기
그것은 벌써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이 강토의 력사이며 미래
이 민족의 넓이고 무한한 사랑

그것은 한통한통의 약크림이 되어
바다바람에 터갈라진
치녀병사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인민의 마음에
뜨거운 정으로 흘러들었다

그것은
대흥단마을의 새 애기 《홍단》이
애뜻하고 뜻깊은 그 이름과 함께
천만이 나눈 기쁨이 되고
온 나라가 받아안은 행복이 되었다

선군—그것이 없이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세상 모든 희망도 있을수 없어
운명을 다 맡긴 우리 군민이
어깨결고 발맞추어 함께 열어가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이며
자주통일의 새 아침

이 강산이 더욱 아름다워지라고
이 조선이 더욱 빛나라고
우리는 선군만세를 부른다
선군의 만능보검을 높이 비껴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세를...

가사

아, 새벽문과 저녁문

림철

내 나라의 새벽문은 누가 여는지
우리는 우리는 알고 살았던가
장군님 이른새벽 찬눈비 맞으시며
사랑의 먼길을 조용히 떠나실 때
아 내 나라의 새벽문이 열리었네

내 나라의 저녁문은 누가 닫는지
우리는 우리는 생각하였던가
장군님 전선길에 야전차 달리시어

사람들 단잠든 수도에 들어설 때
아 내 나라의 저녁문이 닫기였네

저 하늘의 솟는 해가 다 보았다네
한밤에 지는 달이 다 알았다네
장군님 이어가신 헌신의 낮과 밤은
강성하는 조국의 력사로 흐르리
아 선군의 력사로 빛나리라

정의와 량심에 살려는 작가를 믿어주고 이끌어주시여 (1)

박춘택

수령과 작가들사이의 각별한 친분관계는 두터운 믿음의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능있고 좋은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한 작가, 예술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그들이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잘 돌보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문학발전을 위해 깊은 심혈을 기울여오신 한평생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쓴 작가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력사이다.

작가들에 대한 뜨거운 믿음, 고결한 혁명적의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셨던 숭고한 인격이고 특유한 인품의 향기였다.

믿음은 곧 사랑이며 동지애도 믿음에서 뿌리내린 고귀한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은정에 대한 이야기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한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변함없이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문학의 력사와 함께 길이 전하여지고있다.

작가 김사량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의 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주체43(1954)년 봄 어느날 내각 전원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휴식시간에 문화선전상(당시)을 부르시여 작가 김사량의 소식을 모르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라의 중요한 경제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의 짧은 휴식시간에마저 한 작가의 운명에 대해 관심하시는 그이께 문화선전상은 만족할만 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는 여러곳에 수소문해보았지만 김사량의 생사여부를 모르고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를 두고 일부 사람들속에서 이러저러한 억측이 돌고있는데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아직도 김사량동무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있는가, 그 동무가 마지막으로 당증을 보낸 곳이 남강원도 원주계선이였지라고 하시고는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생명의 최후순간까지 견결히 싸웠으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공화국을 위해 잘 싸운 사람들의 공로를 바로 평가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주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의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문화선전상이 직접 만나 보고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이 말씀에 접한 문화선전상과 그 자리에 있던 일군들은 아직 생사여부를 알길 없는 한 작가에 대하여 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표시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에 가슴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사량을 처음으로 아시게 된것은 해방된 그해 가을이었다. 이국땅에서 갓 돌아온 김사량이라는 작가가 수령님을 만나뵈옵기를 여러차례 간청해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날 한 작가와 함께 그를 전력으로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인사의 말씀을 미처 울리기도전에 해방된 조국에서 작가동무들을 이렇게 만나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지난날과 가족들의 안부에 대해서 따듯이 물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너그럽고 소탈하신 인품에 이끌린 김사량은 자기의 지나온 생활에 대해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김사량은 주체3(1914)년 평양에서 자그마한 주물공장을 경영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기업을 경영했던것으로 하여 그의 집안은 비교적 괜찮게 사는편이었다. 친형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조선총독부》에서 국장노릇까지 하였었다. 김사량자신도 가정의 뒤받침으로 웬만한 일본사람들조차 쉽게 들어갈수 없었던 도표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왔다. 환경에 순응한다면 그는 치부도 할수 있었고 《출세》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량심을 팔아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 어릴 때 평양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김사량은 반일시위와 동맹휴학에 참가하였으며 이로 하여 퇴학당하였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닐 때 좌익운동에 관여했으며 두차례의 옥고를 치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량심만은 버리지 않

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일제에 대한 반항의식이 불타고있었다.

1930년대 중엽부터 문단에 나서서 그가 발표한 처녀작인 단편소설 《토성량》과 《빛속에》, 《천마》, 《풀이 깊다》 등 여러 작품들에서는 식민지민족의 울분, 고통받는 겨레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함께 어둠속에서 빛을 그리는 작가자신의 모태김이 반영되어있었다. 《빛속으로 어서 나가 고싶다》는것이 그의 희망이자 생활의 좌우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였기에 조국이 해방되자 부른 가슴을 안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개선하신 평양으로 찾아왔고 민주조선건설에 몸바쳐 나서리라 결심 다지고있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저 한것도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그가 못내 대견하게 생각되시었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환경을 박차고 자기 민족, 자기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결심을 품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애국심과 정의감이 강렬해야 내릴수 있는 용단이였다.

그이께서는 김사량이 얼마든지 함께 손잡고 부강한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나갈수 있는 혁명동지로 될수 있다고 믿으시었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사량동무는 일제의 식민지적탄압속에서도 량심과 지조를 지킨 지식인이라고 하시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곳곳이 살아온 그의 행동을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순간 그는 감격에 목이 메여 눈앞이 흐려졌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계급출신의 작가들인 자기들을 만나주신것만 해도 그지없이 고맙고 그 영광 끝없는데 지난날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들에게 것처럼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까지 주시니 김사량은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정중히 일어나 장군님을 모시고 새 민주조선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씀드리며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문화인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새 조국 건설의 기둥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작가들은 선전교양자적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창작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어버이다운 사랑과 넓은 포용력, 숭고한 애국정신과 비범한 예지가 넘쳐흐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김사량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그의 말씀은 곧 봄날의 해별이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던 그 시각까지도 김사량은 자기와 같이 출신과 경력이 복잡한 사람을 그이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지 하는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했었다.

김사량으로 말하면 그는 오랜 지식인가운데서도 출신과 환경이 남달리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작 만나뵈고나니 그런 한가닥 위구와 불안은 씻은듯이 가셔졌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은 김사량은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뜻있게 살려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삶을 빛내일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품이고 재생의 빛발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는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김사량을 만나주시고 강령적교시를 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그이께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였다.

믿음과 흠모에 기초하여 맺어진 위대한 수령님과 작가 김사량사이의 의리적관계는 그후 여러 계기를 통하여 더욱 두터워졌다.

해방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첫 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이 무어질 때 총련맹집행위원회 조직안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사량이 집행위원으로 계기되는데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그가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새로 선거된 북조선예술총련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김사량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건강했는가, 사랑동무랑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업했기때문에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치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어제날 식민지식인이였던 김사량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새 조국 건설과 민주주의민족문화예술건설을 위한 사업에 정열과 지혜를 바칠수 있었고 북조선예술총련맹 중앙위원 겸 국제문화국장과 중앙예술공작단 단장, 평안남도예술련맹 위원장 등의 중책을 지니고 새 문화건설의 핵심일군으로 활약할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자체의 인간화적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되는 조건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문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 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나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인 경우에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담보이다.》

《주체성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민족문학창작과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래도를 똑바로 가지는것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자기의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가사목록

심장으로 불러 찾는 어머니

류동호

행복할 때 부르면 내 가슴에 기쁨이 커지네
힘겨울 때 찾으면 내 마음에 새힘이 용솟네
심장으로 불러 찾는 어머니 우리 당
그대보다 자애깊은 어머니는 세상에 없네

눈비올 때 부르면 내 눈빛에 무지개 비끼네
먼길 갈때 찾으면 내 앞길에 해빛이 넘치네

심장으로 불러 찾는 어머니 우리 당
그대 품에 맡긴 삶은 꽃이 피는 봄날만 있네

희망넘쳐 부르면 내 발걸음 나래가 돋치네
소원안고 찾으면 내 인생의 푸른 꿈 꽃피네
심장으로 불러 찾는 어머니 우리 당
그대 함께 가는 길은 천만리가 행복이여라

내 조국을 사랑다해 받들립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자랄 때에는
그저 좋아 그 수고를 몰랐습시다
내 자식을 등에 업고 땀흘려보니
어머니의 천만고생 어려웁니다

어머니의 손목잡고 오고간 길엔
그저 기뻐 가시발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딸 이끌고서 그 길 걸으니
걸음걸을 고마움에 젖어듭니다

천만자식 업어키운 우리 어머니
이제라도 등에 업고 걸으렵니다
어머니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내 조국을 사랑다해 받들립니다

아, 어머니조국
내 조국을 사랑다해 받들립니다

내 고향의 동구길

이른 새벽 해돋이를 안고 오신 길
깊은 밤의 이슬 헤쳐 오셨습니다
장군님 자욱 따라 새로 낸 길이
선경마을 동구길이 되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고향 동구길이어

눈내리고 비내려도 다시 들리서
새 마을에 꽃필 행복 주셨습니다
장군님 그 정으로 넓어진 길이
선경마을 동구길이 되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고향 동구길이어

전선길과 동구길을 하나로 잇고
다시 오실 아버지를 마중갑니다
장군님 그리움에 불타는 길이
선경마을 동구길이 되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고향 동구길이어

주체95(2006)년 10월 4일

장시

빛나라, 위대한 선군길이어!

신병강

1960년 8월 25일!
그날은 보통날이었어도
참으로 경사로운 날이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주체의 건군사에
새 력사의 장이 펼쳐지던
뜻깊은 명절날

오, 그날은
젊으신 우리 장군
수령님 안도에서 높이 드시였던
거룩한 그 손길을 이어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강군으로 키우실
선군의 의지를 안으시고
첫 사열을 하신 날

그날에
장병들의 열광적인 환호
지축을 울리는
열병행진은 따로 없었어도
그이를 우러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선
가장 숭고한
총대경의를 드리고있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장장 46성장-
그이 하루같이 이어오신 선군길이어!
또 한분의 불세출의 령장의 손길따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펼치며
그 얼마나 영광에 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던가

1960년 8월 25일!
조용히 력사의 그날을 되새겨보면
눈앞에 뜨겁게 어러온다
105땅크사단 군인회관채양우에 빛나던
장병들의 신념의 그 구호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오, 그것이
너무도 대견하고 기쁘시여
우리 인민군대만이
이런 구호를 들수 있다고
몇번이고 구호를 바라보시던
우리 장군의 환하신 그 모습...

그 구호앞에서
그이는 어머니님 바라시던
크나큰 념원도 읽으시였고
그 구호앞에서
그이는 장차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실
먼 앞날도 내다보시며
굳은 맹세를 다시시였다

-나는 수령결사옹위의 이 구호높이
우리 인민군대를 철두철미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세상에서 제일가는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말하라, 길이어!

위대한 선군의 길이어!
 그렇게 시작된
 너 선군길 그이 거룩한 자욱마다엔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님께 바치는 고귀한 충정
 병사들에 대한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넘치여
 이 나라 방선천리
 천만심장을 울려주었던가

병사들이 가는 길
 나라고 왜 못가겠는가
 그이 몸소 조향륜을 잡고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준엄한 적구 판문점초소길이어!
 창과를 헤가르는
 어뢰정사령탑에 오르시여
 그이 해병들과 함께
 세찬 풍랑 헤쳐나가시던
 먼바다항해길이어!
 하늘만리를 주름잡는
 위훈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시며
 그이 몸소 조종간을 틀어잡으시던
 못 잊을 시험비행길이어!

그 길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 길에 눈보라 울부짖는다고
 그이 걸음 순간의 멈춤이 있었던가
 수령님 가신 길이면 다 가시고
 수령님 만나주신 병사들 다 만나주시며
 조국의 초소와 초소길에 새기신
 선군령도의 빛나는 자욱이어!

그래서
 머리흰 백전로장의 투사들도
 군건설의 위대한 계승자
 그이 지니신 천재적지략
 고매한 덕망앞에
 뚫어쫓는 격정과 탄복을 금치 못하며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리던 그 아침처럼
 심장으로 터쳐 올린 목소리는
 무엇이었던가

아,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우리의 젊은 최고사령관이시여!
 불패의 혁명무력을 통솔하시라!

하기에 우리 수령님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을 찾으셨던 그날
 한 벽면을 차고넘는
 그이 군령도일력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감회깊이 말씀하셨던가

-**김정일**동지가
 정말 많은 길을 걸었구만
 그는 내가 걸을 길을
 이렇게 다 앞서걸으면서
 우리 혁명무력강화에
 큰 공적을 세웠소

그렇더라
 세계 이름난 명장들
 한뼉을 두고도 이루지 못하는
 군건설의 세계사적업적
 그이께서 20대, 30대에
 다 이룩하시였다

《무에불로》 호사건
 《EC -]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관문점사건》 ...
 일촉즉발의 전쟁전야의 불구름 몰아오던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 ...

천지를 진동하는
 폭탄같은 선언으로
 원썩들을 기절초풍케 한
 그이 드센 배짱과 담력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 통장훈을 부르시는
 그이 공격형의 비범한 령군술을 두고
 우리 수령님
 또 얼마나 만족해하시었던가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이는 백두산이 받들어올린
 회세의 강철의 령장
 백두산빨찌산의 위대한 아들
 문무재덕을 다 겸비하신
 장군중의 장군!
 세기를 넘어 세월이 기다려온
 위인중의 위인!

말하라, 1990년대여!
 그이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것처럼 준엄한 시련을 맞받아
 우리 얼마나 신심높이
 승승장구의 한길을 걸어왔던가

말하라

사느냐, 죽느냐
 민족의 운명 생사기로에 올랐던 그때
 정녕 그이 아니시였다면
 대국상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어떻게 우리 인민들
 그렇듯 결연히 일어날수 있었으며
 그이 아니시였다면
 미제의 끈질긴 봉쇄속에서도
 어떻게 《선군8경》을 노래하는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으랴

오직 총대만이 나라를 살리고
 총대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이 아픈 가슴 달래이시며
 불꺼진 공장, 터갈린 농토를 뒤에 두고
 낮에 밤을 이어 넘고 또 넘으시던
 철령의 전선길이어!
 오르고오르시던
 오성산과 대덕산, 1211고지 ...
 이 나라의 무수한
 최전연고지와 고지들이여!

우리는 보았다
 늘 야전복차림으로
 눈오고 비오는 사계절 가림없이
 병사들과 함께 계시는 그이 모습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자애로운
 병사들의 최고사령관을

우리는 보았다
 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쪽잠에 드시며
 천만군민과 함께 생사고락하시는
 그이 모습에서
 인민의 참된 아들
 위대한 애국자의 헌신을

우리는 또 보았다
 푸른 위장당 날리는 최전방지휘소에서
 적진을 굽어보시는 서리찬 그이 안팎에서
 천변만화의 백승의 지략을 펼치시는
 선군의 《백두산호랑이》
 오늘의 김대장을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미제가 전쟁의 불을 걸어온다면
 저 백악관, 미제의 아성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라!
 미제호전광들에게 버릇을 가르쳐주라!
 백두산총대는 원썩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오, 정일봉의 퇴성이 터져오르는가
 백두령장의 위대한 그 선언앞에
 날뛰던 침략의 무리 불을 맞은듯
 그 얼마나 아우성쳤던가
 선군정치로 복잡다단한
 이 행성을 주도하시는 그이를 우리러
 온 인류가 터치던 환호성이여!
 《21세기 특대사변》으로
 그이 가시는 곳곳마다에 휘몰아치던
김정일 환호의 열풍
김정일 선군열풍이여!

내 오늘
 백두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오른
 대홍단혁명전적지 총대탑을 우리러
 뜨거운 걱정 터치나니
 그날에 우리 장군님
 너 총대를
 필승의 보검으로 추켜들지 않으셨다면
 벌써 이 나라는 천백번도 더
 핵참화의 불속에 잠겼으리
 이 민족의 운명도 끝장나고말았으리

총대를 들어쥐고
 총대와 함께 46성상
 진정, 그이 걸으신 선군길은
 조국과 민족을 살린 운명구세주의 길!
 일찌기 우리 수령님
 선군의 총대로 열어제긴
 조국해방성전의 길
 위대한 전승의 길을 이어
 가장 포악한 날강도 미제를
 총대로 길들이고
 총대로 이 땅에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열어제긴
 21세기 선군태양의 길!

우리 인민군대를 가장 철저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정예화된 필승불패의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신
 선군령장의 위대한 계승의 길!

영광을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수령님 유산으로 남기신
 내 나라, 내 조국을 품에 안고
 인간이 아는 교충의 한계를 넘어
 선군의 한길에서 교생도 많으시고
 마음도 많이 쓰신 우리 장군님께

언제 한번

단란한 가정속에 계심이 없이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그 무수한 일요일과 명절날
고귀한 그이 생신날앞에...

감사를 드리자
그이 옷자락 스치며 지나가신
초소의 오솔길, 흙냄새 진한 전호길에
사나운 바다바람에
모자도 없이 머리칼 날리시며
사랑하는 딸들의 영접보고를 받으시던
너성해안포병구분대 그 바다기슭에
병사들이 너무 보고싶어
조국을 가까이할 때는 눈물부터 앞섰다는
그이 외국방문의 귀로길에...

감사를 드리자
가시던 길 다시 되돌아오시여
자신께서 직접 노래채점자가 되시여
중대병사들에게
노래반주기재사용법도 가르쳐주시고
찬 눈바람 몰아치는 무산령초소
기념촬영에 빠진 한 병사를 기다려주시던
그 귀중한 사랑의 시간앞에

초소마다 콩날가리 마음 흐뭇한
선군시대 류다른 풍경을 펼쳐주시고도
차마 걸음 못 떼시며
중대지휘관들을 다시 부르시여
병사들에게 콩음식 해먹이는 방법
궁금증을 없애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던
땅거미 깃든 산중초소의 그 마당가에

아, 우리 장군님
그렇게 천신만고 헤쳐가신
위대한 선군의 그 길우에서
승리의 동은 터오고
강성대국의 려명은 밝아오거니

뜻깊은 이날에

저 멀리 수도를 향하여
영접들어 총 높이 든 장병들이여!
더 높이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라
더 높이 총대, 총대를 흔들며
목청껏 선군승리 만세를 웨치라
보폭높이 행진해나가는 대오여!
온 세상이 다 듣게
황! - 황! - 발구름소리
지구를 울리라!

하여 이 시각도
조선을 다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저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을 향하여
파연 이 땅에
그 누가 계시기에
우리가 이처럼
큰소리를 치는가를 알게 하라

만약 덤벼든다면
그 어떤 무서운 불덩어리를 날릴
중오와 복수의 화약을
총대만이 아닌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만장약했는가를 알게 하라

우리가
그 어떤 신념과 미래를 안고
승리를 이어온 전승광장에서
이렇듯 춤바다, 노래바다속에
선군의 8.25를 경축하고있는가를
알게 하라

오, 영광이 있으라
1960년 8월 25일!
우리 혁명무력의 경사스러운 명절
뜻깊은 그날로부터 이어온 승리의 길,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위대한 선군길이며!
천세만세 불멸할 그 업적 길이 전하며
세계만방에 더욱 빛을 뿌리라!

주체95. 8. 16

가사

병사와 아기

박항미

보람찬 하루일 끝낸 저녁길
젊은 부부 아기를 안고 가는데
임무받고 가던 병사 걸음 멈추고
달같이 환한 아기 안아올리네
아 아기야 아기야 밝게 웃어라

병사가 추켜올린 아기 모습은
총대로 지켜가는 조국의 미래
수호자의 긍지로 부풀게 하는

아기의 웃음 지켜 병사는 사네
아 아기야 아기야 밝게 웃어라

이 땅의 행복 지켜 떠나는 병사
아기는 꽃잎같은 손을 흔드네
총대우에 피어나는 아기의 웃음
내 조국의 무궁한 행복이 되리
아 아기야 아기야 밝게 웃어라

병사들의 가슴에 새긴 철의 진리

우리의 총대우에 평화가 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 이 신념에는 희세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투철한 혁명의지가 담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12월 어느날 인민군부대의 어느 한 사격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군인들은 실탄사격을 하게 되었다.

사격이 끝나자 목표판의 탄착점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자신께서 가지고온 탄알로 쏘아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사격장에는 야무진 총성이 또다시 연거퍼 울려 퍼졌다. 먼저번보다는 비할바없이 높은 점수였다. 일군들이 사격점수가 높아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놀라움과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준 탄알이 별다른것이 아닌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먼저 쏜 탄알과 꼭 같은것이라고, 다른것이 있다면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탄약보관관리를 엄격히 했을뿐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관리하라는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현대적인 무기라고 해도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지 않고 잘 보관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 ...

군인들은 뜻밖의 지적의 말씀에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요구성은 이처럼 높고 엄격한것이였다. 심한 자책감에 잠겨있는 군인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오늘 동무들이 사격을 하는것을 보니 사격속도가 느리다고, 사격장에 나선 사수는 총탄이 어깨에 닿는 순간이면

방아쇠를 당겨 목표를 명중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판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적들과 총부리를 마주댄 순간에 제때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자기를 지켜낼수 없는것은 물론 조국과 인민도 지켜낼수 없다, 동무들이 이 총으로 원수를 죽이지 못하면 제2, 제3의 신천의 피의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될수 있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도 군인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려했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예로부터 국사중의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민군대의 어깨우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워져있다, 인민군대를 떠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민군대의 총대우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평화가 있다는것을 언제나 주장한다.

총잡은 병사들의 가슴을 쿵쿵 울리는 뜻깊은 말씀이시였다.

인민군대의 총대우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평화가 있다!

정녕 총대가 없었던탓에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수난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 함축되어있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의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총대혁명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가 담겨져있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숭고한 뜻이 어린 그날의 력사의 총성과 더불어 조선혁명은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더욱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가사

우리 장군님 시간속에

박세일

전선길에 오르시면
수령님 다녀가신 초소부터
농장벌 찾으시면 수령님 다녀가신 포전부터
아 우리 장군님 시간속에
아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여라

인민 위한 모든 일은
수령님 생전의 념원대로
조국 위한 모든 일은

수령님 생전의 뜻을 지켜
아 우리 장군님 시간속에
아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여라

태양의 한모습
수령님과 꼭 같으신 장군님
주체의 궤도 따라 수령님 력사는 계속되여라
아 우리 장군님 시간속에
아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여라

눈내리는 그밤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둔 이즈음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오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정숙은 자기를 늘 수령의 전사라고 하였고 감회깊이 쓰시였다.

새 조국건설이 한창이던 2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북조선로동신문인민위원회 창립을 선포하실 력사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계시였다.

추위에 떨던 밤하늘의 별들도 조울던 자정이 훨씬 지난 그 시각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집무를 보고계시였다.

이때 아버지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던 한 일군이 창가에 다가서다가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언제 오셨는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창문앞 정원쪽에 서계시는것이였다.

눈꽃이 날리는 추운 겨울밤, 어깨우에 쌓이는 진눈까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위대원의 자세로 서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그 일군은 크나큰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수수한 솜옷을 입으시고 경위대원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눈보라 울부짖던 밀영의 깊은 밤에 사령부를 지켜서시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이 안겨왔다.

그 일군은 서둘러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건강이 녀려되어 방으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창가를 바라보시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입가에 손을 가져가시는것이였다.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한창 글을 쓰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라는 뜻에서였다.

그 일군은 그제서야 헤덤비던 자신을 자책하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고 걱정스레 말씀올리는 그 일군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오히려 가벼운 미소를 보내시며 얼마나 피곤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일군은 자신보다 먼저 전사를 위하시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변함없는 진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어서 들어가 주무시라고 말씀올렸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저 웃어 보이시며 멀리 북녘하늘을 바라보시는것이였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눈가에는 항일의 준엄한 나날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 지새우시던 낮과 밤들이 떠오르시는듯 근엄한 빛이 한껏 어리시였다.

얼마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깊은 음성으로 그 일군에게 산에서 싸울때부터 이렇게 하는것이 늘 버릇이 되어서 이제는 어쩔수 없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계시는 불 밝은 창가를 우러르며 그냥 서계시는것이였다.

그날 그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한밤을 지새우시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항일전의 그날처럼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한밤을 지새우시는 친위전사의 숭고한 그 모습.

항일의 준엄한 나날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 지새우신 수백수천의 낮과 밤들,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보여주신 잊지 못할 그 숭고한 모습은 영원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나를 영웅의 어머니라 하지만

외 1편
김휘조

또다시 온 이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날
내 생각깊이 너를 찾아왔다

정깊은 네 이름을 부르면
금시 대돌을 내려 이 가슴에 안길듯
아들아, 너의 모교 네 뛰놀던 마당가
너의 동상앞에 이 어머니 서있다

룡문천기슭 푸른 잔디밭에

네 손잡아 첫걸음 떼어주어서나
너를 위해 젖은 손이
마를날 없던 나여서나
너로 하여 사람들은 부르누나
나를 영웅의 어머니라고

송구스러워라
걸으면 걸채일이 뛰넘어질가
너를 위해 한오리 두오리 머리세였건만
탄광의 평범한 녀인
이 가슴에 벽차도록

그 말을 지니기엔 너무 송구스러워

내 삼가 옷깃 여미며
장군님을 생각한다
네가 섰던 고지
저 멀리 까치봉을 찾으시여
이 어머니 안부까지 물어주신 장군님을 우리르니
산바람에 날리던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이 눈앞에 어려오나니

자식을 낳고 키워서만 어머니더나
넋으로 심어준 참된 뜻이 없다면...
해야 보아라, 운탄선의 불꽃이는 저 언덕길을
탄전에 작은 발자국 찍으며 자란
네 어깨에 별을 달아주신 장군님 고마워
이 어머니 뜨거운 눈물을 떨구던 향촌길이다

자신만을 위해선 순간도 못살아
전사들 대신해 보초를 서면서도 웃던
전사의 언발을 품어 녹여주면서도 웃던
아들아
눈속에서도 얼지 않던 너의 그 사랑은
바로 장군님 주신것이 아니더나
병사들을 찾아 천리를 가시는 장군님
한번 안으면 온 세상을 다 주시는 그 사랑이

아, 이 어머니 없이는 살수 있어도
장군님떠나 못사는
너는 장군님의 병사
장군님의 사랑을 지녀 심장도 불갈던 아들이
너는 동지를 위해 터지는 수류탄을 끌어안고
마지막순간을 빛내였거니
어이 마지막이라, 오늘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값높은 언덕에 서있거니

스물다섯살 그 꽃나이에
영생을 안은 아들이
장군님품은 누구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사는 품
그 사랑처럼 끝없는 용맹에
영웅으로 자라는 품

뜻깊은 이날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가는 저 병사들을 보며
말하고싶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의 어머니라 하지만
참으로
이 나라 병사들을 영웅으로 키우시는 위대한
어머니
그이는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라고

사랑하는 나의 집아

미처 몰랐네, 우리 장군님
먼 전선길에 우릴 찾아오시고
가실 땐 가실 때엔
나의 고향마을에도 들려주실 줄

정말 미처 몰랐네, 초소에 오시여선
병실이며 식당에도 들려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남겨주시고...
가실 땐 가실 때엔
먼 산촌
병사, 나의 집에도 들려주실 줄

새집들이한 후엔
가보지 못했다고 아뢰일 때에는
-그렇단 말이지 새집들이도 했는데...
내 마음 헤아리신들 조용히 외우시더니
가실 땐 가실 때엔 피로도 잊으시고
나의 집에도 들려주실 줄

아, 내 어깨를 두드려주시던
정깊은 그 손길로
나의 집 아래목도 짚어보시고
하얀 울담아래 새로 심은
살구나무가지들도 쓸어보시고

병사 나의 고향집이
해빛속에 가장 따뜻하길 바래
파일나무엔 더 일찍 꽃들이 피고
향기처럼 열매처럼
기쁨이 한가득 차넘치길 바래
오래오래 마당가를 거니시며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장군님

잊지 못해라, 자신은 생신날에조차
집떠나 전선길에 계시면서도
초소에 오실 땐 산같은 사랑 안고오시고
가실 땐 그 사랑도 적으신듯
먼 산촌 우리 집도 들려주시니
장군님 가슴속엔 언제나
병사 우리가 있구나

아, 사랑하는 나의 집아
너를 그려볼 때면 이 가슴 불탄다
오늘도 가파른 훈련길에 진한 땀 흘린다
쉽없는 선군길에 한없는 사랑 베푸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를 모시고사는
사랑하는 나의 집
우리모두의 행복한 집들을 지켜

서정시 《용서하시라》의 깊은 여운을 두고

리근세

...

그리고 용서하시라

분명 《사죄》를 바라는 젖은 목소리, 작고 떨리는 아담한 어조이다.

그러나 그 작은 소리는 지금 깊은 여운을 남기며 위력한 힘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장검을 대신 할수 있다.》

서정시 《용서하시라》는 바로 진격의 날에는 천만자루의 창검이 되었고 건설의 날에는 기적과 혁신의 원천이 되였다.

서정시 《용서하시라》는 바로 숭고한 조국애의 사상감정으로 만사람을 격동시켰고 그들을 지극한 헌신으로 떠밀었다.

바라볼수록 숭엄해지는 그 높은 세계가 우리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준다.

고마운 조국 위해 그의 아들-병사가 더없이 귀중한 생명까지도 다 바치려는 절절한 신념의 맹세. 그러나 병사는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그 값 높은 위훈에 대해 어린시절의 철부지투정이나 학교시절 애꾸러기잘못을 빌듯이 조용히 울먹이며 사죄한다.

...

잊지 마시라

내 최후의 돌격전에서

기발되고 나가다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며

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

그리고 용서하시라

병사는 과연 그 어떤 용서를 바라는것인가.

병사는 그 아무리 값 높은 위훈이라 해도 살아 이 땅위에 더 많은 일을 해놓지 못하는 그 《죄스러움》을 삼가 조국앞에 아뢰이는것이며 자식의 희생으로 하여 어머니조국에 마음쓰린 고통을 주게 되는 그 《잘못》을 사죄하는것이다.

병사-서정적주인공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있는것인가.

새롭고 참다운 조국애의 정신을 본받아 수많은 현실의 주인공들이 자기들의 일터-투쟁과 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끝없는 애국의 노래, 《그리고 용서하시라》를 높이 불러마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가 처음 태어나던 그 시절에는 시인도 것처럼 숭고한 리상의 세계에 올라있지 못

하였다.

대학시절 작품분석강의를 하던 한 로교수가 이런 내용을 알려준적이 있었다.

1950년대 화선에서 창작되어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시.

그후 세월이 지나 마지막시구절 《그리고 용서하시라》를 덧붙여 오늘처럼 완성하였다고...

교수선생의 말처럼 시는 수십년세월이 걸려 꾸준히 다듬어졌고 시인자신도 그 리상의 높이에 꾸준히 그리고 힘겹게 올라섰다.

물론 부분적인 수정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시는 마지막시구절 《그리고 용서하시라》의 보충으로 결정적인 완결미를 보장하였다.

그러면 마지막시구절 《그리고 용서하시라》를 찾아쥐도록 시인은 어떠한 체험의 나날을 보내였는가.

시인은 근 20년간 현실체험의 나날에 당과 조국앞에 드리는 참다운 전사의 맹세를 온몸을 바쳐 신념으로 터득했으며 이 나날 높은 영예는 자랑스럽기전에 송구스럽다는것을 깨달았고 당의 믿음은 자랑이기전에 자랑이라는것을 절감했다.

시인은 드디어 참된 녀를 지니였고 시도 역시 참되게 완성되었다.

시인에게 완성된 시를 주신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시인은 키워준 그 품에 훌륭한 시 《어머니》와 함께 서정시 《용서하시라》를 삼가 정중히 맹세로 드리였다. 이제 그의 영예는 찬사와 박수속에 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다소나마 보답하려는 열렬한 헌신에 있었고 다소 더듬고 울먹이는 진정의 목소리에 있었다.

아무리 크나큰 위훈도 명예도 자랑이기 전에 먼저 송구스러움으로 된다면, 우리 조국의 모든 위훈과 기적이 그렇게 창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앞당겨질것이며 그 교상한 세계는 얼마나 정가로와질것인가.

이제 그의 시 《용서하시라》의 감정세계는 새삼스러워도 진정으로 새로왔고 역시 새로운 진정에 젖어있었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용서하시라 선생님이시여

화학숙제도 제대로 안해오고

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

선생님을 애먹이던 이 제자를
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라
...

잊을번 한 잘못도 때늦은 성장도 모두 한품에
안아주는 어버이품.
그 품에서 어제날 병사는 조국애의 숭고한 리
상을 체현한 참된 조국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여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치 마시라

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
내 혈전장에서 용맹하려니
...

이제 그의 시는 끝없이 용맹스러워도 끝없이
허심했고 고귀한 위훈을 세워도 더 못 바치는 위
훈과 삶에 대해 송구스러워하는 그윽한 여운을
남겼다.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도 더 바치고싶어하며 그
마저 송구스러워 조국앞에, 인민앞에 그리고 경
애하는 장군님께 용서를 바라는 그 숭고한 료리
의 세계.

그 료리의 세계속에서 참다운 수형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 《그리고 용서하시라》의 여운을 남
기며 자폭의 길을 갔고 참된 선군의 인간들이 강
성대국건설장에 제 한목숨 기꺼이 바치며 《그리
고 용서하시라》를 노래로 불렀다.

《그리고 용서하시라》는 드디어 세기와 세기를
넘어 커다란 여운을 남겼다.

지상에 발표된지도 오랬건만 세기의 언덕을 넘
어서도록 아직도 커다란 여운을 주는 명시.

이제 우리가 더 높은 리상에 이르도록 시에 더
새로운 시줄을 덧붙여 쓰게 될지... 그만큼 눈부
시게 변천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이 위대한 강성대국의 려명속에서 우리모
두가 또 꾸준히, 그러나 빛나게 《용서하시라》를
완성할런지...

우리의 후대들이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강성대국의 위대한 려
명이 밝아왔다.

그속에서 우리의 시 《용서하시라》의 여운이
력력히 맥동치고있다.

아아적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그 진정은 강렬하다

조선화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끊을수 없는 혈연의
紐대로 이어져있다.

자식을 품에 안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 두손 마를 새 없고 하루밤에 천리
라도 서슴없이 달려가는 어머니.

어머니의 품은 넓고 따뜻하다. 하기에 자식은
어머니밖에 모르고 어머니만 따른다.

자식에게서 어머니는 이 세상 전부일진대 어머
니 없는 아이의 운명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아이들은 어머니가 설사 매를 든다고 해도 달
아나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치마폭에 안겨든다.

본능이라고 할만치 그렇게 순결하고 확고부동
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부르는 아이적목소리이다.

이제 우리가 뜨겁게 회고해보는 서정시 《어머
니》는 그런 아이적목소리로 어버이장군님께 기쁨
을 드린 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 《어머니》에서 《어머
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라고 격조높이 노
래하였는데 이 시구는 당이 없이는 나는 못살아
라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
의 사상감정을 잘 표현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

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서정시 〈어머니〉를 좋아하는것
도 거기에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감정이 사실 그
대로 진실하게 표현되었기때문이다.》**

20년전에 나온 작품이지만 다시금 시의 세계를
재음미해보느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찌하여 시는 것처럼 한사람에게 친숙해질수
있었고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더 높이
올려퍼지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가 모든 사람
들이 한결같이 어버이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우
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다름아닌 어머니없이 못
사는 아이적목소리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터쳐놓
은데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

어머니에 대한 애룩한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적감정은 처음부터 진실하고 소박하다.

그러면 백발의 로시인이 《아이적목소리》로 목메어 부르는 어머니가 과연 자식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시골아낙네였던가.

시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어머니당에 대한 체험세계에로 자연스럽게 시적정서를 승화시켜나갔다.

당의 위대한 품과 한 시골아낙네와 그 이름 나란히 한다는것은 너무도 송구스러운것이였지만 어머니란 그 말보다 더 뜨겁고 더 어울리는 말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니 어찌하랴, 어머니라 부를수밖에... 우리 당을 구체적인 모성의 형상으로 바꾸어놓음으로써 시는 당과 인민과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보다 친근하고 보다 생활적인 관계로 노래할수 있었다.

...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

당은 어머니이다.

우리모두의 생명이 여기서 태어나고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만 있는 당의 품은 진정 영원한 삶의 품이다.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행로는 바로 인민을 위한 투쟁의 력사가 아니였던가.

당은 우리 운명의 보호자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주는 혁명의 어머니이다.

당은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혁명의 어머니》라고 뜨겁게 노래한 시구절의 밑바탕에는 시인의 남다른 체험세계가 깃들어있다.

술하의 자식보다 멀리에 둔 자식을 더 생각하고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 병든 자식을 더 근심하는 어머니의 다심한 심정으로 대오에서 떨어져졌던 시인을 품에 안아주신 아버지장군님.

그이께서 것처럼 분망하심속에서도 그가 쓴 시들을 보아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 빛발에 휩싸여 시인의 심장은 다시금 뛸뛰기 시작하였다.

그 사랑이 없어야 그가 어찌 시들었던 꽃잎을 다시 꺾수 있었으며 당이 알고 군대와 인민이 아는 시대의 가수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수 있었으랴. 하기에 발전소화실에 날아드는 한덩이의 석탄이 되고 어린모 한포기를 살찌우는 한줌의

거름이 되어 당의 위업을 위해 한목숨 다 바칠 마음속걱정을 터치는 시인의 주정은 그 어떤 추상이나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간의 심장의 웨침으로 만사람을 감동시킨다.

...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여기에 와서 서정적주인공의 목소리는 얼마나 커다란 진폭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가.

그것은 바다바람 스산하던 관북땅의 자그마한 동네, 등불도 없는 오막살이에서 집 떠나 멀리간 어머니를 그리며 《엄마!》, 《엄마!》하고 애라게 찾던 유년시절 시인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그것은 그가 당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 철리를 심장으로 터득한 인생체험의 총화였고 순탄치 않은 인생길에서 그가 얻은 인생관의 총귀결이었다. 더우기 그것은 우리 시대의 군대와 인민의 목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정치적생명을 참답게 빛내어나가는 유명무명의 무수한 인간들의 체험사가 여기에 비껴있지 않는가.

간고하고 험난하면서도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 그이가 없으면 조국도 없고 우리도 없다, 그이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 진리를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여기에 그대로 비껴있다.

지금까지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시는 많다.

그러나 시 《어머니》는 그것이 엄연한 진리이면서도 누구나 그렇게 설정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종자를 탐구하고 특색있게 형상함으로써 여러 시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하였다.

시는 《어머니당이 없이는 못산다》는 철학적인 종자를 《아이적목소리》로 밝히고있다. 여기에 바로 종자의 철학적무게를 생활로 안받침하여 비할바없이 돋구어준 시인의 발견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시인이 새롭게 찾아낸 색다른 음향이 있으며 시의 독특한 향기가 있고 매력이 있다.

운석과 어리광으로 투정질하며 멀리 달아났던 아들이 불효와 개심의 나날을 거쳐 마침내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였으니 다시금 어린 시절에로 되돌아가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목소리에 어찌 가식이 있으며 사심이 있을수 있으랴.

아이적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그 진정은 뜨겁고 울림은 강렬하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풍파속에서도 언제나와 같이 밝고 청신하게 그리고 가없이 펼쳐진 이 땅위의 푸른 하늘을 눈물겹게 바라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이적목소리를 더욱 가다듬는다.

우리 얼마나 시련많은 길을 걸어왔던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는 승리하였다. 원수들의 끈질긴 새전쟁도발책동은 산산이 부서지고 지난날 세계지도우에 빛조차 없었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되어 아득한 높이에 올라섰다. 그것은 바로 선군이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다.

김정일장군님은 곧 어머니 우리 당이기에 만사람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하나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그렇다!

세상에 오직 한분이신 우리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의 려명을 창조로 마중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는 어제와 오늘도 래일도 아이적목소리로 높이높이 울려 퍼질 것이다.

조국송가가 주는 의미깊은 서정

김창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조국이 있다.

누구에게나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조국!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처럼 조국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을 노래한 이 세상의 많고많은 시들 중에 우수한 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왜냐면 서정시 《나의 조국》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겨사는 군대와 인민만이 터뜨릴수 있는 서정이 있기때문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한 훌륭한 시이다. 그러나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것이 아니다.

시는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인 서정으로 꽃피웠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찬양과 칭송, 수령복을 누리는 끝없는 공지와 자부로 충만된 감정이라는것은 시에 관통된 일관한 서정이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니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공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시는 비단 한 시인의 심장의 웨침이 아니라 내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하나같은 감정의 분출이다.

민족사적대경사로 선군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온 세상에 떨친 오늘날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차고넘치는 시의 정서를 다른 작품도 아닌 서정시 《나의 조국》으로 다시한번 감수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나의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다.

바로 여기에 서정시 《나의 조국》으로 오늘을 다시한번 보는 전인민적정서의 본질이 있다.

조국에 대한 의미, 조국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민족의 자주성, 인간의 자주성의 각도에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해명하는데 시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있으며 철학이 있다.

수천년 민족사에 인류가 제기한 조국에 대한 의미는 인간이 가지고있는 추억이나 그리움의 세계에서 주어졌다. 하기에 시는 력사를 거슬러 향수에 젖어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세계를 더듬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은 떼어놓을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조국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데서 고향은 필수적이다. 《동구밖 오리나무숲》과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며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졸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에 이르기까지 고향의 정든 모습이 조국이였다. 그리고 다심하신 고향의 어머니와 소급시절 동무들, 고향의 못 잊을

사람들이 조국이였다.

그러나 시는 조국은 우리의 세계, 우리의 력사 속에 단지 평화롭고 애틋한 추억이나 그리움의 조용한 감정으로만 자리잡고있지 않았음을 상기하였다.

외적들의 발굽밑에 길가의 조약돌마냥 덩굴던 인민이 눈물속에 보던 조국, 이국의 비뿌리는 광야에서 조국의 하늘을 그리며 통탄만 하던 인민.

정녕 조국은 인민의 가슴속에 그 어떤 추억이나 그리움의 감정으로만 존재하는것이 아니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에 대한 의미를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성의 각도에서 해명하였다. 인간의 존엄, 민족의 자주성은 조국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시에는 조국의 력사와 련결된 서정적주인공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한 체험과 사색의 세계가 있다. 조국에 대한 의미가 단지 정답고 소중한 곳이라는데만 머물렀다면 이 시의 세계는 애국주의를 노래한 지난 시기의 일반시작품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시는 앞부분에서 감성적인 시적형상을 통하여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동한 생활적표상을 주었을뿐이다. 보다 리성적인 시적형상을 통하여 조국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에 대하여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조국은 단지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정다운 곳만이 아닌 더없이 숭엄하고 신성한 그 무엇이라는 해명이 시작된다.

...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한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노동자
맑은 거울앞에처럼
부끄럼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

시의 구절은 자못 엄숙하다. 여기에는 조국은 뜨거운 심장과 진실한 사랑을 바쳐야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는 위대하고 신성한것이라는 철학적사색이 빛나고있다.

조국에 바치는 뜨거운 심장과 진실한 사랑-

그것은 곧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신성한 복무정신이다.

서정시에서는 조국의 한치 땅을 위해 웃으며

꽃처럼 진 애어린 청춘들과 한줄 흠속에 조국을 싸안고 간 투사들,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조국을 그려본 녀대원의 서정적형상을 그려보이면서 자주성이 없이는 조국도 있으나마나한것이기예 혁명선렬들은 목숨바쳐 조국을 찾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노래하였다.

이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고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삶의 행복과 기쁨이 꽃필수 있었다.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어라!
조국이여나의 조국이여

이 격동적인 결구에서 마침내 조국은 곧 어버이수령님이시라는 심오한 사색이 해명되였다. 시대를 통하여 조국을 자기의것으로 감수한 바로 여기에 서정시 《나의 조국》에 대한 철학적해명의 조건이 있다. 인간은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조국은 수령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를 형상적으로 꽃피워 조국과 인간, 조국과 수령의 관계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한것으로 하여 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떼여놓을수 없는 명시로 될수 있었다.

피로써 헤친 눈보라 만리,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 만리, 준엄한 년대로 이어지던 위대한 백두산 위인들의 로고는 곧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고귀한 감정이다.

선군으로 개척되고 선군으로 마련된 오늘의 현실이 곧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것을 시는 생활적서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운있게 안겨주고있다.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라는 서정의 폭발은 이 행성의 그 어디에서도 들을수 없는 진리의 웨침, 전인민적사상감정의 진정한 토로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와 직결된 조국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새롭고 깊이있게 해명한데 서정시 《나의 조국》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서리발총검으로 숲을 이룬 땅, 정의와 평화로 맑고 푸른 하늘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임을 더욱 새겨주는 서정시 《나의 조국》은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군대와 인민의 송가로 울려 퍼질것이다.

돌산의 노을



김장수

나의 돌도 없는 벗 영미.

너는 두달전 나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요즘 내가 마음에 두고있는 김진명이라는 청년에 대해 몹시 알고싶어했었지.

그러나 너는 나의 회답편지를 인츰 받지 못하자 내가 그 청년을 자랑할만 한 반려로 여기지 못하기때문에 선뜻 펜을 들지 못하는것이라고 단정하고 질책 절반으로 차있는 편지를 다시 보내왔었어.

《종무소식이길래 내쪽에서 몇자 쓸 결심을 했다.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요즘 네가 평판이 그리 좋지 못한 청년과 사귀며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다고던데... 너의 소장아바이도 내 전화를 받더니 군입만 껌뻑 다시더구나. 나는 지금 리향이 네가 어째서 자기 기관 책임자 조차 외면하는 그런 청년과 한생 호흡을 같이할 결심을 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구나. ...》

영미, 너의 편지는 그야말로 추억의 밑뿌리까지 파헤쳐놓는 질책이였어. 그래서 나는 지금 사방으로 흩어진 추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어모으는 심정을 안고 이 글을 쓴다.

1

내가 그 청년을 안것은 이태전 가을 어느날 저녁이였어. 하늘이 파랗게 들리고 먼산에 단풍이 타는듯이 붉던 그 저녁 나는 우리 군내 예술소조원들과 함께 화강석광산 채석장으로 갔어. 명색은 축하공연이였지만 실은 이제 곧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게 돼있는 종목들을 더 숙련시키고 다시자는데 있었어. 내가 속해있는 《돌광산지구 산림경영소》에서는 푸른 숲 설레는 내고향은 무릉도원이라는 내용의 노래를 중창종목으로 택했는데 어찌나 잘 불렀던지 군인민위원회 문화부장동지까지도 이번에 당선될것은 우리것 하나라고 내놓고 말하군 했어.

그날 공연에서도 우리 산림경영소 처녀들이 부

른 노래에 대한 반응이 대단했어.

《산림경영소 중창이 제일이요!》

《1 등은 문제없겠소!》

그러나 우리를 인솔하고 왔던 군인민위원회 문화부장동지는 노래들을 더 익힐 심산으로 광부들을 향해 그래도 불만스러운 점들이 있었을텐데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요구했어.

모두 의견없다고 법석하는데도 군인민위원회 문화부장동지는 한사코 조르겠지. 누구든 한마디 하지 않으면 떠날 차비가 아닌듯 했어.

그러자 저쪽 바위우에 따로 앉았던 한 청년이 솟아나듯 불쑥 일어서며 군인식으로 말하는게 아니겠니.

《정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부장동지는 대뜸 알은체 했어.

《진영동무구만!》

《그렇습니다. 정치위원동지.》

《여긴 어떻게 왔소?》 《농장들을 좀 돌아보던 중이었는데 공연을 한다길래...》

문화부장동지는 그런가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리쪽을 열린 돌아보며 한부대에서 복무한 전사인데 제대후 전문학교를 마치고서 최근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이 된 동무라고 무척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근한 감정을 안고 그 동무의 의견을 기다렸단다.

문화부장동지가 어서 의견을 말하라고 재촉하자 그 동무는 여전히 상관앞에서 대답하는 병사의 말투로 얘기했어.

《문화부장동지, 전 산림경영소동무들이 노래는 잘 하지만 앞으로 텔레비존에서 방영될 때 이 고장 사람들이 민망해할걸 고려 못한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다면 다른 기관들에서 들고 나온 노래일것이라고 믿고있던 광부들속에서도 경악에 가까운 소리들이 숲을 휘젓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일었어.

나도 슬며시 번지는 마음을 안고 그 청년을 바라봤어.

그 동문 경사진 바위우에 서서 옷자락까지 바람에 세차게 날려 그런지 땅장 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는 수리개같이 보였어.

일종의 위압감마저 느끼며 눈주어보는데 어제날의 그 병사는 구렁이라도 치는것 같은 투박한 어조로 계속하겠지. 《내 고향은 푸른 숲 설레는 무릉도원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과연 이 고장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겁니다. 한때 채석장이 자리잡고있었다는 큰 돌산은 오늘도 풀 한 포기 없는 빈땅으로 남아있지... 노래에만 애국심을 담았다고 비난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생벼락이라도 맞은듯 굳어져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문화부장동지는 자기의 옛 전사가 대견한듯 고개를 끄덕이고있겠지.

그러자 한순간 나는 내 가슴속으로도 썩 비집고 들어서는 칼날같은것을 감득했어.

언젠가부터 예감해온 불안... 드디어 울것이 왔구나 하는 소스라침...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옹호하려고 떠드는 소리가 먼 산너머에서처럼 들려왔어.

《큰 돌산이 높고있는거야 산림경영소타이라고만 볼게 아니지.》

《형식상으로 5년전이 뗐지만 마지막채석반이 철수한건 작년이요.》

《게다가 봉락구간을 메우는 발파작업은 아직 못 해주지 않았소.》

우리를 따라왔던 소장아바이도 참을수 없었던지 꺼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아직 정식 우리 경영소 립지루했다는 어떤 지시나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것 보라우 글썽!》

결국 사립들은 진명부원의 말은 개의할바가 아니니 절대 힘을 잃지 말라는것이였어. 그러나 나는 이미 평양으로 가 그 노래를 부른다는것은 불가능하며 《경연출연의 막》도 다 내려버렸다고 생각했어.

사실 이제 무슨 체면으로 그 노래를 부른단 말이나.

새 종목을 고르기엔 시간이 늦었고...

우리 처녀들은 돌아오는 길에 불만을 터뜨렸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림지로도 우리것으로 등록돼있지 않다는데!》

《트집쟁이야!》

나도 그 청년이 상처에 소금을 뿌려준것만 같아 가슴이 쓰리였어. 그러나 아까 느닷없이 찌르고들던 칼날같은것이 다시금 가슴속으로 비집고 들어서는 바람에 그들과 합세할수가 없었어.

부지중 구름속을 뚫고나오는 해빛마냥 옛 생활한 토막이 추억의 쪽문을 열고 굴러나왔어

영미 네가 부모들을 따라 북방의 어느 한 광산 지구로 떠난지 며칠이 안되던 어느날이였어.

큰 돌산에서 지금 막 예술영화를 찍고있다는 소식이 우리 전문학교에도 날아들자 우린 졸업시험공부 하던것도 다 집어치우구 이제 무슨 희한한 구경거리나면서 부리나케 달려갔어. 사실말이지 벽촌에 사는 우리한테야 배우는 물론 영화를 찍는 구경을 한다는것은 꿈에서나 볼 일이 아니나.

돌광산이 뜨는 바람에 험악한 물결만 남았던 큰 돌산은 제법 활력에 넘쳐있었어. 신기한 구경에 대한 기대로 가슴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서던 나는 그만 가는 비명소리마저 지르며 굳어졌어. 사랑하는 내 고향 그 땅에서는 지금 해방전 빈민들이 모여살고있는 비참한 생활이 영화로 찍히고있었기때문이였어.

사람들은 영화배우 누구다, 부직장장이 찬조출연을 했다 하구 웃고 떠들었으나 나의 가슴속에서는 울고만싶은 심정이 땅속으로 흐르는 지하수처럼 흘렀어.

(빈민생활을 펼칠 곳으로 내 고향이 짝이다니... 그런 땅이 내 고향에 있었다니...)

나는 기가 막힌 생각에 울면서 돌아왔어.

아마 이때 충격이 나를 상급학교로가 아니라 산림경영소로 떠밀었는지도 몰라. 나는 부원으로 입직하는 길로 소장아바이를 찾아가 당장 큰 돌산을 천지개벽시키자고 제길 했어.

오랜 산속일로 손등이랑 얼굴이랑 꺼렇게 탄 소장아바이는 나를 한참 이상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더니 혹시 큰 돌산과 무슨 남다른 인연이라도 있는가고 묻지 않겠니.

어이없이 돌아서 나오는데 혼자 중얼거리는 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거참, 경영소림지만 다루채도 무릎에서 꿀물이 흐를 지경인데... 오지랖들이 넓기란...》

그러니 내 마음속에선 큰 돌산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생각이 날로 더 굳어져갔어. 노래경연에 갔다 와서는 무조건 《큰돌산록지화》연구사업에 들어붙어야겠다고 생각던차인데 마침 진명동무의 호된 도리깨질에 맞다듣거야.

솔직하고도 진정에 넘친 그 동무의 비판은 나를 큰 돌산 현장으로 힘있게 떠밀었어.

나는 틈만 나면 큰돌산으로 올라갔어.

우선 총공사량이며 웅덩이진데를 메우는데 돌량 그리고 그우를 덮는데 필요한 흙량 등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오랜 기간 돌을 캐낸 곳이라 여간 험하지 않았으나 나는 애써 힘을 내여 웅덩이들의 깊이를 재였구 넓이를 측정했어. 그러던 어느 일요일날 허술히 보았던 어느 한 돌우에서 미끄러져 벼랑아래로 내리구르며 무릎관절을 크게 다칠줄이야 내 어떻게 알았겠니.

2

두달 가까이 군인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차도는 없었어.

그래 나는 지구경영소를 떠나 군산림경영소 자료실 문서원으로 옮겨왔어.

나는 자료실에 드리우는 정적과 고독 그리고 채 낫지 않은 무릎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큰돌산공사전망도작성에 전념했어.

그런데 어느날 그 큰 돌산에 한 청년이 나타나 지대연구사업을 착실히 하고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날아오지 않겠니.

나는 대뜸 《그 동무다.》하고 생각했어.

심장은 일종의 두려움과 반가움을 안고 세차게 뛰놀았어. 믿었던바 조국앞에 지닌 의무부터 높이 사는 청년이라는것이 무엇보다 반가웠어.

아닌게아니라 그 동무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

…말만 해놓고 농장벌을 돌아볼 일이 바빠 떠나긴 했으나 큰돌산을 버리고 사는데는 나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왔다, 그런데 산림경영소에서는 《돌광산지구산림경영소》라는 명판을 내 걸고서도 여전히 명너며 푸른 숲속에 거주하고있는것을 보면 아직 큰돌산을 쓴 외보듯 하는것 같다는 등 나한테 귀맛 좋구 반가운 소리들이었어.

그러나 면회를 오는 우리 경영소 일부 동무들, 특히 소장아바이의 립장은 너무도 달랐어.

《그 사람은 애국심에 대해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야.》

《애길 듣게 됐지요 뭐. 글썄 큰돌산을 놀리는지 언제예요?》하고 나는 제격 반박했어.

《애, 애, 내 간밤에두 <큰돌산목지화 10개년계획도> 작성때문에 자정이 넘어서야 잔 사람이다. 상급으로부터 전국적인 방식상학을 준비하라는 긴급지시를 받고도 말이다. 뽀인줄 아니. 돌광산에다는 봉락구간매물발과작업을 속히 해달라는 전화까지 했어.》

《…》 나는 소장아바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

《이렇게 슬슬 준비해나가면 되는거지 정식 립지로 등록되지도 않은 땅을 농구 벌써부터 무슨 분주탕을 피운다는거냐?

아직은 그것때문에 우리 얼굴이 깎일건 조금도 없어. 방식상학준비같은걸 소홀히 하면 체면, 위신, 명예… 다 만신창이 되지만!

그것이야말로 조직적인 성격을 띠는거지.

그렇지만 큰돌산문젠… 여론에나 있을거야…

음. 자, 난 그럼 좀 바빠서…》하고 아바이는 자기에게 빈둥거릴 틈이 없다는것을 나한테 보여지게 된것이 기쁜듯 별로 서둘러대며 떠났어.

나는 정식으로 맞다들린 아바이의 주장에 얼마간 얼떨떨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어. 그러자 홀연 그 청년은 농업부문 부원이라니 새땅찾기가 바빠

애국심에 대한 언사를 란발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비죽이 얼굴을 내밀었어. 글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것처럼 흔들림 없고 마를줄 모르는 썸같은 애국의 열정을 씩없이 퍼낼수가 있겠니.

어느덧 참말로 그렇게 믿어지는것이여서 나는 당장 그 청년을 만나 따지고싶은 충동마저 느꼈어.

그러나 다리가 이 모양이니 찾아갈수도 없어 가슴만 끓었어.

그런데 그 저녁 그 청년이 제발로 내 방에 나타나달줄이야. …

나는 처음엔 어디 헤덤비는 청년이 방을 헛갈린줄 알았어.

《여긴 자료실인데요?》

나는 친절히 방을 제대로 찾아가줄것을 권고했어.

그런데 그 청년은 별썬 웃으며 대답하겠지.

《아오, 백리향동무.》

흠칫 놀라며 쳐다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어. 불덩이마냥 이글거리는 두눈망울, 이 땅의 모든대를 자기집 뜨락으로 여기는것 같은 호방한 기질이 어디라 없이에 어려있는 몸집…

《큰돌산을 살릴 안이 있다길래 그걸 좀 보자고 왔소.》

(아, 그 동무로구나.)

만나고싶던 사람이었으나 마음은 대변에 한줌으로 움츠러드는듯 했어.

《어서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져 귀를 주게 되는 데가 있었어. 그리고 그 눈길에는 허술히 대할수 없는 위엄이 느껴져 한번 맞서보려던 자신의 마음을 서둘러 다잡게 되는것도 어찌는수 없었어.

《드리겠어요. 그런데 서로 인사라도 좀…》

《아, 경력? 군대에 복무… 가만 전날 군인민위원회 문화부장동지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호, 했어요. 그렇지만 고향이란은…》

《아, 고향… 여기 돌광산지입니다.》

《그랬군요. 짐작은 했었어요.》

《그럼 연구한걸 좀…》하고 진명동문 갈증만난 사람이 물을 찾듯 다시 나의 연구도면을 요구했어.

《참고할만 한것이 못될것 같은데… 오늘은 애기나 서로 좀…》

《그런 시간이야 앞으로 얼마든지 낼수 있지 않을까요?》

어쩐지 그의 어조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신기한 힘이 있는듯 했어.

나는 도면이랄지 연구수첩이랄지 하는걸 내밀고서 어쩌면 이리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였을가 하고 생각했어.

그 동문 그걸 뚫어지게 한동안 들여다보았어.

어떻게나 열중하던지 방안엔 쥐죽은듯 한 정적마저 깃들었어.

그 동문 눈길을 그냥 도면에 박은채 책상 한쪽에 손을 내밀어 뭔가 찾았어.

지금 이 순간 그 동문 여기를 자기 방으로 착각하는것 같았어. 그 동문 내가 얼른 원주필을 쥐여줬어야 제 생각으로 돌아온듯 나를 바라보며 조금 손을 대도 일없겠는가 물었어.

나는 패히 그러라 했어.

그런데 그 동문 뭔가 자꾸 지우구 거기다 2자를 써넣는게 아니겠니. 네번째 2자가 내 도면에 올랐을적에 가만 있을수 없어 한마디 했어.

《채점을 하시는가요?》

《...》

그 동문 도면에 정신이 다시 뻗겼는지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것이였어.

여섯번째 2점이 올랐을 때 나는 자제력을 잃고 말았어.

도면을 막 뻗은거야.

그제야 그 동문 나의 기분이 감각기관에 전달된듯 눈길을 들며 물었어.

《왜 그러오?》 《어쨌서 2점짜리가 그리 많은지 말씀을 좀 해줬으면 해서요.》

《아, 난 그래서가 아니라 ...5년기한에 맞춰 놓은걸 다 2년기한으로 펴구자니 2자가 좀...》

《뭘 2년에?》 나는 한길 뛰며 물었어.

《그렇소. 그 이상은 못 넘어서우. 채종फल발견설은 5년후에 또 한해 절릴것으로 봤던데 그것도 무조건 2년내로요.》 《...》

나는 억이 막혀 굳어져있다가 10년으로 보고있는 소장아바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수 없다고 생각했어. 결국 말을 좀 할 결심을 한거야.

뼈마디들이 드려여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구 밀봉해치웠던 증창부결에 대한 원망도 격류하는 피와 함께 뒤끓어올랐어.

《그래 동무한테 무슨 방도가 있어서 그렇게 2년이 배수진이요 뭐요 하구 결론부터 앞세우는거예요?》

《없소. 그저 그 기한을 넘어서면 부끄러운 일이라는것밖에!》

《그렇다면야 남의 도면을 놓구 설었소 익었소 할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그것도 아직 립지에 포함도 안된 산을 놓구? 트집인가요, 심술인가요?》

《가만, 가만... 그러니 동문... 큰돌산 일은 내가 참견할게 아니라는거요?》 나는 선언하듯 말했어.

《그래요. 그 일을 놓고선 우리한테 와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할게 못돼요!》

《문제로군.》 하며 그 동무는 도리어 제편에서 나를 결함투성이로 보는 눈길이어서 나의 분격은 극도에 달했어.

《여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겐 지금 우리한테 등록된 립지들을 본보기산림으로 건설할

일이 더 급해요.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앞에서 손상당할 우리의 명예가 더 급하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아바이조차 그런 여론에나 있을 명예손상은 조금도 두려울게 없다 했어요. 그런데 주인도 아닌 사람이, 게다가 그럴만 한 지위도 없는 동무가 남의 기관에 와서 우리의 일감도 아닌걸 가지구 애국심이요 뭐요 하구 분주탕을 피우니 정말 편들다가도 못참겠어요!》

나는 이만했으면 《셈세기》 직전일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동무의 얼굴을 쳐다봤어.

그런데 웬걸... 아예 논해선 퍼런 불줄기가 날고 당장 빛인가 박살낼것 같은 무서운 힘이 꿈틀대고 있지 않겠니.

그 동문 한마디 한마디 철알이 튕겨나오는것만 같은 어조로 말했어.

《그게... 평양에...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가서 고향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려던 사람이 할 소리요?》

《...》

나는 멍치끝에 철알이 면바로 와 박히는듯 한 심정을 감득하며 굳어졌어.

그러나 그 동문 그냥 폭발적으로 울리는것 같은 어조로 계속하겠지.

《동무도 이 나라 공민이라면 똑똑히 들소.

놀고있는 조국의 땅앞에선 너고나고 주인이 따로 없소. 전쟁때 한치의 그 땅을 위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를 흘렸소. 피로 찾고 목숨으로 지킨 그 땅앞에선 멀고 가까운 마음이 따로 없고, 그 무슨 자격이나 지위를 운운할수는 더우기 없소.》

한순간 나는 나라는 존재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는듯 한 처절한 심정을 감수하며 눈을 감았어.

그러나 진명동문 나의 뉘를 통채로 휘여잡고 태질하는듯 한 어조로 계속하겠지.

《결국 우리 나라에선 어느 하루도 놀고있는 땅이 있을수가 없으며 있다면 그건 별써 문제요.

소장아바인 여론에서나 있을 명예손상이라 무서울게 없다 했다는데 나는 그 여론이 우리의 량심이구 조국앞에 지닌 의무가 아닌가 하오. 그 량심과 의무가 좀먹는게 두렵지 않다면 뭐가 두렵다는거요? 나의 체면과 명예가 손상되는것?... 부끄러운 일이요!》 하고 그 동문 나에 대한 환멸감때문에 더 남아있지 못하겠다는듯 획 밖으로 향했어.

나는 말 못다한 아쉬움과 분함에 휩싸여 그 동무를 붙들려고 벌떡 일어섰어.

나는 곁에 있던 지팡이마저 넘어뜨리며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을 때에야 그만 아픈 다리를 잊었었다는것을 깨달았어.

나는 그 동무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실수했다고 당황해하는 그의 모습을 너무도 똑똑히 느끼고있었어.

진명동무는 지팽이와 함께 나를 부축해일으키며 자못 미안해했어.

《아, 난 이런줄 모르구… 이것 참 안됐소. 용서해주. 정말이지 어떻게 사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구만.》

그 동무는 나를 의자에 앉힌 후에도 두손을 부비며 어쩔줄 몰라했어.

뚝배기 뽕선 장맛이 달다고 이런 땀 얼마나 곰살궂구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랐어.

《다리는 원래 그렇소?》

《아니예요.》하고 나는 슬관절을 다친 사연에 대하여 일추 설명했어.

《그렇게 됐구만요!》하고 그 동무는 몹시 가슴 아파했어. 아니 그 눈길에는 자책만이 아니라 진실로 되는 감동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손을 잡고 일하려는 결심이 력력히 어려있었어.

불쑥 나는 천리 멀던 우리 사이가 지척으로 가까와지는것을 느꼈어.

그 동무는 믿음을 주듯 구태여 묻지 않는데도 큰 돌산이 높고있는데는 어떻게 내 책임이 없다 하겠는가, 그래서 부서에다 큰돌산이 록지화될 때까지 한 2년 현지에 나와 살게 해달라고 제기했노라고 싱긋 웃어가며 말했어.

나는 너무도 고마와 인사라도 하고싶은 심정을 느끼며 무릅없이 물었어.

《어쩌면 그렇게 한치 땅을 자기 살점처럼 여기는 고운 마음을 키웠을까요? 사실 그런 마음은 쉽지 않은것이 아닌가요.??》

《아, 비행길 태우지 마오. 한뎀… 동무나 다름 없었소.》

그 동문 진짜 그랬는지 얼굴을 벌겋게 붉히었어.

《아이, 뭐 그랬겠어요.》

《그건 사실이요.》

거짓을 모르는 그 낮빛에 더 끌리는데가 있어 그렇다면 그 얘기만은 꼭 듣고싶노라고, 애국심에 쫓이 쓴 저한테야 들려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졸랐어.

진명동문 소리내 웃으며 얘기를 할듯 하더니 밖에서 경적소리가 들리자 바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

《돌광산차가 일을 다 본 모양이구만요.》

진명동문 다음번에 얘기하자면서 일어섰어.

《어떻걸가요? 2년으로 목표를 정했으니 난 그때까지 큰돌산공살 끝내구, 리향동문 병을 다 고치는것이?》 《좋아요. 약속해요!》

나는 굳은 결심을 담아 웨치듯 했어.

《그럼 합의를 다 본셈이구만요. 자, 그럼…》

《종종 들리세요》

《아니, 동무가 다리를 다 고치고 제발로 큰돌산에 돌아올때까지는…》하고 그 동문 섭섭하지도 않은지 울 때처럼 흘 사라졌어. 그러나 내 가슴

은 빈것 같이 한동안 허전했어.

3

그후 나는 도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세번 받았어. 그러나 나는 어느 하루도 큰돌산과 지금 거기서 어렵게 일을 하고있을 진명동무를 잊은적 없었어. 열흘이 멀다 하게 보내오는 그곳 동무들의 편지를 통해 요즘 진명동무의 체중이 3키로나 줄었다는것도, 최근 잡아먹으라고 보내온 늙은 소도 흙운반에 동원되었는데 달구지가 공사장으로 오를 때면 소가 그 달구지를 끄는지, 진명동무가 그 달구지를 밀어올리는지 모를 지경이라는 소식까지도 나는 다 알고있었어.

고생하는 그 동무를 생각하면 마음은 더 굳세 지구 아픔은 썩 덜해지는것 같았어.

떨어져있어 그런지 그 동무의 좋은 점들이 실지보다 더 커보이겠지. 그리구 나도 모르게 자주 생각키우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있는것이 얼마나 애달픈 일인가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어.

그래서 큰 결심을 안고 편지를 썼단다.

결으로 가 돕지 못하고있는 죄스러움에 대하여, 동무의 채찍같은 비판의 말들을 요즘은 노래처럼 늘 외워보고있는 나의 달라진 정신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또 많은것에 대해 썼는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아. 그저 회답이 오겠는가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던것만이 생각날뿐이야.

회답은 인편에 보내왔었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책임부원이라는 사람이 새땅찾기에 동원됐던 룬전기재들을 큰돌산공사장에 넘겨주러 갔다가 진명동무한테서 받아온것이었어.

비록 봉투도 없는 편지였지만 심장이 얼마나 뒹굴것처럼 활랑거리던지…

몇자 읽지도 않았는데 가슴은 기쁨으로 파도쳤어. 그 동무는 한자한자에 각근한 진정을 담았던 거야.

《차도가 있다니 공사를 끝낸것만큼이나 기쁘구만. 청년돌격대를 무어 인계해주러 왔던 문화부장동지도 너무 기뻐 한곡조 뽑아넘기고 떠났소.

이곳 일은 아주 잘되고있으니 조금도 걱정말기를 바라오. 그저 치료, 치료, 치료에 전념해주오. 나는 일터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동무가 언제면 성한 다리로 이곳으로 돌아올가 하고 생각하곤 하오. …》

영미, 그 동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 이제 뒹굴 더 바랄게 있겠니.

나는 얼마나 기쁨에 취해있었던지 책임부원이 뭔가 내 사물함우에 놓고가며 뭐라 말하는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어. 도리어 저녁때 불깃한 액체가 담긴 배불뚝이 술병을 보자 책임부원이 잘못 놓고 갔다고 단정했구 간호원을 불러 농촌경리위원회에다 속히 전화를 걸어줄것을 부탁했어.

술병을 보자 입귀가 대뜸 귀밑으로 돌아가는 나이 지숙한 부원이 와서, 그러지 않아도 책임부원이 한 이틀 현장으로 떠나며 나한테 관심을 돌리고 치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라 했으면서 그것을 썩 들고 사라졌어. 그런데 이틀후 석양무렵 책임부원이 속이 빈 배불뚝이 병을 다시 들고와서 우락부락 할줄이야 내 어떻게 알았겠니.

《전날 뭘 들었소? 다리관절병에 특효가 있는 진달래로 만든 약이라구 말하지 않았소? 진명동무가 공사를 책임진 그 바쁜 속에서 두 새벽마다 앞산에 올라 술한 진달래꽃을 따다가 담근 약이라는데 언쩍 남한테 다 먹었으니. 하긴 몇잔 마시면 열근해지더라니 별생각 없이... 난 이제 진명동무한테 뭐라고 하라오?》 책임부원은 차라리 울음이라도 터칠것 같은 표정이었어.

이미 내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솟아올랐어. 나에 대한 진명동무의 진정이나를 막 울리는 것이었어.

이런 행복속에서 나의 다리병은 나날이 좋아져 갔어. 정말이지 한해 넘는 세월이 어느결에 다 흘러갔던지 놀라울 정도였어.

그런데 올해 이른 봄, 재빗하늘에서 하얀 눈꼬치가 솟털마냥 흩날리던 어느날 아침 너무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오는것이 아니었니.

진명동무가 상부의 조치로 곧 큰돌산에서 아주 뜨게 된다는거야.

나는 앞이 확 어두워지는것만 같았어.

아무래도 이 일은 도에 있다는 그 책임부원이 조직했거나 알것 같아 분명히 원장실로 달려가 송수화기를 들었어.

...공사를 마쳐 끝내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대목에 와서 이러면 섭섭하지 않겠는가. ...

그러자 책임부원은 껄껄 웃으며 자기도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겠는가, 그런데 본인이 뭇때문인지 한사코 금년가을까지만이라도 척박한 돌밭이 있는 어느 농장에 가있었으면 하길래 그러지 않아도 물길공사장에 한사람 보낼 일이 제기되어 토론중인데 거기서 가는데 어떤가 건의했더니 제격 받아몰려라는것, 그곳 군일군들과도 합의하고나니 그한테 혹시 그곳으로 꼭 가야 할 일이 제기된걸 일축해버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알아보았다는것, 그런데 그 동문 그런 공사장이면 된다고, 자기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있노라고 선선히 대답하던것이었어.

그 동무한테 무슨 일인가 제기된게 틀림없는것 같았어.

무엇때문에 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누워도 잠이 안왔어.

드디어 나는 병원에 더 남아있지 못할 촉급한 심정에 몰리며 퇴원수속을 했구, 그길로 돌광산으로 가는 화물자적재함우로 올랐어.

멀리에서도 험하게 파헤쳐졌던 큰돌산의 상치

가 말끔히 아몰어간다는것이 한눈에 알렸어. 그래서 큰돌산은 인젠 아픔도 다 잊고 새봄을 맞은 기쁨으로 미소를 짓고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어.

돌격대원들과 마을녀인들은 돌을 다지는 작업과 돌틈들에 점성이 강한 진흙을 밀어넣고 그우에다 흙을 퍼는 마지막작업을 붙이 번쩍 일게 해대고있었어.

나는 오늘의 이 고개턱에까지 공사를 밀어올리느라 흘린 진명동무의 땀이 헤아려져 눈굽이 화끈 뜨거워오르는것을 느꼈어.

산기슭쪽에 자그마한 초막 하나가 눈에 띄우자 나는 왜선지 진명동무가 지금 거기서 떠날 차비를 하고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종종걸음쳐갔어.

나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뭘 야릇한 권리를 기쁨속에 의식하며 문을 열어제겼어.

환히 웃는 얼굴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했으나 방에서는 싸늘한 랭기만이 나의 이마를 내칠뿐이었어.

떠났는가? 책들이랑 있는걸 보면 아직?...

문득 등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것같은 느낌이 들어 바빠 돌아보니 한 녀인이 고개를 가우뚱하고서 나를 쳐다보고있지 않았니.

《아... 안녕...》 하고 내가 당황하여 이런 때 맞는 몸가짐도 못하자 녀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리향동무지요?》

《어떻게 절?...》

《진명동무가... 가면서... 오늘 래일 도착할거라고 했어요.》

내 가슴속에서는 무슨 널판자같은것이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났어.

나는 자신에 대한 기만을 느끼면서도 녀인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애써 믿으려 했어.

그러나 녀인은 야속하게도 내 귀에 대고 뽕뽕 씹어 밀어넣어주듯 토박토박 말하는것이 아니었어.

《간밤에 떠나면서... 가을쯤에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뽕 뽕 뚫리고 그리로 차디찬 바람이 마구 밀려들어오는것만 같은 심정을 느꼈어. 말도 안나왔어.

나는 부지중 내 가슴속에서 그 동무가 차지하고있던 크기를 의식하며 몸을 떨었어.

이제부터 그 동무 없는 래일을 어떻게 맞겠는지 막막했어.

드디어 울듯이 부르짖었어.

《그 동무 없이 어떻게 일한다고 보낸단 말이에요?》

《...》

녀인도 대답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

《어디 아팠거나 고민이 있었던건 아니예요?》

《그러기도 했을거예요. 소장아바이와도 사이가 나빴으니깐요.》

《소장아바이?》

《어느날 저녁 작업총화를 지으러 오니 다투고 있더군요. 소장아바인 이제 이 큰돌산에다 어떻게 또 채종꿀밭을 꾸리는 큰 공사를 벌려 사람들을 고생시키겠느냐, 지구경영소가 자리잡고있는 곰산기슭에 이미있는 포전애다 꾸려보자는거구, 진명동문 돌밭우에서 자래운 풀씨가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것이더군요. 결국 이곳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는가, 아니면 큰 돌산을 1년 또 놀리는가 하는 론쟁이었어요.

〈좋아. 그럼 내 좋은 풀씨를 마련해줄데니 꼭 짝 다른 소리 말게!〉하고 소장아바이가 큰 선심을 쓸 의향을 표시하는데도 진명동무가 감사해할 대신 식물이란 토양조건, 기후조건, 물과 빛조건에 민감한건데 어디서 구해오는 종자인지 이 특수조건에 와서 밭을 제대로 붙이겠는가, 한해 또 놓칠수 있다고 한사코 반대하자 론쟁은 더 격렬해지더군요.

〈한치 흙만 있으면 자라지 말래도 자라는 풀을 놓구 자네 정 이렇게 까다롭게 굴텐가? 제발 부탁인데 인젠 그만 우리한테 다 말기구 가주게나. 응?〉

진명동문 아예 돌처럼 굳어져 대답 한마디 못하더군요. 그 동문 소장이 돌아간 후에도 종일 한시간이나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아니 사흘을 그렇게 무거운 얼굴로 지냈어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 별안간 나를 부르더니만... 자기는 물길공사장으로 떠나기로 우와 합의를 봤으니 리향동무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곳 공사를 림시로 책임지라더군요. 그때 그 동무의 얼굴엔 더 이상 이곳에서 시야비야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어요.》

나는 절망으로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어. 늙은 아바이가 한마디 했기로서니 뭐 떠나기까지야 한단 말인가.

나는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지 않고 홀 떠나버린것이 섭섭했어.

남은 이 가슴속에 한치한치 우정의 탑을 어떻게 쌓아올렸길래 가을에 가서 소식 한번 보낼 소리나 하며 떠나버린단 말인가. 큰돌산을 위해서는 목숨마저 서슴치 않을것처럼 불같은 정신을 뽐내더니 과연 그럴수가 있단 말인가.

그 동무의 성실성을 한번도 의심해본적이 없는 나에겐 오늘의 이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생각되었어.

폐허와 허울만 남은것 같은 피로운 몇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나의 가슴속으로는 리성이라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드는게 알렸어.

울고만 있을수 없다는 생각, 가버린 사람은 가버린 사람이고 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자각...

어느결에 내 가슴속에선 그 동무에 대한 경멸의 태풍마저 이는게 알렸어.

자기네가 맡은 일감이 아니니 중도에서 가버릴 마음이 생겼을 그 사람, 두해 가까이 일해보니 자기만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그 청년, 정녕

어려운 전투장에서 분과 초를 이어가며 애국의 한마음을 지켜간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끝내 바다를 건너와 강에 빠져 죽는것과 같은 수치를 감수하기로 결심했을 동무...

좋다. 갈테면 가! 내가 다 해낼테니... 그러나 동문 후회하게 될거구 수치로 얼굴을 못들게 될거다!...

태풍은 내 가슴속에 솟아있던 우정의 탑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는게 알렸어.

4

그는 가버렸어도 우리의 공사는 좌절을 모르고 전진했어.

새 처녀책임자가 측은했던지 군내 기업소들에게까지 달려와 도와주는 바람에 공사는 어느결에 가을파종기에 이르렀어.

우리는 소장아바이가 어느 무역기관을 통해 외국에서 사왔다는 알차고 실한 풀씨를 넉넉히 차고있었던 관계로 파종기를 자신있게 맞이했어.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었던 그것이 흙속에 묻힌지 열흘이 지나도록 싹을 틔울 생각을 안할줄이야 뉘 알았겠니. 틔웠다 하드래도 그것은 가물에 콩나기로 세일수 있을 정도였어.

그제야 식물은 토양조건, 기후조건, 물과 빛조건에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는 진명동무의 말이 우뢰처럼 되살아나 고막을 쳤어.

한해를 또 빈땅으로 놀리게 됐다고 모두 얼굴이 새까매 다니자 소장아바이는 자기 잘못을 곰산기슭에 있던 경영소건물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씻을 작정이었던지 부랴부랴 이사를 왔어.

그리고는 내 뺨을 쳐라, 진명동무 내쫓은 나를 욕해라 하고 잘못을 빌었으나 우리 마음에 드리운 실망의 먹장구름을 쉬 걷어낼수는 없었어.

너무 울어 눈까지 통통 부었던 어느날 저녁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얼마전까지 문화부장을 하던분)동지가 우릴 급히 찾아오지 않았겠니.

《왜들 울상을 하고 그러느냐? 중창이 뒤집어진 대신 수십정보의 새땅을 얻었으면 성과지.》

롱담을 하는 부위원장동지가 민망해서 모두 말없이 섰는데 그는 계속하겠지.

《이결 좀 다시 심어봐라.》

부위원장장동진 운전사가 들고와 섰는 가방을 열어 보였어.

들여다보니 각종 풀씨들을 조금씩 담은 여러개 비닐주머니들이 들어있는것이 아니겠니.

《어마나,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나는 대번에 가슴이 개여올라 아이들처럼 깡충뛰기까지 했어.

《오, 출장을 갔다가 좀 얻어왔지.》

《출장?... 어딘데요? 네?》

나는 크나큰 기대로 숨결마저 가빠오는것을 느끼며 부위원장장동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

그러자 부위원장동진 아직은 그것까진 알 필요
가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계속했어.

《어쨌든 심어보구 보자. 좋은 소식만 있으면
내 리향일 제격 실구 가서 심고 남을 종잘 얻어
주지 않으리.》

참말로 반가운 일이었어. 한해를 또 놓치고마
는구나 하구 락심했던 마음들이어서 그 씨종자들
이 금싸라보다 더 귀해보였어.

우리는 정녕 간절한 소망을 담아 풀씨들을 심
었어. 어떤 곳엔 막 뿌려 심었는데 그건 그 풀씨
의 활착률과 생활력을 알고싶었던거야.

그때로부터 3일... 그곳에서 한시도 뜨지 않구
는알이 쏟아지게 들어다봤어.

씩이 틀가 말가?

기연미연하는 속에 풀씨를 보내준 그 사람이
누굴가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비껴들었어.

부위원장동지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걸 보면 어
느군 책임일군이거나 어느 군부대 지휘관인듯 했
어. 사실 아무리 막연한 사이래도 큰 풀판을 쥐
고있는 책임일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넓은
공지에 뿌리고 남을 씨앗을 그냥 줄 엄두를 낼수
있겠나.

우리는 알수 없는 그 일군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보내면서 썩이 틀 그 순간을 안타
까이 기다렸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풍만한 대지에 해빛이
유난스럽던 그 아침, 우리는 좁쌀을 뿌린듯 노란
씨들로 수없이 뒤덮인 내 고향 큰돌산의 첫 생명
체들을 볼수 있었어.

《썩이 텃어요. 다 나왔어요!》

우리는 큰돌산의 풍성한 래일이 너무도 확고히
내다보이는것이어서 불붙고 돌아가며 웃었어.

그런데 그 기쁜 순간에 까닭없이 오늘의 이 경
사를 보지 못하고 가버린 진명동무가 생각나는게
아니겠어.

아, 왜 가버린담.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다리지
않구... 아마 그 동문 이 기쁜 소식을 들어두 웃
음이 아니라 후회의 쓰디쓴 미소를 짓겠지?

전날과 달리 별로 측은하게 생각되었어,

이제라도 그 동무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고싶은
마음... 사실 여기를 버리고 갔는지, 피치못할 사
정이 있어 갔는지 똑똑히 모르면서 타매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

생각하면 지난 몇달동안 내 가슴속 깊은 곳으
로는 그 동무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파도가 끝없
이 엇바뀌어 흘러들었겠어.

내 마음속에 것처럼 밝은 빛을 던져주었던 동
무는 없었다는 생각, 크고 단 참외 없다는데 괜
히 배추밑 도려내듯 할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 하
는 자책... 그래, 난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동무를 생각했어. 그러나 그 동문 어느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았어. 혹시 지금 한결 흠속에 묻혀있
는 저것이 날 찾아온 그 동무의 마음이라면 얼마
나 좋겠나. 얼마나...

그러나 꿈이지. 있을법도 않은 공상이지.

나는 가슴속 한귀퉁으로 연기처럼 흘러드는 음
울한 심정을 애써 털어버리며 바빠 부위원장동지
를 찾아갔어.

부위원장동진 군당회의에 참가했다가 잠간 시
간을 내여 달려나오며 말했어.

《어서 내 차를 타고 떠나거라. 어서! 운전사가
그 곳을 잘 아니까.》

내가 같이 가마 하지 않았는가고 아쉬운 낮빛
을 짓자 부위원장동진 바빠 되돌아 들어가며 말
했어.

《많이 심고오려면 한사람이라도 안가는게 좋다
니까.》

(부위원장동지가 안가면 누가 그리 많이 주겠
길래?... 기다릴테야!)

그러나 그럴 시간 없다는듯 부위원장의 차는
벌써 내결에 와 멎어서는것이었어.

나를 실은 차는 난알향기로 진동하는 대지를
가로지르며 살같이 달렸어.

우리가 찾아간 곳은 물길공사장이었어.

한순간 그동무가 여기 어디 있겠는데 하는 생
각이 떠올랐어. 그러나 풀씨생각때문인지 인차
꺼졌어.

차는 그 물길과 잇닿아있는 저수지공사장가까
이로 다가가다가 다소 둔덕져보이는 곳으로 치달
아올랐어.

운전사는 소학교운동장만 한 공지결에 차를 세
우더니 바빠 내리며 말했어.

《여기요.》

나는 밖으로 언제 달려나왔는지, 운전사가 이
곳 주인을 찾으려 언제 내결에서 사라졌는지 의
식하지 못했어.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도 이곳은 저수지목을
쌓는데 쓸 흙원천지였으며 암석만 남은 다음에는
큰돌산에서 있던것과 비슷한 풀밭조성전투가 매
우 치렬하게 벌어졌다는것을 알수 있었어.

지극한 정성이 알리는 돌밭우의 풀판에는 초본
인지 목본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실한 풀들이 무
성했어.

자세히 보니 벼파에 속하는 아들메기, 역세,
향술새, 용수염풀, 큰조아제비, 참새귀밀, 대사
초 등은 그것들대로, 콩파에 속하는 초독싸리,
말골레풀, 새콩, 달구지풀, 쇠, 매듭풀 등은 또
그것들대로 네모 방정한 포전을 이루고 규모있게
펼쳐져있었어.

게다가 염소들이 좋아하는 잡관목들도 이름까
지 척 매달고 촌촌히 늘어서 있었어.

꼭 꿈속에서 보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정히
둘러친 목책을 넘어가 지금 한창 가을해빛을 쏘
이며 조울고있는 까만 풀씨들을 만져보는데 저기
남새밭쪽에서 일하던 한 녀인이 달려오며 소리쳐
댔어.

《누군데 맘대로 들어가시우?》 《저... 아무래도
우리한테 울 풀씨구 해서...》

《우리한테로라니? 그럼 돌광산이 있다는데서?》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녀인은 촌촌듯이 좋아
했어.

《됐구나. 래일부턴 이 풀판에 우리 농장 염소
들을 몰아넣을수 있겠구나!》

《호. 누구신데 그리 기뻐하세요?》

《농장원이예요. 이곳 부려단장동진 말했어요.
남새밭일을 하면서 여기 풀밭의 씨들을 새들이
쪼아먹으러 달려들면 그것도 함께 잘 봐달라, 그
러면 씨들을 채종한 후에 이 풀판을 통채로 농장
에 넘겨주겠다. ... 우리 농장에서야 호박 잡았지
요 뭐.》 하고 녀인은 새들을 쫓느라 옆에 차고있
던 팽과리를 꺼내 신나게 두들기며 한바퀴 빙 돌
았어.

나는 웃고 섰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어.

《돌광산쪽에서 온다는건 어떻게 아세요?》

녀인은 전날 그곳 부위원장이 와서 여기 부려
단장하구 얘기하는걸 곁에서 들었기에 잘 안다고
했어.

《저... 잘 아는 사이들이던가요?》 《알구말구.
어떻게나 가깝던지 꼭 부자간 같더라니까.》

《부자간?》 나는 류다른 호기심으로 가슴속 신
경오리들이 슬며시 팽배해지는데를 느끼면서 거
듭 물었어.

《이름은 뭐라든가요?》

《이름? 아, 부려단장이면 됐지 이름까지 알아
선 뭇 하우?... 어찌해보자구? 늦었수다. 여기 처
녀들이 그 청년만 나타나면 눈들이 하나같이 새
별이 되우다.》

《아이참...》

나는 안듣느니만 못한테 녀인은 부려단장을 자
랑하지 못해 더욱 안달아했어.

《어찌 안그러겠수. 흙을 다 퍼내구 이곳에 험
한 돌바위들만 남았을 때도 그렇수다. 그 사람은
자기네 대원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말했수다.
놓고있는 땅이 생겼소. 어제날 우리 부모들은 한
치의 땅을 위해 피를 흘렸소. 그런데 그 후대들
인 우리가 몸결에 저 자고있는 땅을 보면서 과연
참을수 있단 말이요? 참을수 없다고 수천명이
웨칩디다. 그날부터 일을 끝낸 후 밤이 늦도록
이곳에들 와 떠날줄 몰랐수다. 우리 농장원들도
달라붙었수다. 이곳 산림경영소사람들도 모두 떨
쳐나섰수다. 그때 난 밤마다 그 모습을 보며 울
었수다.》

나도 눈곱이 찌르르해졌어. 비록 바라는 그 사
람이 아닌것이 서운은 했으나 것처럼 땅이 귀한
줄 안다는것이 그리고 우리 고향과 비슷한 고장
에서 살아온듯 한뼘기 돌밭도 버릴줄 모르고 풀
판으로, 그것도 채종풀밭으로 조성해놓고 이 나
라 돌광은 고장들에 한알의 씨앗이라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날새 한마리 날아들세라 온갖 윈
심을 다 쓰고있다는것이 나의 가슴을 격동으로
차오르게 해주는것이였어.

역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라를 받드는 홀
통한 사람이구나!

다시금 한때 그렇게 돋보이던 그 동무의 모습

이 눈앞을 스쳤어.

오늘도 여기 어디선가에서 말만 앞세우며 이력
저력 살아가고있을 그 동무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절로 울적해졌어.

그 동무도 이곳 부려단장의 모습에 자신을 비
춰보며 어제날로 돌아가기 위해 애쓴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그래서 후날에 가서라도 이 나라 한뼘기 땅을
놓고 부려단장처럼 실천으로 애국을 할줄 아는
참인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그러나 이 순간의 갈망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고 생각하니 가슴은 더 한층 무거워지며 영문 모
를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내리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어.

이때 저수지쪽 숲너머에서 《큰돌산에서 왔다는
손님이 어디 있소?》 하고 웨쳐 묻는 소리가 들렸
어. 이윽고 와삭와삭 숲을 헤집고 달려올라오는
소리가 났어.

어쩐지 그 목소리며 다소 부산스럽게 구는 그
체취가 조금도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것이여서
나는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했어.

5

숲을 헤집고 와락 달려나온 그 청년은 얼굴에
묻은 거미줄같은것을 손으로 몇번 문질러낸 다음
에야 눈앞이 보이는듯 나를 쳐다봤어.

순간 나는 물줄기를 내뿜는것 같은 너무도 낮
익은 눈길에 까무라칠듯 놀라며 소리질렀어.

《이게 누구예요?》

《리향동무!》

《진명동무!》

우리 두사람은 압축됐던 공기가 터져나가는것
같은 소리들을 지르며 마주 달려갔어.

어느새 서로 손들을 붙잡았던지 생각나지 않
아.

《고쳤구만. 동무는 약속을 지켰어!》

《아이 약속이야 동무가 더...》 하며 나는 목이
끼 메여와 잠시 말을 번질수가 없었어. 조국앞에
지닌 의무마냥 우리의 약속을 기어이 지켜내기
위해 이 어려운 공사장에 와서도 채종풀밭을 꾸
려놓았다는 생각이 나의 가슴을 격동으로 끓게
해주는것이였어.

《허, 그래두 그 씨앗들이 거길 제 살 곳으
로 알고 뿌릴 내렸다니 반갑구만!》 하고 진명동무가
환한 웃음을 짓자 나는 다시한번 그 허구한 날
나와 꼭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것을 알았어.

그러자 나는 잃었던 사람을 다시 찾았다는 기
쁨때문에 절로 평평 쏟아지는 눈물을 어찌는수가
없었어.

내 마음을 알리 없는 그 동문 깜짝 놀라겠지.

《아, 왜 우오? 내가 자기 오는줄 알면서도 흘
떠나 섭섭했던 모양이구만? 그렇지만 더 남아있
으면 큰 돌산이 한해 또 늦겠는데. 어떻게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싶은 심정부터 풀자 할수 있겠
소.》

보석같은 그 동무의 마음이 나를 더 울렸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기지 못할 그 마음결에 내가 언제나 있었다는 확신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가을의 맑은 하늘로 뚝뚝 떠오르는듯 한 기분이었어.

종후에 나는 행복의 바다속에 잠겨있을수만 없다고 생각했어.

어서 그 동무를 따라서야 한다는 생각, 그 동무가 믿는 그런 녀성이 되기 위해 인제부터는 더욱 열심히 그의 마음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세차게 휘어잡기때문이었어.

나는 그와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풀씨를 털기 시작했을 때 나의 이 결심에 대해 얘기했어.

아마 내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던가봐.

그 동문 서둘러 나의 두손까지 거머쥐며 왜 이리 긴장해그러는가, 내 언제 동무한테 같이 나누지 못할 리상에 대해 얘기한적이라도 있는가,

도리어 나는 한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동무보다도 더 멀리 뒤떨어진 사람이였다고 위로하듯 말하는게 아니겠니.

그 동문 더욱 따듯이 내 손을 잡아주며 계속했어.

《그렇것없이 들어보소. 신입병사때였는데 하루는 중대장동무가 병영주변에 심다남은 나무모를 나한테 주면서 뒤산 공지들에 심고오라지 않겠소. 그런데 올라가보니 어떤 공지들은 암반지대가 아니겠소. 그래 그런 곳엔 파다만 흔적만 남기구 땅이 무른 공지들에만 다 심고 내려왔소. 별일없이 복무의 나날은 흘러가는듯 했소.

그런데 어느날 부대장이 주둔지역 산림수림화 정형을 직접 알아보러 당장 내려온다질 않겠소. 아, 나때문에 욕먹겠구나!... 나는 죽을상을 하고 중대장을 찾아가 사실을 고백했소. 그런데 놀랍게도 중대장동진 웃으며 <걱정마오. 최아바이가 거기도 다 심었으니까. > ... 나는 깜짝 놀라 굳어졌소. 최아바이라면 내가 입대하기전부터 전사로 복무하면서 중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맡아안곤 하는 아바이인데 그날도 진명이 혼자선 암반을 뚫기 힘들거라면서 자기도 보내달라고 제기하던 중이었다오. 그런데 내가 벌써 다 심고 내려오니 둘은 아연했구, 중대장은 당장 날 꾸짖을 작정이였다고 하오.

그러나 최아바이가 한사코 <그냥 두라구. 소대별 축구경기시간이 돼오고하니 덤뵈을거야. 내 후날 한번 얘기해주겠어. > 하길래 중대장동진 참았다는거요. 내가 고개를 못들고 있는데 중대장은 내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계속했소. <최아바이한테 착실히 배우도록 하오. 그 아바인 부대정치위원동지요. > 나는 까무라칠듯 놀랐소. 당분간 병사생활을 체험하러 내려와있는 지휘관일줄이야 ...

나는 요즘 최아바이가 가있는 제재소로 달려갔소. 나무컹는 소리가 높는데 최아바이가 보이지 않아 물으니 아바인 줌전에 요즘 자기가 직접 담근 톱밥술을 해가지고 뒤산으로 올라갔다는것이였소. 산소를 보러간 모양인가 하며 달려 올라가니... 글썽 아바인 공지들에 심은 그 어린 나무들에 톱밥술을 부어주고 있는게 아니겠소.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데는 술이상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숯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어 《아바이!》 하고 부르며 달려갔소. <어. 진명이 왔

나?... 올긴... 됐네, 됐어. 암반이 나오니 그런 생각을 했겠지. 게다가 축구경기시간은 돼오구...>

<아닙니다. 아바이처럼 한치의 조국땅을 제 살점처럼 생각지 못하다나니...> <아누만 뭐. 알았으면 됐어. 진명이, 사실 이게 어떤 땅인가? 전쟁때 우리 부모들이 피로 지킨 땅이 아닌가. 그런데 빈땅으로 놀려서야 되겠나. 뭐니뭐니해도 우리 조국부터 안고 살아야 해. 그걸 가슴에 안기전엔 훌륭한 전사로 살수가 없구 꽃으로 피어도 헛꽃으로밖에 못피. 있어도 없어도 되는 인생 헛꽃! > <!> 실로 그 말은 되성처럼, 시뻘건 불꼬치처럼 내 가슴에 쑥 들어와 박히는것이였소. ... 그때부터 부위원장동지의 그 말은 내 귀전에, 내 심장속에 영원한 메아리로 살아 나를 언제나 새 생활에로 이끌어주는것이였소. >

그랬구나. 그런 신념을 가슴속에 받아안았길래 그의 흉곽속에선 언제나 애국의 열정이 용암마냥 끓어번졌구나. 땅에 대한 철학이 것처럼 강철기둥마냥 곳곳이 가슴 한복판에 들어앉았길래 그는 언제나 진실로 조국을 아는 참인간으로 살수 있었어... 나는 다시금 그가 어째서 공사장을 그리 서둘러 떠났으며, 그리운 사람과의 상봉마저 사정없이 뒤로 다 밀어치웠는가를 더욱 똑똑히 깨달을수 있었어. 그리고 소장과 관계가 여의치 않고 공사가 힘들어 가버렸다고만 단정했던 자신의 경망스러운 처사가 수치속에 돌이켜졌어.

아, 뭐라고 빌었으면 좋을까... 그런 훌륭한 정신과 한생 지향을 같이 나누기로 한 나의 행복에 대해선 또 뭐라 말했으면 좋을까.

진명동문 다시금 산처럼 큰것을 내 가슴에 듬뿍 안겨주며 말했어.

《우리 다른건 몰라두 내 사는 고향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곳으로 꾸려보자구. 그래서 내 고향은 무릉도원이라는 노래도 우리 함께 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가 힘차게 불러보자구!》

나는 뜨거운것이 다시금 왈작 솟아 눈앞을 탁 흐려놓는것을 느꼈어. 그러나 나는 보석으로 빛어진듯 비길데없이 숭고한 모습으로 비쳐오는 그 동무의 모습을 눈앞에 력력히 보고있었어.

그 저녁으로 나는 풀씨를 차에 가득 싣고 큰돌산으로 떠났어. 아직은 진명동무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길이었으나 환희의 물결은 그냥 온몸에 넘쳐흘렀어.

락조가 별로 아름다운 저녁이였어. 우리 큰돌산우의 노을은 더욱 황홀했어.

조국을 한점 티없는 마음으로 받들어가는 진명동무의 넋이 비껴 우리 돌산의 노을은 것처럼 더 아름다운것 같았어.

영미, 내 말은 끝났어. 이제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그저 나의 그 동무가 밟지 않거든 그가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한 그의 생활신조나 한번 더 외워주길 바란다. 《조국을 가슴에 안기전엔 꽃으로 피여두 <헛꽃>으로밖에 못핀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서풍파리 인생 <헛꽃>! ...》

이만 쓴다. 잘 있어. 성과를 바라면서...

너의 가장 가까운 벗 리향으로부터.

단시초

러명이 비긴 땅에서

김만영

심장의 결정체

이것은 흙이 아니다
언제도 아니다
이것은
오, 이것은

선군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억센 심장의 결정체이다

-금진강홍봉청년발전소에서-

아 직 은...

아직은 여기에 없다
호수도 발전기도 언제도
다만 있는것은
맵짠 바람 산새소리
돌과 흙...

가슴 들먹이며 하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
하루빨리 발전소를 일떠세워
아버이장군님을 모시자고
여기영차 뛰고 달리는 드높은 숨결소리

그렇다
여기에 있을것은 다 있다!

허나 귀기울이면 들려온다
우리 장군님 찬바람 맞으시며
멀고먼 여기 찾아오셨다고

-금진강구장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일 거 사 득

우리네 박로인 올해 여든하고 아홉
대통을 입에 물고 언제우에 앉아
아이들처럼 손을 쏴아가며
꼼꼼히도 꼼꼼히도 계산을 해보네

...

전기를 얻고
수질이 기막힌 음료수를 얻고
장마 대홍수도 어렵없고
왕가물에 물걱정없이

농사를 짓게 됐은즉
허, 이거 일거사득이 아닌가

내사 90가까이 살아오며
일거이득이란 말은 들어왔어도
일거사득이란 말은 듣다 처음인걸
하기사 선군이란 말도
내 난생 처음 들어보지 않았는가

-금진강홍봉청년발전소에서-

몇번째나 오시고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 교장 이 공장에 몇번이나 오시고도

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더 자주 오시겠다고

후더워
아버이장군님 그 마음이 후더워
정문밖 령길을 바라보니
초겨울 찬바람을 맞으시며

우리 장군님
지금 막 험한 령을 넘어오시는듯

-광포오리공장에서-

우리 장군님은 그런분이신걸

감사를 주시다니
세상에 없는 지상락원을 꾸려주시여
대를 두고 장군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텐데
우리 장군님께서 오히려
오히려 우리 장군님께서
우릴 보고 감사하다 말씀하시다니

흐르는 눈물을 씻지 말거라
영남아, 예쁜아
인민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은 그런분이신걸
우리 장군님은 그런분이신걸

-농민휴양소에서-

제대군인부부의 집에서 (1)

이야기하겠소
들어보시오
우리가 돌격대제복을 입고
돌격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할 때
꿈엔들 생각했겠소
이런 영광이 차례질 줄

우리 장군님 방에 들어오시여
결혼식사진을 보시며
아주 멋있다고

이것이 우리 식이라고 하셨으니
세상에 이런 희한한 결혼식축복이
또 어디 있겠소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두번 한것이나 같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진짜 결혼식날은
장군님의 축복을 받은 바로 그날이요!

제대군인부부의 집에서 (2)

이상해
왜 우리 집에
이대지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가
네살짜리 내 이름을 물어보는
할아버지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어
아마 천명은 될거야
아니 만명은 될거야

와서는 모두 하나같이
벽에 걸린 아버지, 어머니군복을
오래 서서 보군 해
혼장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내 이제 빨리 커서
아버지 저 군복을 입을테야!

아쉬워말라

전설속의 신경처럼 꾸러진
아담한 마을을 찍느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도
성차지 않아 도무지 성차지 않아

발을 뚱뚱 안타까워하는 너기자동무

아쉬워 말라
아무리 사진기가 수백이고
아무리 사진사가 수천이어도
어떻게 다 담겠소

자연을 길들이고 사회를 변혁해가는
선군사상의 폭과 깊이
빛과 열
지구를 들썩이는 그 위력을!

-홍봉리 천삼평마을에서 -

다 보여주자

크지 않은 한개 군이
시련을 이겨내며 고난을 박차며
기적으로 일떠세운 발전소며 지상락원을
다 보여주자
세상에 다 보여주자

지어 미제국주의자들에게까지
우리들 끝끝내 없애려 분별없이 날뛰는자들에게
진짜 힘이 어떤것인가를
진짜 무서운 《핵》이 어떤것인가를

-정평에서-

다 보여주자

다녀가신 영광의 그날에 이어

서진영

발걸음마다 날개를 달아주는듯
십리 구내를 흔들며 메아리치는 공동시설
혁명군가의 힘찬 선율속에
푸름푸름 새날의 하늘이 들린다

혼합기의 동음
용접의 불보라속에
흘러 흐르는 오늘의 순간순간이
하늘가에 강철지붕으로 솟아나고
기대들이 새 모습으로 태어나는 곳

어느 하루라도 조용히 밝아온
평범한 날이 있었고
남긴 자옥, 안아올린 창조물이 없이
미적지근하게 흘러보낸 그런 날이
우리들속에 있었던가

새날의 첫 해살과 함께 떠오르는것은
그리움속에 낮과 밤을 보내던
홍남의 간절한 소원 풀어주시며
전선길에 이어 찾아오셨던
우리 장군님 그날의 그 영상

밝은 해빛에 실려 들려오는것은
아낌없이 흘린 땀이
보답의 열매, 창조의 탑으로 솟아오르는 날들

다녀가신 영광의 그날에 이어
기다려 맞이하는 그 날과 날

밝은 공정을 통채로 들어내고
새 건물에 새 기대를 일식으로 들어왔힐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던
우리 장군님 그날의 그 음성

아 그 영상, 그 음성
언제나 우러르며 살고 들으며 살기에
이 땅에 레사로이 흐르는 날과 날도
홍남에는 환희 넘친 날
우리 홍남로동계급의 가슴가슴엔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이는 날

전선길 굽이굽이 선군의 그 길에
밝은 앞날 열어주신 우리 장군님께
언제면 더 큰 기쁨 드릴수 있을가
현지말씀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며
장군님 가까이, 그 높이신 뜻에
발걸음도 마음도 따라세우고있나니

진정 지구의 공전으로 밝아오고 저무는
그런 레사로운 날과는 인연이 없으라
홍남에 흐르는 날과 날들은
무조건성,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뛰며 내달린 자옥
전변의 새 화폭 펼쳐가는 그 하루하루는
하얀 비료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멋쟁이일터에 장군님을 다시 모실 행복의 그날
영광의 그날로 곧바로 이어져있으라

선군시대 일군들의 형상과 총서 《불멸의 향도》

김해월

우리 문학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가 되어 세계에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는 선군시대 인간들을 진실하게 그려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송상원 작), 《강계정신》(리신현 작), 《라남의 열풍》(백보흠 작)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 숭고한 인간적품모에 매혹되어 신념과 의리를 다해 믿고 따른 군대와 인민들의 형상을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수령의 주위에는 수령과 고락을 같이하는 충신의 전형이 서있어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 《강계정신》, 《라남의 열풍》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가 군대와 인민, 특히 일군들을 믿고 그들의 가슴속에 영웅의 넋을 심어주어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되게 하는데 그 위대성과 특성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가 것처럼 위대하고 힘있는 것은 거기에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여기실뿐아니라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할수 있다고 믿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철저히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이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하 40° C를 오르내리는 세찬 눈보라와 찌는듯 한 삼복더위, 내려퍼붓는 폭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험한 령, 험한 산밭을 넘으시여 일군들이 백두의 담력과 배심을 지니고 선군시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시여 위대한 시대정신의 창조로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고 조국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걸출한 령도자의 품모를 지니신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의 주요인물들인 조선인민군장령 심철범, 참모장 전호진, 《강계정신》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태혁, 《라남의 열풍》의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책임비서 주혁민, 지배인 오성오 등은 당이 안겨준

의지와 배짱, 높은 실력과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의 백승의 위력을 발휘하게 한 선군시대 새로운 인간전형들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에 형상된 선군시대 일군들의 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이 준 과업을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는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기 당의 령도밑에 1년 동안에 안변청년발전소(처음 금강산발전소)수십리 대형물길굴공사를 완공한 심철범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끝낼것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철범에게 발전소건설을 책임지고 내밀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주시고 사흘내에 공사실태를 보고하라고 하신다. 심철범은 료해과정에 초인간적정신력을 발휘하여 10년간 대형물길굴을 뚫은 군인들이 이제 1년어간에 수십키로메터의 대형물길굴을 완공한다는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것을 간파하고 장군님의 물으심에 솔직하게 할수 없다고 대답을 올린다.

그이께서는 심철범의 보고를 들으시고 《나는 동무가 할수 없는것도 할수 있다고 보고해왔다면 동무를 믿지 않게 되었을거요.》라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여 오늘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 정신은 혁명의 기둥인 우리 군인들이 창조해야 하고 그들이 창조한 그 정신으로 온 사회를 불어일키고 들끓게 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신다.

일군을 믿으시는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온 심장으로 절감하는 순간 심철범은 거인이 된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그이의 결심에 따라 용단을 내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이께서는 심철범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믿는다고

고무해주시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피의 《건설전쟁》을 벌리는 간고한 시련의 나날 전대미문의 봉락 구간돌파문제를 놓고 현장에서 심각히 토론을 할 때 참모장 전호진이 우회하자고 강경히 제기한다. 이때 심철범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험해도 직선돌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직선돌파명령을 떨어주고 봉락을 막을수 있는 새로운 시공법을 발기하여 공사를 끝까지 내민다. 적들의 새로운 도전과 큰물피해로 이 중대한 건설공사를 중단할수 밖에 없는 엄혹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결심을 들어보자고 하시며 현지시찰의 길에서 심철범을 부르신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오는 이른 새벽,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달려온 심철범에게 그이께서는 나라형편이 참으로 어렵지만 대형물길굴 공사를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내밀어 끝내야 하겠는데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신다. 이 순간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과 의도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비상한 결심으로 용단을 내려 《알았습니다. 무조건 끝내겠습니다.》라고 대답올린다.

전례없이 비상한 정황속에서 떨어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회의장에서 《동무들을 믿고 조건이 열번 변하고 조건이 백번 달라져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제0026호 명령을 관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고 병사들을 불러일으키는 심철범의 모습은 위대한 장군님과 운명도 미래도 함께 하는 결사관철의 기수로서의 인민군지휘관의 참모습을 인상깊게 느끼게 한다.

모래와 자갈, 세멘트와 강재가 최후결사전을 벌리는 전호가의 총탄처럼 피와 생명같이 귀중한 시각, 전호가에서라면 총탄이 떨어졌을 때 육박전을 벌릴수 있으면만 공사장에서는 그렇게 할수조차 없는 시련의 정황속에서 모래를 대신하는 대용자재도입문제를 놓고 책임이 두려워 심의일군들이 주저하고있었다. 이때 심철범은 이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알고나 있는가, 이 공사에서 군인인 우리는 전쟁때처럼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전투입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후돌격전을 결사적으로 벌려나간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피어린 전쟁,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건설을 하는것으로 하여 난관과 시련이 더 엄혹한 조건에서도 군관들과 군인들은 자기들은 장군님의 아들, 장군님의 병사들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각을 심장에 간직하고 그이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동발목》이 되고 《꼭약》이 되어 수십리물길굴 관통전투에서 위훈을 세워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참으로 장편소설에서 심철범을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와 운명적으로 련결되어 그이의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선군혁명의 기수로서 시대에 우뚝 서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태혁은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시련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가장 불리한 최악의 조건에 처해있는 자강도에서 6개월동안에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받아안는다.

이때 태혁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공로도 없는 군부대 이름없는 일군을 전선사령관으로 임명 해주신것과 다름이 없는 심정입니다.》고 하면서 그이의 결심에 따라 용단을 내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름다운 과업을 받고 방도를 모색하는 태혁이에게 동무나 나에게 무엇이 있소, 난 인민을 믿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소, 자강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믿을직한 로동계급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불러일으켜 사생결단의 의지와 뜨거운 인간애로 묶어세우면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하시면서 《고난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비결》을 밝혀주신다.

위대한 창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태혁을 비롯한 도안의 일군들은 것처럼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자강도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그들을 인간사랑으로 묶어세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 간고한 나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군님께 편지를 쓰는 태혁의 모습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일군의 모습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태혁이가 쓴 죄송함과 안타까움에 찬 편지에서 인민을 위한 희생으로 높뛰는 심장의 흐느낌과 함께 령도자와 운명공동체가 된 전사의 순결한 진정을 느끼신다. 그리고 우리 시대 김책형의 일군을 찾는 기쁨을 느끼시며 식량을 풀어주시고 태혁이에게 우리에게는 인민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에게 자기를 송두리채 바칠줄 아는 참다운 일군이 되라고 백두산위인들의 《이민위전》의 숭고한 리념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신다.

태혁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산의 배짱, 백두산의 공격정신으로 건설장마다에 혁신의 불꽃을 지펴올려 6개월동안에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자강도가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데 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여 김일성민족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과 운명적으로 련결되어 그이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영웅적희생정신으로 결사관철하는 여기에 총서 《불멸의 향도》에 형상된 일군들의 성격적특징의 하나가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 형상된 선군시대 일군들의 성격적특질은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높은 실력가라는데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기에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책임비서 주혁민과 지배인 오성오는 기계설비와 자재도 부족하고 더우기 《고난의 행군》을 하는 참으로 준엄한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HM 기》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받아안는다. 그 《HM 기》로 말하면 이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훈으로 남기신 문제이다. 그들은 그이께서 바라시는 문제는 무조건 해내야 하며 또 해낼수 있다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가진다. 그것은 그들에게 높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대상설비생산을 해내야 하는 어려운속에서도 세계적인 기계강국들도 미처 개발하지 못한 최첨단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다는것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높은 창조적능력과 실력, 비상한 열정과 불굴의 투지, 피타는 노력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자기들의 높은 창조적능력과 실력, 불같은 사업의욕과 열의, 노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며 그들과 함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밤을 새워가며 긴장한 전투의 날과 달을 보내었다. 하지만 수십차례의 실패로 자재와 원료가 떨어지다 못해 석탄까지 거덜이 나서 가열로들이 숨을 죽일 형편이었다. 유압설비들을 다시 고쳐 만들자면 40mm 합금강이 요구되는데 부속과 전기설비들이 다 마사저단조직장의 프레스함마들이 더는 가동할수 없게 되어 앞길이 막막한데 《HM 기》개조에 적극 나섰던 설계실장 설태섭마저 난관에 동요하게 되며 지배인까지도 위구심을 가지게 된다. 이때 주혁민은 지배인에게 주물에 필요한 원료와 대용연료를 해결할 방도가 있는데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열로개조를 맡아나서고 대용연료 채취에 앞장선다.

책임비서 주혁민과 지배인 오성도, 기술부기사장 최강철(후에 기사장으로 됨)은 진지한 토의 끝에 사람들의 땀힘으로 프레스함마를 30분동안에 220번 내리쳐서 40mm 강관을 뽑아내는 피어린 결사전을 벌린다.

참으로 겹쌓이는 시련속에서 《HM 기》의 개발시험이 69번째까지 실패하자 서정후는 기술검열로 해소조까지 데리고 내려와 개조한 설계도면을 무효화하고 이 기계의 심장부인 유압계통의 설비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하며 무조건 이 요구를 접수하라고 지배인을 강박하고 그를 반동으로까지 몰아낸다. 하지만 지배인은 태연하게 이 요구를 접수할수 없다. 료해소조들이 모두 무식하니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고 당당히 맞선다.

책임비서 주혁민과 지배인 오성오, 기사장 최강철, 기술자들인 탁석준, 김경복, 박준. 기능공 윤박람을 비롯한 노동계급들은 백번 넘어져도 백번 일어나 싸우는 불굴의 투지와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열정, 고심어린 피타는 탐구로 93번째 시험에서 기어이 우리의 자재, 우리의 원료로 우리식의 최첨단기계인 《HM 기》를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애국과 실력이 낳은 《HM 기》의 모습은 《고난의 행군》의 진통속에 위대한 시대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인간이 탄생하는 조선의 모습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이라면 그처럼 간고한 고난의 시련속에서도 최첨단기계를 《우리 식》으로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여기에 애국과 실력으로 자랑높은 선군시대 인간전형들의 성격적특질이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에 형상된 선군시대일군들의 성격적특징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과 위험한 정황이 제기될 때마다 지휘관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시 《나를 따라 앞으로!》 구호를 웨치며 고결한 희생정신을 발휘해가는 투쟁의 기수들이라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투쟁의 선두. 바로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자리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들은 이상깊은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탐구하여 안변청년발전소와 강계와 라남의 지휘관들의 이신작칙의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에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책임진 심철범은 가장 어려운 정황이 제기될 때마다 군인들속에 들어가 방도를 모색하고 대담하게 대오의 앞장에서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일군이다.

대용자재를 건설심의국의 승인도 없이 도입한 문제로 법앞에 나서게 되어 건설심의국에 불리워갔다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전집무실에 가서 대기하는 도중 병사용군화를 신고 운동 돌가루에 매달린한 옷을 입은채 어버이품에 안겨서 만시름을 놓고 잠이 든 심철범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세부, 이른 새벽 동명왕릉부근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발전소건설을 계속 내밀데 대한 명령을 차렷자세를 하고 받는 심철범의 손에 감긴 피문은 봉대에 대한 세부, 그가 하루종일 안경알이 깨어져나간 것도 모르고 막장을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지휘소에 들어와 안경을 벗어들고서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원인이 안경알때문이었다는것을 발견하는 생활세부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해가는 선군시대 일군의 모습이 감동깊게 안겨와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 인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도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닭은 강냉이를 씹으면서 중소형발전소건설장을 찾아다니며 전투를 지휘하는 그 간고한 나날 갑자기 언제가 터지는 위급한 정황속에서 심장병이 심하였지만 돌격대원들과 함께 얼음물에 뛰어들어 언제를 막고 마감타입작업을 다그칠 때까지 한시간동안이나 맹렬한 전투를 벌리는 도당책임비서 태혁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자기를 군당책임비서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늘 잔등에서 질통이 떨어질

사이없이 솔선 이신작직하여 말을 못할 정도로 온몸이 극도로 지쳤지만 불사신의 힘으로 당에 발전소를 완공했다는 보고를 올리고서야 언제나에서 잠이 든 장군당 책임비서, 지평이를 질고서도 희생적으로 일하는 립준, 애기가 달린 몸이지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가서 헌신적노력으로 자재를 구해오고 사업보고를 하다가 그만 짊어진 도당부원 혜경 등의 형상은 가장 어려운 모퉁이에서 앞채를 메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강계정신》을 창조한 선군시대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불굴의 모습으로 안겨온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 책임비서 주혁민은 늘 새벽 3시면 현장에 나와 생산직장을 돌아보면서 대상설비생산과 《HM 기》개발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도록 하였으며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비까지 쏟아지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거운 바다물속에 들어가 대용연료와 크링카벽돌수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목욕탕건설도 책임비서가 직접 발견하고 앞채를 메고 공사를 내밀어 여덟달 걸려도 못한다는 건설을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번듯하게 완공하도록 하면서 직장장들이 모든 일에서 이신작직하여 생산을 내밀도록 한다.

오성오지배인도 몸이 아주 체소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보통사람들보다 몇갑절 더 강단을 가지고 늘 현장에 내려와 이신작직의 모범으로 생산지도를 실속있게 해가며 모든 일에 앞장선다.

이처럼 이 장편소설들은 일군들이 발휘한 실천적모범이 기적의 불씨가 되어 건설장마다에 드세찬 혁명의 열풍을 안아왔으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으로 비약할수 있는 선군시대정신이 힘차게 나래치게 하였다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대오의 앞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도일군들은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해가는 힘겨운 전투속에서도 생활을 혁명적량만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나게 해나가는 락천가들이고 다정다감한 정서의 소유자들인것이다.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여있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되어있기에 죽음도 초월하는 결사의 각오도 생기고 고난도 웃으며 헤쳐가는 불굴의 기개가 용솟음쳤던것이다. 이 락관의 정신, 헌신의 정신으로 지도일군들은 군대를 불굴의 용사로 키웠고 인민을 고난을 돌파하는 공격전으로 불려일으켜 위훈과 창조의 길을 열어나갔다.

래일을 안고사는 랑만, 래일을 위해 바치는 헌신의 열정은 자기 대에는 비록 락을 누리질 못한다 해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생관의 숭고한 세계를 심장깊이 간직한데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선군시대 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리라는 담력과 배짱으로 건설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신심과 락관의 노래높이 전진하는 **김일성**민족의 정신적위력을 확증하고있는 여기에 이 장편소설들에 구현된 생활과 랑만에 대한 형상적의의가 있다.

이 장편소설들이 선군시대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그릴수 있는것은 지도일군들을 완성된 인간으로 그리지 않고 평범한 인간이 지니고있는 영웅적미를 옹게 그려 선군시대인간들의 성격적특질, 삶의 철학을 밝혀낸데 있다.

지난시기 현실주제소설들에 등장한 일군들은 거의 모두가 점잖고 인간성도 있으며 틀에 잡힌, 모든 면에서 원만한 완성된 인간으로 형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는 일군들을 완성된 인간으로 그리지 않았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자기의 성도 달아주고 인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눈물겨운 각오도 했으며 장군당 책임비서 책벌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천리길을 달려와 장군님께 자기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하던 태혁의 인간미를 진실하게 그려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당일군에 의해 어떻게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사롭게 비쳐지게 되고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장편소설은 태혁이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전력공업부 부부장의 결함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여 그가 자기 직책에서 일할수 없게 되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그의 결함 하나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엄한 추궁을 받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해 불같이 뜨거우신 그이의 인간세계앞에서 쓰디쓴 회오의 눈물을 머금으며 자책하는 모습은 참된 일군으로 자라기 위한 인간심리세계의 진실한 반영으로 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 책임비서 주혁민이 과감한 전개력과 불같은 정열이 있지만 성격상 모든것을 급하게 내미는 결함이 있어 당조직과 토론도 없이 전국생산기지를 없애자고 주장한 지배인을 이것을 만든 전 지배인에 대한 의리도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회의에서 비판하던 중 실리를 따져가며 국가에 리득을 주지 못하기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허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일군의 형상이 인상깊게 살아나도록 하고 있다.

지배인 오성오도 신경질이 많고 편협한것으로 하여 박준이가 기계창안에 몰두할 때에는 시간이

가는지 몰라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도 그가 일본에서의 자유로동생활때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정형자유주의자로, 리기주의와 공명주의가 많은 인간으로 오해하고 사람들앞에서 망신을 주며 그와 말도 하지 않고있다가 단조직장결사전을 벌린 일을 계기로 서로 오해를 풀고 마음을 합치는것으로 그리고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에서는 사업에서 결함도 있고 성격상 약점도 있지만 간고한 시련을 뚫고 가는 투쟁속에서 자기의 부족점을 극복해가며 성장발전하는 선군시대 일군들의 개성적인 인간적풍모를 진실하

게 형상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담력과 배짱도, 감정과 정서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을 닮으려는 선군시대 일군들의 숭고한 사상적지향을 감동깊이 감수하게 되는것이다.

선군시대 새롭게 탄생한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성격적특질을 예술적전형으로 형상한 바로 여기에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에서 상대인물형상을 격이 있게 창조한 특출한 성과가 있다.

지휘관의 마음

김승국

다는 몰라라
병사여 그대 지휘관의 마음을
가렬한 결전의 시기도 아니건만
왜 그리도 엄하게
반복, 반복 또 반복구령을 내리는지

언제인가
여러번째 반복구령을 내릴 때
이 지휘관을 쳐다보는
애어린 전사의 눈길을 보는 순간
내 생각도 많더라

다시 한번 반복구령 내린다면
전사는 지쳐서 쓰러질듯...
허나 나는 내렸다 주저없이
반복구령을

병사여 생각해보라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날
그대 만약 오늘의 용서로 하여
원췌의 검은 손아귀에 든다면
그때에는 이 지휘관도 대신하지 못하리
내앞에도 피를 물고 달려드는
간악한 원췌가 있기에...

원췌와 맞선 병사가
힘과 지혜가 모자라
적에게 눌리울 때
그때에야 못다한
지휘관의 책임을 두고 한탄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것

병사여 지휘관은
늘 이 생각속에 살기에
오늘도 내린다 용서없이 주저없이
반복구령을

평범한 날에도 가장 엄혹한 날에
자신을 세워놓고
설새없이 반복구령을 내리는
이 지휘관의 마음을
오늘엔 다 몰라도 좋아

하지만 그대는 알리
먼 후날 위훈으로 빛내인
병사시절을 값높이 추억할 때
준엄한 나날에 용맹떨쳐
앞가슴에 단 그 금빛훈장이
오늘과 바꾼것임을...

새삶의 고고성

이 손에 다시 쥐여주신것은
하나의 작은 펜이건만
지구의 무게가 통채로 실린듯
쿵-
심장이 먼저 무거워졌다

한걸음 잘못디딘 자욱으로 하여
기슭으로 밀려난 거품처럼
멀리 뒤흔어졌던 나의 인생이
보무당당한 대오의 한자리에서 울릴 발걸음소리
심장이여, 네가 먼저 울리는가

고마움에 눈물은 얼굴을 적시건만
심장은 붉은 피
다시 끓는 붉은 피로
온몸을 새 생의 환희로 적시나니

내 이제는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으리
믿음으로 뛰는 심장이 있는한
나의 눈빛은
천만년 세월의 노을을 내다본다
선군태양이 밝혀준 승리의 그 아침을

나의 이 손에
우리 장군님 쥐여주신
선군의 붓대
이 붓대로 나는
인생과 사회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위대한 인간사랑의 태양
선군태양의 찬란한 역사를
온 우주에 빛나게 새기리라!

고향의 역두에서

뜨거운 상봉
열정적인 바래움에
고향의 역두는
바다처럼 일렁이누나

잠시 떠나고
잠시 돌아온이들에게도
련인이며 벗들
마중하고 바래우는
정다운 사람들이 많구나

꽃다발을 한가슴 안은
저 처녀는 무슨 발명을 했는가
꽃속에서 웃으니 하늘이 다 밝아진다
남다른 흥분에 들떠있는 저 젊은인
아마도 그의 애인은 아닌지

돌격대재복을 입은
애티나는 저 젊은이
땅에 발조차 디더보지 못하고

벗들의 목마우에 등 떠 웃으니
아마도 영웅이 되게다

공화국기를 가슴에 단
체육복을 입은 저들은
아마도 어느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이기고 돌아온가부다
서로의 열렬한 포옹에
가슴이 다 얼얼하겠구나

남모르게
땀내나는 작업복에 배낭을 지고
위대한 믿음속에 다시 돌아온
내 가슴에서 몽클 뒤채기는 불덩어리

떠날 때 바래주는이 하나 없고
돌아올 때 마중하는 동지가 없다면
시대앞에 것처럼
그처럼 낯선 사람 있으랴

믿음

믿음이 없는 삶은
허울뿐인 생
살아도 삶이 아니었다

그 누가 보느이 없는
천길막장에서 일해도
우리 당은 보나니
애국의 량심이 뿌리는

그 진한 땀방울을

그 땀방울 땀방울이
참된 인생의 밑거름이 되거니
우리 당의 믿음은 해빛처럼
땅속에 묻힌 씨앗도 움트우고
아름다움 인생의 꽃도
열매도 익혀주더라

나의 심장은 높된다

내 아직은 할 일도 많은데
벌써 머리가 희여지누나

세월은 어제와 다름없이 흐르건만
이제는 나의 삶에 시간은 귀중해

한초 한초
남들이 래일이라고 하는것을
나는 오늘에 불러와야 할 사람

한자욱 한자욱

남들이 한생을 걷는 길도
나는 오늘에 다 걸어야 할 사람

나에게 참된 삶을 주고
창조의 무기를 안겨준
우리 당을 위해

선군의 자양을 한껏 호흡한
내 심장은 높뛰리라
나의 생을 위해서가 이니라
보답과 위훈의 세월을 위하여

심장의 고백

나를 낳은
어머니의 일깨움인듯
먼길을 함께 가는
벗의 타이름인듯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속에 울리는 속삭임이 있어라

깊은 밤 꿈속에서도
새겨듣는 그 소리
노을 피는 아침길을 걸을 때도
툭 툭...

가슴을 두드리는 그 소리
믿음이 있어 내가 있고
믿음을 지켜 심장이 편다고...

순간도 잊을가봐 못들을가봐
심장이 터놓는 고백
어머니가 준 생을 위해서라면
심장의 그 소리를 나는 못들어

한번 잃으면
살아도 삶이 아니기에
더더욱 가슴을 치던 그 소리
자신만을 위해 생의 길 이어간다면

심장의 피는 맹물처럼 희여지고
순간에 고통을 멈추리

오늘의 하루하루에도
심각한 대결이 있나니
원췌의 총구앞에서만
변절하는것이 아니기에
피터지는 고문장에서만
전향하는것이 아니기에

몇분의 벌거덕거리는 돈맛에
유혹의 눈길 돌린다면
시대와 력사의 교훈을 그 무슨 옛말처럼 잊고
안일의 처마밑에 보신의 울타리를 치고 산다면
그것이 변절이 아니냐
신념의 전향이 아니냐

한시절의 자서전을 땀으로 새겼다고
저절로 지켜지는것도 아니여라 당의 믿음은
그 어떤 명예처럼 간직하는것도 아닌
너는 생명보다 귀중한것이기예
성스러운 대오속에 내 들어설 때
새삶의 고고성을 터친
심장이여. 네가 먼저 울지 않았더냐

쉽게는 말하지 말라
 심장을 바쳐 보답한다고
 가볍게는 새기지 말라
 심장으로 지킨다고
 믿음을 저버린 인생은
 피가 없는 심장
 천길나락의 막돌과 같기에
 내 목숨과 바꿀것이 있다면
 당의 믿음 하나뿐이어라

아, 세월의 머리 흰 나이를 차던지고
 한생을 지칠줄 모르게 하는
 열정의 샘이더라
 마르고 탄 마음의 재가루우에도
 참된 삶의 꽃을 피우는
 운명의 피줄기더라 믿음은

그렇더라 우리 당의 믿음은
 망망대해에 한몸 떠밀려가도
 날파도를 헤치고 천길물속에서도
 기어이 솟아올라 위훈의 자욱 새기게 하는
 인생의 해빛이더라

안다고 하면서도 다는 모르기에
 귀중히 안고서도 때로 잊을가봐
 낮이나 밤이나 가슴을 두드리며
 내 심장은 속삭이네
 가슴깊이 심장이 있듯이
 심장깊이 믿음이 있다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줄수 없는
 심장속의 심장이
 우리 당의 믿음이라고!

달을 보며

-비전향장기수를 대신하여-

주명옥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겨
 나는 다시 생을 받은 비전향장기수
 이밤 마음 설레여
 행복의 창을 활짝 여니

은빛거울인양
 하늘 저높이
 눈부신 달이 동실 떴구나
 젊어진 이 몸
 어서 비춰보라고...

환희에 넘쳐 두팔을 뻗치면
 금시라도 내 품에 구울러들듯
 쟁반같은 달빛에 온몸을 물들이며
 조용히 추억을 실어보니
 살창사이로 쏘박쏘박 빠져리게 비쳐들던

교도소감방안의 그 달이 어려오누나

살을 찢는 모진 고문에
 피흐르는 이 몸 그 아픈 상처를
 말없이 어루만지던
 정녕 그 달이란 말인가

아니여라
 나에겐 달이 둘이었구나
 지옥에서 락원으로 온 내 모습처럼
 감옥에서 본 쏘박달과
 행복속에 우러르는 둥근 달
 어버이장군님 내 머리우에 얹어주신
 아 둥근 저 달은
 복받은 비전향장기수
 나 아니고 무엇이라

고려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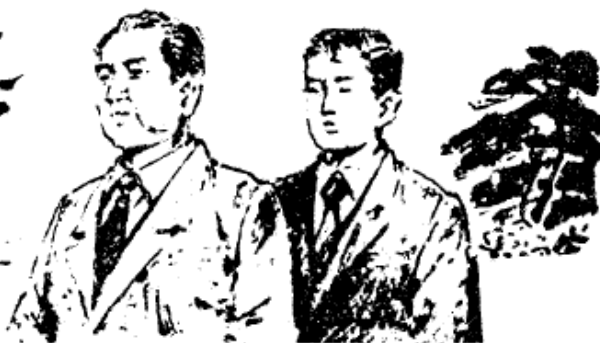
고려종이로 세상에 이름난 백추지와 견지는 닥
 나무를 원료로 하여 만든것인데 색이 희고 매끄
 럽고 질기였다. 종이의 질이 명주같이 정밀하였
 기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비단섬유로
 만들어진것으로 보았다.

고려의 종이 만드는 기술발전을 보여주는 이
 종이는 지배계급사이의 사치품교환목록에 포함되

여 여러 나라들에 적지 않게 수출되었는데 당시
 송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고려종이를 《천
 하제1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밖에도 고려종이는 불경같은것을 베끼는데
 쓰는 청자지와 종이표면에 금가루를 뿌린 금분지
 로도 생산되어 당시 높은 수준의 종이제조기술을
 보여주었다.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류민호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들이 운신하기 힘든 영예군인이 되어 돌아온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스무살도 채 되기전에 서해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에서 어로공을 할 때에 있던 이야기였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로공이란 말뿐이고 배에서 밥이나 짓는 화장노릇을 한데 불과했다.

이 이야기에서 그때 내가 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하자는것은 물론 아니다.

나는 다만 이 이야기의 목격자로서 아들에게 한 영예군인의 길지 않은 한생애 대하여 말하고자 하였을뿐이다.

1

그때는 전쟁이 끝난지 한달이 지난 때였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산사업소로 배치받았다.

나의 첫 일터는 《꼭딱선》이라고 부르는 작은 기계배였다.

배에는 인원이 여덟명이었는데 그중 남자라고는 나까지 세명이고 다섯명은 여자였다. 전쟁이 갓 끝난 직후여서 사업소에는 거의 여성로력이 대부분이었다.

정말 그때는 어느 일터에나 거의가 다 여성들이 많았다.

우리 배의 여성 다섯명중 한명은 남편이 인민군대에 나간 후방가족이었고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여성이 세명, 나머지 한명은 로chner였다. 남성로력은 선장과 어로장 그리고 나뿐이었다.

우리 배는 선예망도 하고 연승도 했으며 때로는 안강망도 하는 등 각종 어로작업을 닦치는대로 하였다.

그물을 당기는 일도 모두 여성들이 맡아했다.

배에 배치되어온 첫날 나는 선예망작업에 동원되었는데 그물을 꿰찬 백중로프를 멋모르고 힘껏 당기느라고 했더니 첫날에 벌써 두손바닥에 온통 물통이가 저버리고말았다.

다음날에는 그것이 벗겨져 피가 흘렀다. 그날 밤부터 상처자리가 쏘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고열까지 났다.

다음날새벽 배의 고물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데 로chner인 봉녀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 녀자의 나이는 서른살정도였는데 나와 거의 십여년차이로 나는 그에게 막내동생벌이나 되었다.

첫눈에 보기에든 매우 담차게 생긴 그에게는 《부선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었다. 봉녀는 나의 손을 보더니 혀를 찼다.

《이런 일을 못해봐서 이 지경이 됐구나. 미리 잘 대줘야 했을걸. 저 백중로프는 손가락을 갇아먹는 귀신이란단. 그런 손을 가지고는 그물일을 못해. 내 말 해줄테니 당분간 화장(그때는 취사원을 그렇게 불렀다.)을 하면서 점차 손바닥이 두꺼워진 다음 잡아야 할것 같구나.》

만누이같은 그의 인정에 나의 두눈에서 눈물이 찔끔 솟았다. 그는 나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정말 나는 그의 제기로 이튿날부터 화장노릇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자주 앓곤 해서 쌀함박을 자주 쥐여본덕에 취사일은 제법 할수 있었다. 내가 배에 올라 처음으로 지어놓은 밥그릇을 마주한 선장은 그 시꺼먼 눈을 부릅뜨고 《구실못할 녀석 같으니! 그래도 쌀바가지는 잡을줄 아나?》하고 갑판너머로 침을 탁 뱉었다.

나는 찻소리도 못하고 어깨만 움츠렸다.

봉녀가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쌀도 일어주고 불도 때주었으며 배가 뒤흔들리는속에서도 밥과 생선국을 제대로 끓이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배워주었다.

쌍가풀이 지고 동그스름하면서 귀염성스러운 느낌이 다문했던 봉녀의 눈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옷을 때마다 불에 곱게 패이던 불우물도, 검고 길어서 붓으로 푹푹 찍어놓은듯 하던 눈섭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선장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너인들은 그를 좋아했다. 봉녀가 자기의 의사의 대변자격이었으니까...

어로장은 나이 오십이 지난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는 하루종일 말 한마디 없다가도 일단 술이 들어가면 밤새껏 종일거리곤 했다. 그는 술을 말로 했다.

그리고 어느때는 너인들 드살에 치워 꼼짝 못 하다가도 일단 술기운이 퍼지면 곧장 큰소리도 칠줄 알아 제법 남자같아보였다.

선장은 어로장보다 두세살 아래였는데 그는 스무살소리를 할 때부터 선장을 하였다고 한다. 어찌나 드세었던지 배군들은 물론 선주나 경찰들도 그를 건드리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었다. 고향은 평북 통천이라고도 하고 철산쪽에 있다고도 하는데 누구도 딱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그의 가정력에 대해서는 더욱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하튼 어느 선주놈의 배를 맡아 부리다가 해방이 되어 선주놈이 어디론가 달아나버리자 그 배를 나라에 바치고 선장으로 그때까지 일해왔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우리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배일과 관련된 말외에는 별로 하는 말이 없었는데 그나마 호령조로 하곤 하여 내가 기를 퍼지 못하게 했다.

후에 우리와 같이 배를 타던 너인과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처자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무서움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운두가 높은 창이 없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해풍에 날릴가봐 끈까지 달아서 턱에 걸고 다녔다. 그것도 넓고 붉은 끈이어서 위엄이 더 있어보였다. 모자모양은 옛날의 병거지 비슷했다. 우정 주문해 만든 것인지 아니면 고물상에서 샀는지 출처가 분명치 않은 모자였다.

검실검실한 얼굴에 시꺼먼 두눈은 보기만 해도 사람의 기를 꺾는 그 무엇이 있었다. 하기에 전쟁이 갓 끝난 때다보니 적들의 준동이 잦아 다른 배들에선 모두 불안해하였지만 우리는 든든한 배심이 있었다. 그가 붉은 모자를 제껴쓰고 선수에서 푸른 바다를 누벼나갈 때면 불만 했다. 배의 너인들이 눈이 켜져서 바라보곤 하였다. 그가 등위로 그걸 느끼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끼곤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선장은 아근은 물론 서해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바다범》이라고 하면 누구도 감히 맞설념을 안했다. 그는 명실공히 바다사나이었다.

나는 선장한테서 된육을 많이 먹었다. 그중에는 생선국이 짜서 육을 먹은적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장한테 험한 육을 먹어도 서럽고 억울한 생각보다도 그 어떤 궁지감 비슷한 감정이 나의 가슴속에 갈마들곤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배안의 사람들이 물고기도 잡고 룡질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갑판에서 덩굴며 낮잠도 자

며, 한마디로 레사로운 그런 생활의 날과 날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리 배에 제대군인총각이 배치되어온다는 것이었다. 정말 경사가 아닐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물에 숨어있는 적들과 크고작은 섬들에 들어박혀있는 적들의 책동이 우심해서 마음을 놓을수 없던 때였다. 우리 어선들을 랍치해 간다는 흥흥한 소문도 돌았다. 그런 때에 제대군인이 배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되던 억센 선장에 제대군인까지 온다니 이제는 두려울것이 없을것 같았다.

《선장이 허리펴게 뻤수다.》

제일 나이 많은 후방가족 순녀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

《지배인이 우리 배를 쓴외보듯 한다 했더니 그래두 그렇지 않은걸. 사업소에 들어가면 인사를 톡톡히 해야겠어.》하고 선장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 지배인은 마른 민어알이면 오금을 못쓰지. 한 소쿠리 가져다 줍시다.》

한잔 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는적 없던 어로장까지 한마디했다.

누구보다 봉녀가 더 실천적이었다.

《좋다구 말들만 하구 있겠어요? 애 창수야. 우선 료리가 여덟가지이상 있어야겠다. 뭘 명칭해서 나만 보니?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구?》 《여덟가지라니요? 물고기가 지금 당장은 세가지 밖에 없는데...》

《뭘 우는 소리니? 회치구 튀기구 무침하구... 못 할게 있니, 어서 시작하자. 그리구 어로장아 바이, 빨리 낚시를 던져서 우레기를 건져내세요.》

《췌. 제 새서방감이라두 오는것 같구나.》

선장이 통명스레 내뱉는 그 말에 배우에는 웃음보가 터졌다. 하지만 그쯤한 말에 얼굴을 붉힐 봉녀가 아니었다.

《까짓거 보구서 남자싸면야 내가 누구라구 남에게 뺏기겠어요. 좋아요, 어디 두고보자요.》

또 한바탕 모두가 웃음꽃을 날렸다.

봉녀의 지휘에 온 배가 명절처럼 뫼었다. 이래서 아마 《부선장》이라는 별호가 붙은것 같았다. 어로장은 벌써 연방 우레기를 낚아올렸다.

복고고 지지고 회를 치고 양념을 만든다 하며 칼도마소리가 요란한 속에 선장의 석션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거기 매생이를 타고 오는게 그 사람이 아니냐?》 바라보니 두사람이 매생이를 타고 오고있었는데 노를 젓는 사람은 분명 당위원장(당시)이었고 그앞에 색날은 군모를 쓴 사람이 새로 온다던 그 제대군인인것 같았다.

《당위원장동지!》

우리 배에서 봉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당위원장을 부르자 그쪽에서 《오- 오!-》하는 당위원장의 화답소리가 마주 들려왔다.

드디어 매생이가 우리 배에 와닿았다.
당위원장은 제먼저 흘쩍 배전을 올라선 다음 매생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 최동무, 어서 올라오우.》

제대군인은 배전을 잡았으나 성큼 몸을 솟구지 못하고 갑작랐다. 당위원장이 그의 팔을 잡아당겨주는데도 겨우 몸을 솟구겼을뿐 발을 인차 배전우에 올려질지 못하였다. 어로장까지 팔을 잡아당겨주어서야 올라왔다.

나는 눈이 쾅해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제대군인이 저럴까?! 내 생각이 그쯤됐으니 봉녀가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무슨 남자가 저래?!》

순녀가 그의 팔을 툭 쳐서 입을 막았다. 어로장이 그를 부축해주었다.

《최주선이라구 합니다. 선장동지가 누구신가요?》

제대군인이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벌써 선장의 얼굴표정은 말이 아니었다.

《선장동지, 제대군인 최주선 사수로 배치되어 있음을 보고합니다.》

최주선은 제대군인답게 발을 모아붙이며 인사를 했다. 순간 선장은 난생처음 그런 보고를 받아보아 그런지 입을 벙글썩 했다.

《수고했네... 가만 이자 사수라고 했던가?》 그러구보니 그의 어깨엔 총이 메워져있었다.

당위원장이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모두 들으라는 듯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선장동무, 이번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로작업을 하는 과정에 저들의 준동으로 불상사들이 자주 생긴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 선박들에 사수편제를 내오고 무기도 한정씩 주어야 하겠다는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의하여 최주선동무가 이 배에 배치되어 온것입니다. 배생활이 생소할 수 있으니 모두 잘 도와주십시오.》

당위원장은 말을 마치면서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맨 앞에 봉녀가 서있어서 그런지 그에게 룡담 비슷이 한마디 했다.

《봉녀동무랑 구대원이 잘 도와줘야지...》

《저야 무슨...》

아주머니들은 최주선을 붙들고 반가와하면서 같이 마음맞춰 일해보자고 하였다. 어로장도 최주선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격려해주었다.

당위원장은 선장을 앞세우고 선장실로 같이 올라갔다. 나는 최주선에게로 다가간다.

《형님, 난 이 배의 화장이예요. 밥짓는거 말이에요, 이름은 창수예요. 식사부터 하자요.》 《우리 화장이 나이는 어려도 손님마중은 제법이야.》 어로장이 이빠진 이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최주선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수 없었다.

얼굴색은 피기가 없었고 허리가 굽을사 한게 나이에 비해 썩 늙어보이는 인상인데다가 눈길은 늘 아래로 향해있었고 남을 똑바로 쳐다보는 성미가 아니었다.

선장이 당위원장과 함께 나오자 갑판에서는 성대한 《환영연회》가 벌어졌다.

당위원장도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어부출신이라 이런 좌석에도 잘 어울릴줄 알았다. 그러나 최주선은 음식도 얼마 들지 않았을뿐아니라 별로 어색스런 자세로 앉아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되어 당위원장이 한마디 했다.

《배군들이 이렇게 맨송맨송해서야 되겠나? 봉녀가 먼저 한곡조 떼라구.》

이런 때 봉녀는 절대로 쭈뼛거리는 성미가 아니었다.

장산꽃 마루에 북소리 나드니
오늘도 고기배 님 싣고 오누나
...

노래소리는 바다멀리로 날아갔다. 녀인들은 물론 선장도 당위원장도 함께 불렀다.

서해의 배군들치고 누구나 이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노래가 한고패 들자 이번에는 최주선의 차례가 되었다. 선뜻 일어서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그에게 당위원장이 한마디 했다.

《주인들의 청인데 한마디 해야지. 거 군대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있지 않소?》, 그때는 다 몰랐지만 후에 알고보니 그들은 한전호에서 함께 싸운 전우간이었다. 최주선은 잠시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다가 잠시후에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

...얼마후 당위원장은 쪽배로 떠나갔다. 어로장이 기슭까지 내려주었다. 모두 배전에 서서 손을 흔들려주었다.

당위원장이 떠나가자 선장이 최주선을 불렀다. 《자네 자리는 당위원장이 정해준 저 조타실우에야. 올라가 자리를 잡으라구.》

《알겠습니다.》

조타실이란 바로 선장실우다.

최주선이 쇠사다리를 타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는 웬일인지 자기 재산의 전부인 배낭과 무기를 메고 오르려다가 포기하고 배낭은 내려놓은채 무기만 가지고 올라갔다.

나는 얼른 뛰여가 배낭을 올려다주었다.

그리고 낮에 아주머니들이 깔고 눕곤 하던 낡은 돛천조박을 걷어다 올려주었다.

그때 나는 배에 온 후 처음으로 《창수, 정말 고마워.》하는 따뜻한 말을 들었다. 코마루가 다 시큰했다.

2

최주선이 우리 배에 온지 꼭 보름이 지났다. 그 어간에 해안에서 자주 총소리가 울렸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종종 밤작업이 중지되곤 했다. 당시 우리 배는 몽금포 가까운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있었다.

몽금포는 지대적으로 보아 적들의 준동이 매우 심한 곳의 하나였다. 적들의 간첩소굴이라고 하는 백령도가 코앞에 있었다. 쪽배로 노를 저어가도 썰물엔 6시간정도이면 닿을수 있는 거리였다.

그리고 그의 자매섬들인 연평도, 소연평도는 더 가까웠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만행을 하고 도망간 놈들이 바로 그 섬들에 웅거해있었다.

최주선은 선장실우에서 내려오는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대하여 잊는 때가 많았다. 아마 그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이였는지도 몰랐다.

식사시간이 되면 나는 먼저 선장한테 식사를 날라다주고는 갑판에 배식을 한 뒤에야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주곤 하였다. 그런데 나의 그 행동이 선장의 노여움을 샀다.

《왜 밥을 날라다 줘? 다리가 부러졌대. 왜 내려와 못먹어?》

선장의 이 말이 후에 그렇게도 가슴아픈 후회가 될줄은 그때로서는 선장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몰랐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하루같이 그에게 밥을 날라다주었다.

어쩐지 내 보기엔 그는 몸이 매우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얼굴은 점점 더 축가는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에게 더 동정이 갔다.

우리 배 사람들이 물때를 기다리면서 갑판에서 잠시 눈을 붙일 때면 나는 조타실우로 올라가곤 하였다. 거기에 올라가 귀를 기울이면 선장이 조타실에 길게 누워서 코고는 소리가 들리곤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놓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창수, 각성해야 돼. 밤에 저 바다가에서 낚신 전지불신호가 있곤 해. 놈들의 길안내를 하려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구 저 장산반도쪽에선 신호탄이 어제 하루밤사이에만도 열세번이나 울랐어. 그곳 리당위원장이 피살된건 다 우연한 일이 아니거든.》

최주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요새 밤에두 내려 오지 않는가요?》

《나야 여기가 내 초소인데 떠나면 안되지.》

《초소요?》

나는 그를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그가 우리 배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나의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3

어느날 우리 배에 사고가 생겼다. 그 일로 해서 최주선은 선장한테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날은 파도가 잔잔한 날이었다. 이런 날에는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갈개는 날은 기분도 어둡고 바다에 나가기가 울 스산했다. 그런데 이날은 노을이 빨갛게 물들더니 바람한점 없는 따스한 날씨였다.

이날은 그물을 던질 물때가 열한시쯤이여서 한가하게 한담을 할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이 여가를 타서 최주선에게로 또 올라갔다. 그에게서 종종 나는 전쟁시기 싸우던 이야기를 듣곤 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그에게 똥판지같은 질문을 하였다.

《형님, 우리 배에서 어느 녀자가 제일 마음이 고운것 같이 생각돼요?》

그는 뜻밖의 질문이라든듯 잠시 어리둥절해하였다.

《갑자기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야?》

주선은 내가 너무 진지한 표정이어서 그런지 잠시후 진심어린 어조로 말했다.

《지내보니 마음들이 다 무척 곱더구나.》

《형님, 내 생각엔 봉녀누이가 그중 제일 마음이 고운것 같아요. 인정이 여간 많지 않아요. 남의 아픔을 두고 제일 가슴아파하는게 그 누나예요.》

나는 처음 배에 올랐던 때를 생각하며 말했다.

그때 그물을 던질 물때가 되었다는 어로장의 긴 호각소리가 울렸다.

물결은 잔잔했다. 한기만하면 본때있게 물고기를 건져낼것만 같았다.

어기영어기영 하는 그물사리는 소리와 함께 그물을 던지려고 배가 툽툽거리며 선회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떼가 던져지고 그물이 배전을 스프룩 스프룩 넘어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어로장이 지휘기(빨간 기발과 흰기발)를 꿈무늬에 차고 매생이에 올랐다.

어로장은 원을 그린 그물중심에 매생이를 타고 앉아 기발을 흔들며 그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휘했다. 그리고 똥똥 북통을 두드리며 흥을 돋구었다. 그러면 《어기영차 허기영 어서나 당겨라. 그물가득 들었다. 어기영차 당겨라. 서산에 해진다. 집에 각시 기다린다. 한배 가득 어서나 실어라. 어기영어기영 돛목을 올려라.》하면서 서너시간 땀을 뻘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헉헉 모두숨을 내쉬곤 하다가도 그물을 추어 펄떡거리는 물고기를 보고는 다시 힘들이 뻘쳐 소리들을 내지른다.

그물을 한 반시간정도 당겼을가 하는데 어로장

의 다급한 소리가 울렸다.

《그물이 쏠린다!》

이런 경우는 비상사고를 의미했다.

바다속으로 흐르는 급류에 걸려든것이다. 여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어떤 때는 배를 뒤집어놓을 때도 있었다.

그물이 한쪽으로 무서운 힘으로 쏠리는것이 험등히 보였다.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선장이 그리로 달려왔을 때는 좌측엔 순녀아주머니 혼자 발을 번디디고 견지하고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측에 붙어서도 썰쩔 매고있는 형편이었다. 썰물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속의 큰 바위잠으로 내려 흐르면서 그물을 잡아당기는 힘은 실로 거대했다.

선장까지 달라붙어 안간힘을 썼지만 그물은 한치도 당겨지지 않고 배까지 점점 끌려들었다.

이때 순녀아주머니가 《앗!》 소리를 쳤다. 돌아보니 그물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바다물에 휘말려들고 있었다. 급해맞은 선장이 최주선이 있는데를 향해 소리쳤다.

《눈이 없어? 거기 었다여서 뭘해?》

그러나 최주선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물이 결단난다!》

어로장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이런 때는 온 배의 힘을 다해 그물을 잡아쥐고 썰물이 끝날 때까지 견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물은 만신창이 되여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세찬 바다물의 힘은 점점 더 무섭게 그물과 우리 배를 끌어당겼다. 반사람의 힘도 아주 요긴할 순간이었다. 그런데 최주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선장이하 모두가 최주선이 있는쪽을 바라보았다.

안간힘을 쓴 보람이 있어서인지 그물을 당기던 물의 힘이 차츰 약해지기 시작했다.

조금 숨이 나가는듯 했다. 이때 누군가가 최주선이 있는쪽을 보며 한마디 했다.

《저것도 우리 배 사람이야?》 순간 나도 그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있는쪽을 눈여겨보던 나는 가슴이 섬적해졌다. 그는 먼바다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있었는데 총구가 향한쪽을 피득 보니 낯선 배 한척이 가까이 다가오고있는것이 마주 바라보였다.

나의 머리속엔 아우성을 치는 우리 배를 낯선 배갑판에서는 쌍안경을 든 놈이 살피고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배가 한바퀴 빙그르 도는듯 하더니 벗어났다.

팽팽하던 그물줄이 느슨해졌다. 중심표식 그물떼를 찾아온 어로장의 지휘아래 그물을 건져냈다. 그물은 만신창이 되었다. 간단히 보망작업을 해서는 안될 형편이었다. 그물 한틀을 버린것이나 같았다.

《아 이 구 아깝다. 귀한 그물을 이 모양으로 만들다니?!》

녀자들이 가슴을 쳤다.

선장은 그물을 쏘보더니 자기자리로 핵-하고 올라갔다.

《아 니 , 좌측엔 왜 한사람뿐이었어? 조금만 버티었으면 되지 않아?》

《장 정 한명이 어디야. 그랬으면 견지했을지도 모르지 않아.》

이구동성으로 주고받는 아주머니들의 말이였다.

어로장은 모든 화근이 최주선에게 있는듯 그가 있는쪽을 쏘보았다.

《뒤 두시우. 이제 와서 그래야 무슨 소용이요?》

순녀아주머니가 좌상답게 어로장을 제지했다.

이 말을 듣고있던 선장이 문을 벌컥 열더니 최주선을 향해 짹하고 소리쳤다.

《당 신 우리 배 사람이 맞는가?》 순간 나는 최주선에게 날벼락이 떨어졌구나 하고 간이 콩알만 해서 그가 있는쪽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움츠러들어서 꼼짝달싹 못할줄만 알았던 최주선이가 그 높은데서 벌떡 몸을 솟구지 않는가. 그리고는 그 무서운 선장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똑바로 쏘보며 힘있게 마주 한마디했다.

《나 도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똑바로 알고 말하시오.》

《뭘 ... 뭘라구? 내 할 일이 있다구? 그런 말이 나오는가. 웅?》 《선장동무, 똑똑히 아시오. 사람은 다 자기 직분이 있구 그걸 목숨을 내대구라도 지켜야 한다는걸 잊지 마시오.》

《헛하...이것 참, 어처구니가 없구만.》

선장은 순간 할 말을 찾지 못해 갑자르더니 최주선의 쏘보는듯 한 그 눈길앞에 먼저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처음으로 본 선장의 패배였다.

녀자들은 너무 놀라와 입을 딱 벌리었다.

선장은 자기를 쳐다보는 녀인들앞에 자존심이 상한듯 얼굴이 불그땡땡해서 한마디했다.

《어디 보자. 이 배에서 당장 내리게 할테다.》

하고는 문을 탕 닫았다.

최주선은 아무 말없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

(감히 호랑이선장과 맞서다니!?) 녀자들은 모두가 눈이 켜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있었다.

잠전에 우리 배쪽으로 다가오던 낯선 배는 이미 선수를 돌려 저쪽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4

머칠이 지났다. 최주선이 끝내 우리 배에서 내리게 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을 들은 나는 아마 그사이 선장이 사업소에 갔다온것이라고 생각했다. 호랑이같은 선장한테 그 드세다고 하는 지배인도 끝내 굴복한 모양이라고

집착했다. 아마 다른 배에 옮기려는것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에게 올라가봐야겠는데 불맞은 호랑이 날뛰듯 하는 선장한테 들켰다가는 무슨 번이 날지 몰라 겁이 났다.

선장은 두가지 수치를 당했다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나는 한다 하는 선장이 그물 한틀을 순간에 녹였다는 소문이 사업소에 짝 퍼진것이였다. 그것으로 자기 얼굴에 흠칠을 한것이 분해서 불그락푸르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햇강아지같은 최주선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그것이였다.

나는 최주선의 일이 궁금했다.

아침에 순녀아주머니가 가져다준 밥은 먹거나 했는지 여느때 같으면 내가 있는 쪽으로 손길이라도 해오겠는데... 하여튼 그 무슨 신호가 있겠는데 중무소식이였다.

한낮이 다 돼서 어로장이 사업소에 갔다가 보망용 그물통구리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오후에는 백사장에서 기울긴 겁고 새로 몽텅 갈아떨건 갈아대는 그물보수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것이였다.

아닐세라 점심이 끝나기가 바쁘게 선장은 어로공들을 백사장으로 불러냈다. 점심을 하고는 허리를 펴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었으나 이날은 막무가내였다.

매생이로 그물을 날라갔고 사람들을 실어갔다.

배우에는 나와 우리 배에서 떠날 최주선만이 남아있었다.

나에게는 중식으로 먹을 회를 쳐야 하는 과업이 떨어졌다. 회감은 아침 첫 시간에 바다물에 말짱 씻어 놓았으니 칼도마우에 올려놓으면 되는것이였다.

나는 얼른 조타실꼭대기로 기어올라갔다.

그런데 심란해서 앉아있을줄 알았던 그가 코노래로 《결전의 길로》를 부르며 무기청소를 하고있었다.

《아니 무기청소를 또 해요?》

나는 어제 저녁에 그가 무기청소를 하는것을 보았었다.

그는 하던 일을 그냥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기청소는 매일 해야 되는거야. 더우기 바다엔 염기가 있어서 순식간에 녹이 쓸수 있거든.》하며 기름걸레로 잔잔히 쓸고 닦았다.

나는 그의 옆에 주련이 놓여있는 누런 총알을 쥐여보았다.

그러자 그는 기겁을 해서 나의 손에서 총알을 찾아내며 말했다.

《무기와 탄알은 마구 손대는게 아니야 퇴관에 녹이 쓸가봐 닦을려구 내놓았는데... 난 이걸 물속에 넣고 있어. 무기탄약은 아무리 친구라도 손을 대면 안돼. 그래서 생명과 같다고 하는거야.》

그는 자기가 배에서 내리게 되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나는 직방 그에게 물었다.

《형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형님이 우리 배에서 내리게 된다는것 말이에요?》

《뭘라구?》

그의 표정으로 보아 전혀 모르고있은것이 분명했다.

《나를 배에서 내리운다구?!》

순간 그렇게도 침착하던 자세는 어디로 갔는지 침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푹 숙이였다. 나는 순간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때 왜 그렇게도 풀이 죽어했는지 그때는 다 몰랐다. 그는 자기가 안고있는 비밀을 당위 원장이 하는수없이 간부들에게 다 털어놓은것이냐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각해진것임을 나는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그것을 짐작조차 못했었다.

《형님, 너무 상심해하지 말라요. 배에서 내려도 형님이 할 일이 없을라구요.》라고 말하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영?!...》 하고 그는 일나간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못들은것 같았다.

한동안 수평선을 뚫려미 내다보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창수.》 그 음성은 무척 낮았으나 내 가슴에 실리는 무게가 느껴왔다.

《우리 중대 전우들이 전투에서 몽땅 희생되고 놈들의 포사격에 흠에 묻혔던 나하구 또 한 전사만이 살아남았어... 흠을 털구 일어서니 피를 흘리면서 채 숨지지 않은 여러명의 전우들이 있었지. 그들이 나를 붙잡구 마지막숨을 거두면서 복수를 부르짖던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잊는단 말이야. 채 눈도 못감고 적진을 봐보던 그 눈동자... 그 눈동자를 어떻게 잊어! 응? 어떻게...》

지금두 그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있는데 내가 배에서 내린다구... 저기에 그 원썬놈들이 있는데 말이야. 나는 자다가두 그들이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아 벌떡 일어나 앉아 잠을 못들어, 잠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총을 놓구 배에서 내린단 말이야. 나는 그 전우들의 피타는 뺨침을 매일 매시각 듣고있어... 지금두... 이 시각두...》

그의 얼굴근육이 푸들푸들 떨리고있었다. ...

5

오후 느즈막해서 최주선은 어딘가 다녀왔다. 우리한테 배치돼와서 처음으로 배를 떠났었다. 그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때문에 갔었는지 그 누구도 몰랐다. 말없이 갔다가 말없이 왔다.

나는 그가 자기를 배에서 내리운다는 소식때문

에 갔다왔을것이라고 짐작했다.

(정말 배에서 내리게 될가?)

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우리 사람들이 채 꾸미지 못한 그물 통구리를 안고 배로 돌아왔다.

저녁 배식이 끝나자 모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로장이 나에게 한마디 했다.

《화장, 사수에게 식사를 일론 가져다주구 오라구. 그리구 한사발 가져가는것두 잊지 말구.》

이런 일은 최주선이 우리 배에 온후 어로장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그가 떠날 사람이라는것이 기정사실이라는것을 의미했다. 나는 냉큼 식사를 가지고 그에게로 달려올라갔다.

그런데 그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또 총소제를 하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챙겨주었다. 그는 내가 말없이 자기 눈치를 살피는것이 우스웠던지 씩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이라는것이 그저 불편을 썰룩하는것이 전부다.

그의 표정을 보면 정세가 달라진듯도 했다.

《어떻게 된다는거예요?》

《뭘 그래? 앉으라구... 당위원장은 3년간 포화 속을 헤쳐온 제대군관이야. 방금 내가 그를 만나구 왔다는것만 알면 돼.》

나는 그때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배에서 내리지 않게 된다는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정쩡한 심정을 안고 내 자리로 내려왔다.

봉녀가 설것이를 하고있었다.

《그가... 어떻게 하고있어?》

나는 그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봉녀도 관심을 가지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구? 너 대답대신 무슨 똥판지같은 소릴 해?》

《그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가 그런 말이 듣자고 하는줄 아니. 쪼꼬만게 정말...》 하고 성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일손을 잡자 그도 그 무엇을 생각하는듯 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한마디했다.

《그가 어디 남자같은데가 있니?!...》

이 말을 남기고 봉녀는 말없이 물러갔다.

나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에 들었다.

화장은 밤에 언제나 마음놓고 자서는 안된다.

새벽밥이 늦어지면 야단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곤경을 순녀아주머니가 많이 면하게 해주곤 했다. 내가 못 깨어나면 먼저 일어나 쌀을 일고 불도 지펴주었다.

그는 남편이 전선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그래 모두 그를 동정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나는 늦어서야 깨어났다. 역시 순녀아주머니가 먼저 동자질을 하고있었다.

무척 미안했다....

6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물꾸미는 작업이 끝나자 인차 연평바다에 칼치, 조기떼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사업소에서는 전체 배들이 웅진반도 앞바다로 나가라는 지령을 내렸다.

우리는 지체없이 떠났다.

선장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맘때면 제주도 앞바다는 물론 대만해협까지 물고기떼를 맞받아 나가곤 했다고 한다. 거기서부터 우리 나라 서해안을 거쳐 저 중국 료동반도까지 따라가면서 칼치, 조기잡이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 배는 예선이 되어 목선 3척을 이끌고 장산곶 앞바다에 이르렀다. 벌써 신의주, 룡암포, 한천, 남포의 배들이 돛에 한껏 바람을 안고 쓴살같이 남쪽으로 내려가고있었다.

해주 앞바다에 도착하니 벌써 그곳에는 고기배들이 한벌 쪽 깔려있었다.

우리는 웅진부포수산사업소에 들러 물을 보충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쌀과 여러가지 부식물들을 사신는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장에 갔던 봉녀와 순녀아주머니가 듣고 온 소식은 매우 불길한것이였다. 이맘때면 늘 있는 우리 어선들에 대한 적들의 랍치소식이였다.

웅진배가 한척 끌려갔다는것이였다. 선장이 껍하고 한마디했다.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누만. 내 그놈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들뼉을 분질러놓구말겠어. 시라소니같이 놈들에게 끌려다닌다는게 말이나 돼?》 그의 기상을 보니 불안하던 가슴이 좀 진정이 됐다.

우리 배는 연승과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떼를 따라나갔다.

연승은 해볼만 하다. 낚시를 문 칼치가 물밑 한 20 미터 깊이에서부터 번쩍번쩍하면서 끌려올라오는것을 볼 때면 정말 사기가 부쩍 오르곤 한다.

칼치, 조기는 배에 끌어올릴때가 기술이다. 칼치를 물밖으로 끌어올려 배전을 넘기는 순간에 쇠갈구리끝으로 낚시를 문 주둥이를 정확히 쳐서 낚시가 저절로 빠지면서 당기던 속도로 칼치만 배전에 떨어지게 해야 한다. 몇백개의 낚시들이 10여기가 넘는 구간에 늘어져있는데 연방 걸려올라오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서 낚시를 뽑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작업을 숨쉴있게 해야 당시로서는 연승급수 4급을 주었다. 어로공급수는 6급이 최고였는데 6급에 돼야 어로장이 될 자격을 가진다.

들물썰물때를 맞추어 어로전을 벌리다나니 밤엔 방등을 여러개 켜고 물고기를 잡았다. 밤엔 좀 무시무시했다.

옆에 배들도 보이지 않고 새까만 바다엔 물결 소리만 처절씩 울린다.

칼치, 조기잡이 3일만에 웅진반도에 들어와 물고기를 하선하고 새벽물때를 맞추어 다시 출하했다.

바다엔 안개가 뽕얇게 끼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분계선이 가까운데다가 안개까지 자욱하니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이런 때 불쑥 적선이 나타날것만 같아 불안감이 갈마들었다. 옆의 배들도 멀리 나갔는지 아니면 부두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바다는 조용했다.

우리는 모두 갑판에 앉아서 그물과 연승광주리를 손질하고있었다.

이때 낚선 배 한척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무리하게 우리 배에 충격을 주며 배전을 갖다뒀다.

배가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우리는 몹시 놀랐다.

《배가 상할줄도 몰라? 어디서 이런 무지한...》

선장이 짹 소리쳤다.

붉은 모자를 제껴쓴 우리 호랑이선장이 소리치는데도 웬일인지 그 배는 끄떡도 안했다. 우리는 이상한 눈길로 그 배를 넘겨다보았다.

순간 가슴이 섬찝했다. 피상한 복장을 한 낚선놈들이 보였다. 노랑대가리에 쪽도리모자를 비딱하게 쓴 놈이 뭐라고 허꼬부라진 소리를 켜지르자 한놈이 우리 배로 다가서면서 수작을 걸었다.

《물고기 많이 잡았는가?》

귀에 선 말씨, 뻗뻗한 말투...

(요즘 흥흥한 소문이 돌더니 드디어 그런 일이 우리 배에 닥쳤구나!)

심장이 멎는듯 했다.

그자는 계속 소리를 쳐댔다.

《물고기 많은데로 끌어다주지. 연평바다말야!》

《원 개떡같은 소리야? 우린 안간다!》

선장의 우락부락한 호령소리였다.

그 목소리에 조금 숨이 나가는듯 했다.

《우린 안가요. 어서 제갈대로 가거나 하라요!》

너자들도 소리쳤다.

《말을 안듣겠다? 그럼 한방씩 맞봐야 알겠어?》

키작다리가 바지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우리가 주춤하자 한놈이 바줄을 던져 우리 배의 이물에 있는 건인말뚝에 철썩하고 걸었다.

봉녀가 달려가 바줄을 벗기려 하자 그놈은 권총을 쏘아들고 소리쳤다.

《꼭짜말구 그 자리에 앉아있어. 천당에 가기전에...》

그때 선장이 나섰다.

《이거 무슨 도깨비놈들이야. 썩 물러가지 못해?》

그러자 그놈이 위협사격을 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선장의 바로 발앞에서 나무쪼각이 튀었다.

선장은 너무 놀라 쩡충 뛰었다. 놈은 연거퍼 또 한방 갈겼다. 선장은 다시 한번 쩡충 뛰면서

조타실로 뛰어들어갔다.

우리 배는 어느사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녀자들이 배를 끌어가지 말라고 고함을 치자 《조용하라!》하는 그놈의 호통소리와 함께 탕- 하는 세번째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선장실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깜짝 놀라 선장실을 보니 선장이 왼팔을 감싸쥐며 조타실에 쓰러지는것이 보였다.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호랑이같은 바다사나이가 쓰러졌으니 우리 배는 엉악없이 끌려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바다엔 안개가 짙어 옆의 배는 보이지도 않았다. 구원은커녕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게 됐구나 하는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다.

배는 점점 더 빨리 움직였다.

그때였다.

《땅!》하는 야무진 총소리기 울렸다. 어디서 난 총소린가 하여 앞을 보니 우리 배의 이물에 앉아 땀광스럽게 놀던 그놈이 단말마적인 피상한 소리를 지르며 두팔을 벌리고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나가 떨어졌다.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 앞으로 최주선이 총구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을 들고 떨어지듯 굴러내려왔다. 그리고는 이물로 번개처럼 달려가더니 바줄을 벗겨 바다에 뿌려던졌다.

그러자 적함에서 짹-짹- 하는 요란스러운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배머리를 돌려 다시 우리 배로 육박해왔다. 놈들은 이번엔 닻처럼 생긴 갈구리를 던져 우리 배전에 걸었다. 그리고 자동총을 든 놈이 배머리에 접근 못하게 몰사격을 해댔다.

미군병정놈이 사격을 지휘하며 악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이젠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배 전원은 선장실뒤에 숨어서 머리도 내밀지 못했다. 최주선도 엎드려있었다. 그러더니 순간 몸을 획 일으켜 앞으로 내달렸다. 놈들의 사격이 그에게 집중 되었다. 달려가던 그가 폭꺼꾸러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버쩍 고개를 솟구더니 총을 쏘아들고 총을 란사하던 적병을 단방에 싸갈겼다.

그놈은 행복하듯 두손을 추켜들고 바다에 공중제비로 나가떨어졌다.

최주선은 우리쪽을 향해 《도끼!》하고 소리쳤다. 이때 적함에서는 다른 놈이 나서서 자동총을 미친듯이 휘둘러댔다.

누구도 고개를 들수 없는 정황이었다. 사격은 점점 더 세차게 들썩워졌다. 최주선은 다시 우리쪽을 향해 《도끼! 도끼!》하고 연거퍼 소리쳤다.

도끼는 내가 일하는 밭가마옆에 있었다. 내가 뒤를 돌아보려 고개를 드는 순간 총알이 뿡뿡하고 고막을 찢을듯 귀청을 울리며 날아지났다. 나는 기겁해서 배전에 고개를 틀어박았다. 도저히 오금이 저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총알은 편속기관실뚜껑에 구멍을 내며 날아와 박혔다. 고개

조차 들수 없는 형편에 몸을 일으킨다면 순간에 벌등지가 되고말것이었다.

최주선이 다급한 소리로 또 도끼를 찾았다. 그는 도저히 몸을 일으킬수 없는 몸이고 또 그는 도끼있는 곳도 알수 없었다. 그러니 내가 일어서야겠으나 온몸이 굳어져 도저히 일어설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봉녀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도끼를 찾아쥐고 최주선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최주선은 손을 뻗쳐 봉녀에게서 도끼를 앗아쥐었다. 다음 몸을 일으키더니 무릎걸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갈구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도끼로 바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적의 사격은 더 맹렬해졌다.

너가 달려가 그를 안아일으키려는듯 하더니 적탄에 맞았는지 그도 고개를 푹 떨구며 쓰러졌다.

최주선은 다시 고개를 들더니 적선을 향해 총을 쏘아들었다. 적선은 최주선이 무서워 다가설념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싸이렌소리가 울리더니 인민군어뢰정들이 우리 배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적선은 안개속에 녹아버리듯 사라져버렸다.

아군함정이 그쪽으로 추격해나갔다.

우리는 구렁이나 천둥이 두사람이 쓰러져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최주선은 사격자세를 취한채 굳어져있었고 봉녀는 최주선쪽으로 두손을 내뻗친채로 숨져 있었다.

순녀아주머니가 먼저 봉녀를 붙들고 통곡을 했다. 봉녀는 입을 꼭 다물고있었는데 어찌보면 웃고있는것 같았다.

어로장이 최주선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선장이 꺼매진 얼굴색으로 왼팔을 부여잡은채 비칠거리며 다가왔다. 대충 형경으로 싸맨 왼팔의 소매는 온통 피로 얼룩져있었다.

순녀아주머니가 최주선의 다리를 어루쓸다가 놀란 소리를 쳤다.

《아니, 이 사람 다리가 왜 이래요?!》

바지를 걷어올리던 그의 손이 푹 멎었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자 의족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는 우리모두의 얼굴은 굳어졌다.

《영예군인?》

너무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네가 의족한 영예군인이었던 말인가? 이 사람아, 그런것두 모르구...》

선장이 의족을 살펴보며 성한 팔로 자기가슴을 두드렸다.

의족으로 선흥색피가 방울져내리고있었다.

《형님!》 하고 나는 의족을 쓸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최주선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무도 통분한 일이었다. 이런 사람을 오해하다니...

먼저 순녀아주머니가 봉녀를 안아다 갑판에 눕혔다. 나와 어로장이 최주선을 둘러고 하는데 선장이 우리를 밀어내더니 자기가 가슴에 끌어안고

갑판으로 날라다 봉녀옆에 가지런히 눕혔다.

그때 당위원장과 지배인이 우리 배에 올랐다.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러 이곳에 나와있는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소식을 듣고 올줄은 몰랐다. 멀리서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다는것이다.

당위원장이 최주선을 보더니 믿어지지 않는듯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설분을 터뜨렸다.

《주선동무, 일어나요. 응... 어찌된 일ियो? 어서 눈을 뜨오. 어서... 주선이, 하루밤에 120 리를 걷던 사람이 이렇게 맥없이 누워있단 말ियो. 주선이!》

그는 자는 사람을 흔들어깨우려는듯 어깨를 부여 잡고 흔들었다.

일마후에야 당위원장은 일어나앉았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리없는 영예군인을 사업소에 받아들였으니, 바로 이 당위원장이라는 내가말ियो. ... 글썽 하루는 내 사무실로 주선동무가 찾아오질 않았겠소. 나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한참이나 말을 못했지요. 그저 나를 보구싶어서 왔는가구 했더니 아니 사업소에 입직하러 왔다는게 아니겠소. 료양소에나 있을 동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구 했더니 쓰러진 전우들 생각이 나서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겠다는게 아니겠소. 사수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총을 잡게 해달라는것이였지요. 안된다구 거절하자 전우의 청도 심정도 모르는 당위원장이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소, 당장 자리를 내놓든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든가 하라구 들이대질 않았소. 그래 내가 하는수 없이 손을 들었지요. 비밀을 철석같이 지키기루 하구말ियो.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 이 원썬을 어떻게 갚는단 말ियो?!》

선장이 고개를 푹 꺾으며 그앞으로 나섰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런것두 모르구 배에서 내리우게 해달라구 제기까지 했으니 죽어 마땅한놈입니다. ... 당위원장동무, 이 주선동무와 봉녀동무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었을겁니다. 적의 화구를 막는다는게 다른것이겠나요. 이런 훌륭한 사람을 몰라보다니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선장은 가슴을 광광 두드렸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두사람을 굽어보며 살아서는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그들이 죽음을 앞둔 그 몇초사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시각 봉녀는 자기가 바라던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를 만났던것이 아니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

우리 배는 그들을 싣고 사업소로 향했다. ...

×

...아들은 내가 말을 마치자 한참이나 창밖을 보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그후 그곳에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나요?》 《갔댔지. 군관학교를 졸업하고말이다. 나는 그들이 희생되던 그 바다에까지 나가 그들

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구 다정하던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는것만 같아 그냥 밤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다에서 한밤을 보냈다.》

《아버지, 그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싶군요.》

《고맙다. 가자, ... 내 나이에 마지막걸음이 될 수도 있다. 네가 가겠다니 난 몹시 기쁘구나. 그들도 무척 기뻐할게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부르며 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 나도 그들처럼 살겠어요!》

삼국동벌의 겨울

리영일

땅에 정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가을을 제일 사랑한다지만
내 고향 삼국동벌 사람들은
겨울을 사랑합니다
별판에 아무리 눈바람이 세차도
일터에 나선 우리 마음은 훈훈하기만 합니다

이 시각도 어버이장군님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 또다시 보고계실듯
추운 겨울에도 삼국동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자신께서 전선길 오고가며 자주 보곤 하셨다고
이름없는 우리들을 온 나라에 내세워주실 때

아, 두볼에 왈각 눈물이 쏟아짐은 무엇때문입니까
사나운 눈보라 휘몰아치는 전선길
낮에도 밤에도 헤치시는 장군님 모습
별가득 하늘가득 어려와서가 아닙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고향 삼국동벌 사람들의 가슴속에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와 보답의 정과 함께

눈오고 찬바람부는 겨울이
그리도 소중한 자리잡은것은

공동시설을 심장에 새기고
어디서나 바쁘니다
눈덮인 포전마다 거름더미 늘어서고
저기 파란 지붕 기계화작업반에선
영농기구 농기계수리정비 전부 끝냈는데
소토작업장에선 오늘계획 삼백이라니
관리위원장의 입가엔 웃음이 떠날줄 모릅니다

우리의 장군님께서 아시는
내 고향 삼국동벌의 겨울
오곡백과 주렁진 올해의 풍요한 가을은
이 겨울날에 벌써 우리의 눈앞에
깊이깊이 머리숙이며 끝없이 설레입니다

한뼉 벌을 가꾸며 살아오는 우리들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받아안은 겨울입니다
전선길 걸으시는 장군님 그리며
생각도 마음도 뜨거워지는 겨울입니다
우리들이 제일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땅의 노래

우 광 복

한해 작황을 한껏 떠올리며
민요처럼 울려가던 땅의 노래는
눈보라에 실려 사라졌는가
들리는건 눈보라의 아우성소리만 있는듯싶구나
보이는건 백설의 장막만이 있는듯싶구나

그래서 말했던가
땅의 노래는 봄같이 흥겨운 들판에서 울린다고
날알향기 목메이게 풍겨오는 하늘가에
두루미의 날음소리에 실려온다고...

허나 잠들지 않았구나
잠들수 없구나 땅의 노래여

한겨울 추위를 쭉쭉 밀어던지며
거름실고 나가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가마에서 익혀낸 떡감처럼 김오르는 거름더미
포전마다 푸짐한 성찬으로 높아지누나

올해는 더 큰 작황을 안아오자고
더 크게 내디딘 밭결음에 밝아온 새날이다

저봐라
돌미산너머 늦잠자던 아침해
이제야 떠오르며 얼굴 붉히누나

땅이 배끓으면 쪽정이 가을이 온다고
선동원 참순이의 진정배인 목소리
들에 터놓는 노래소리 야닌가
날마다 읊에서 진거름 싣고오던
열일곱 옥이의 뜨거운 웃음에
새벽추위도 뒤걸음치누나

말하지 말자 땅의 노래는
민들레꽃피는 봄날에만 울린다고
거름싣고 달리는 트랙터의 우렁찬 동음소리
잠든 땅을 깨우는 노래가 아니냐
거름흙 싣고 나오는 누렁소들의 영각소리
민요처럼 아름다운 땅의 노래가 아니냐

우리 장군님 선군으로 펼쳐주신 땅에
눈내리는 계절이라 우리 노래 잠들수 있으랴
계절이 따로없는 장군님의 선군길에
끝없이 따라서는 고향땅의 노래여

눈보라 이겨가는 뜨거운 땀이 없이
풍요한 가을을 어이 바라라
오늘의 노래속에 오리라
종다리 우짖는 아지랑이의 노래
농악소리 흥겨운 가을날의 노래

선군승리의 령마루우에
강성부흥의 교성곡으로 울려갈 농민의 노래
오, 눈보라를 밀어내는
계절이 없는 고향땅의 노래여

봄 빛

김창호

완연하다 봄빛!
산에 들엔 눈, 흰눈이 덮였어도
내 고향 미루벌은
파아랴다- 밀, 보리

계절은 분명 계절은
산천도 서리 뽑는 대소한절기
어인 일이나
자연의 계절 먼저
이 땅우에 태동하는 봄기운은

포전마다 문문 김오르는 거름더미
지난해 몇곶은 실히 되게 쌓였어도
뛰고 달리는 승벽도 극성이구나
전투 앞둔 병사들 무기소재 여념없듯
작업반마당에선
공동사설 받들고
보습이며 파종기 닦고 쓰는 모습
간간도 하구나

오호라
계절따라 오는 봄은 이제 겨우
고달령마루에 머뭇머뭇 땀도는데
농사의 봄계절은 벌써
일손에 발걸음에 불을 달며
가을을 부르며 벌에 왔구나

봄, 미루벌의 봄
물이 없어 척박하여

한뼘 버림받던 한이 이름이 된 미루벌
로동당시대의 개척지로 꾸리자시며
우리 수령님 안아오신 봄빛으로
농사의 첫봄을 맞더니

이젠 아주 봄맞이선구자가 되었구나
늘 미루벌을 생각한다시며
위대한 장군님 찾고찾으시던 그 자욱 따라
봄빛이 오고
봄시위 터치는것 아니더냐
위대한 수령님 사랑으로 흐르는 물길우에
영원한 자연흐름식물길 덧이어주시며
선군시대 봄노래 남먼저 울려주시는
아버이장군님

아, 계절따라 오는 봄이라면
이리도 눈길 끌지 않으리
강남갔던 체비가 돌아오던
3월의 봄맞이 옛말로 전하며
정이월에 오는 봄
풍요한 가을이 절을 하며 마중오는
선군세월이 펼쳐는 이 봄빛

위대한 수령님 펼쳐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로 찬연한 봄
우리 장군님 선군길 따라
무릉도원 선경을 펼치며 한껏 무르녹아
더더욱 완연하구나
내 고향 미루벌의 봄빛이여

담담한 정서속에 메아리치는 필승의 찬가

-장시 《45분》을 평함-

천명길

문학작품은 웨침소리가 높지 않다고 하여 내용이 충실치 못한것이 아니며 감흥이 적은것은 더더욱 아니다.

깊은 정서속에서 울리는 시대의 노래, 승리의 찬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드는가를 우리는 주체95(2006)년 제10차 《조선문학》축전상을 받은 장시 《45분》(윤정길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5(2006)년 11호)을 놓고 이야기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감정의 흐름을 라고 정서적으로 밝혀지는 사상만이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다.》

시문학의 정서적감화력은 고상한 사상감정이 짙은 정서로 안받침될 때 생겨날수 있다. 정서적 깊이가 없으면 시문학의 생명인 서정성도 살필수 없다. 그것은 서정이 생활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장시 《45분》에서는 시문학의 특성에 맞게 짙은 정서를 보장하면서 우리 시대의 적극적인 사상감정을 특색있게 노래한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45분》!

제목부터가 너무나도 소박하다. 머리를 쳐들고 제노라 할줄 모르는 숫저운 마음을 보는듯싶고 순박한 시인의 얼굴인듯싶다.

흰구름 감도는 무봉기슭에
내 섰노라
이 땅의 한끝
하늘아래 첫 동네
무봉마을의 작은 교정이어

랑랑히 울리는 종소리
아이들 글읽는 소리 ...
철령을 넘어 오성산을 지나
장군님의 전선길 거룩한 자욱은
이 교문에도 이어졌나니

내 그 자욱 따라서
높은 산발 험한 령도 넘어왔건만
교정의 이 작은 층계는
교실의 이 낮은 문턱은

쉽게 올라설수 없구나
선뜻 넘어설수 없구나

...

작품의 첫 시작도 샘솟아 흐르기 시작하는 내물처럼 담당한 양상을 띠고 감정정서적흐름의 발단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내포하고있는 시적감정은 결코 잔잔한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혁명의 장래를 좌우하는것이 바로 교육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그토록 크나큰 사랑과 관심을돌려주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길을 걸으시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후대교육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문학에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성과를 보지 못하고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속에서 새로운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교육주체의 작품을 들고나선 그것부터가 고무받을만 한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거대한 의의를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간직하고계시였기에 전선길에 새겨가시던 령장의 자욱을 아이들의 작은 교정에도 새기신것이다.

그 숭고하고 심원한 뜻을 가슴속에 안아보는 시인이 어떻게 교정의 층계를 쉽게 오를수 있고 교실의 문턱을 쉽게 넘어설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용용히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시인은 그냥 터쳐올린것이 아니라 교정을 찾으시였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영상을 그려보면서 애써 참아누르고 감정을 전개해나간다. 그것은 독자들의 감정심리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의도에 의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

빛발치는 해살을 안고 교문에 들어서니
전선길에 쌓인 피로 푸실새없이
서둘러 교정에 들어서시던 모습
이 아침에도 뵈울듯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정겹게 보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거라고
환히 웃으시던 미소

저 밝은 창문마다 비끼인듯
...

결코 소리쳐 격조높이 웨치거나 그루를 박아
강조하려 하지 않았어도 시인의 감정정서는 사람
들의 가슴속에 햇숨에 물스미듯 젖어든다.

얼마나 준엄한 때 얼마나 험한 길을 걸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이들의 교정을 찾아주신
것인가. 《아이들의 책상우에 허리 굽히시고/ 한
장한장 학습장을 번져보실 때/ 책상가에 스치던
장군님옷자락/ 이슬젖어 축축하던 야전복자락》
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있다.

《가셔야 할 전선길은 분초를 다투건만》 1분
이라도, 아니 1초라도 더 아이들과 함께 있고싶
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정서
적묘사는 얼마나 가슴뜨겁게 하는것인가.

할 일이 너무도 많으시여, 해야 할 일이 너무
도 중하시여 늘 시간이 모자라하시는 우리 장군
님이다.

《시간이 얼마나 귀하셨으면/ 식사하시는 습관
도 야전식/ 리발까지도 야전리발...》 야전식생활
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래일을
떠날을 후대들을 위해 최고사령관의 전선시간,
최고사령부의 작전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신것이
다. 여기에 장시가 담당한 정서속에서도 사람들
의 마음을 틀어잡을수 있는 정서적이면서도 극적
인 견인력이 있다.

...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
붉은 화살표를 그어가실 때에도
장군님심중엔 그 45분이 안겨있어라
미츠러운 령길 야전차 밀며 오르실 때에도
장군님의 야전차엔 그 45분이 실려있었더라

적의 총구가 육안에도 보이는
최전방 야전지휘소에만
최고사령관의 작전시간이 흐르지 않아라
강위력한 군력을 펼쳐가는
멸적의 총포신우에만
위대한 선군시간이 흐르지 않아라

이 땅에 이어지고 이어지는
행복넘친 배움의 세월이 그대로
미래를 위해 베푸신
장군님의 전선시간인것을!
최고사령관의 작전시간인것을!

...

그렇다. 행복넘친 이 땅에 흐르는 배움의 시간

과 시간들은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온갖 뉘를 바치시며 마련해주신것이다.

하여 시인은 더는 누를수 없는 걱정을 안고
절절한 서정을 토로하였다.

무봉이여 말하라
너의 기슭에 새겨진 령장의 시간
배움의 시간과 시간들은
총검이 서리뿜는 최전선에서
야전복자락에 싸안으시여
장군님 가져다주신것 아니더냐

무봉이여 말하라
너의 기슭 이 교정에 우리 장군님
선군장정의 한구간을 새기시며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사멸하지 않으셨더냐
찬란한 래일의 아침해를
45분 그 시간에 들어올리지 않으셨더냐

...

시인은 궁지에 넘쳐, 확신에 넘쳐 선군혁명시
대는 오늘만이 아닌 래일을 훌륭히 가꾼 그때문
에 더더욱 위대한 시대로 빛나는것이며 미래가
밝기에 조선은 오늘에 승리를 떨치듯 래일에도
영원히 필승하리라는 시적사상을 힘있게 천명하
고있다.

이때 벌써 그 걱정은 공허한 울림소리로 들리
지 않는다. 그것은 참신한 시적세부들과 대조적
인 생활표상들, 인상깊은 감정적굴절 등을 통하
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만 한 충분한 전
제를 바탕으로 시적일반화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스럽게 승화된 사상감정인것으로 하여 부인 못할
진리의 메아리로 울리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시라고 하면 벽찬 생활내용을 담
고 폭넓게 형상하는 특성으로 하여 흔히 소리
높이 웨치면서 시인의 사상감정을 토로하는 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경우에 그것은 짧게 쓸수
없는것을 길게 써야 할 필요로부터 장시가 있다
는 견해에 의하여 《리해》를 얻곤 한다.

그러나 장시 《45분》은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주고 우리의 시문학을 더욱 다채롭게 할수
있는 시사를 제기하였다고 본다.

장시도 서정시인것만큼 서정적인 특성을 강하
게 가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정서적인 특성을
잃고 격하고 폭넓은 주정을 장시의 주되는 특성
으로 여긴다면 서정성을 생명으로, 기본특성으로
하는 서정시의 본태를 충분히 살릴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서정은 정서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장시 《45분》은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운율조성과 감정조직에서도 작품은 내용에 맞게 감칠맛있으면서도 조화로운 굴곡을 보장하여 독자들의 심리를 용의주도하게 움직여나가는 묘기를 보이고 있다.

작품에서 취급한 내용은 결코 깜짝 놀랄만큼 기이한것이 아니지만 독자들이 받아안은 공감력은 스스로도 놀랄만큼 큰것이다. 누구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것에서 의미심장한것을 무리없이 이끌어내는 그것이 시인의 능력에서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

답답한 정서속에 잠겨들었던 독자들은 그속에서 메아리치는 필승의 찬가를 듣고 스스로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흥분감과 자부감을 느끼게 되

는것이다.

우리 조국에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깃든 정서적 의미를 안다고 해도 다는 모르고있는것이 우리들이다.

더우기 그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의 필승을 증명해주는것임을 생활적으로 정서깊이 깨닫게 하여준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미학적가치가 있다.

답답한 정서속에 메아리치는 필승의 진리를 담은것으로 하여 장시 《45분》은 시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교육문제를 노래한 작품으로서뿐만아니라 선군시대 우리 조국,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한 작품으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아들아, 너 지켜선 그 자리는

김춘호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저도 몰래

포근한 이불 덮고 너 단잠들던

그 자리를 살피게 되고

하루 세끼 밥술을 들 때에도

버릇처럼

등근밥상을 마주하고 너 앉았던

그 자리로 눈길이 가는 어머니의 이 마음

지금은 비어있는

그 자리를 두고 생각은 깊어지는구나

초소의 내 아들이

너 이 시각 그 어느 자리에 가있느냐

아득한 산마루 찬바람 세찬 보초소나

파도치는 바다기슭

비내리는 산정의 전호가나

그 자리가 어데이든

너 영예로이 지키리라 그 내 믿노니

너야말로 수호자로 생을 빛내자고

그 자리를 택한 병사가 아니더냐

너 즐거이 노래하던

너의 모교 너의 그 자리에서

지금은 너의 동생이

쟁쟁한 목소리로 우리 글을 읽고있다

너 기쁨에 덩굴며 뛰놀던

고향 잔디밭 그 자리에서

지금은 너의 누이가

꼬마들에게 나비춤을 배워주고있다

정말로 소중하고 정다운

그 모든 행복의 자리들을 지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가 서있는 초병의 자리

그 자리는 넓지 않아도

크나큰 조국의 안녕이 시작되고

집집의 부모형제 그윽한 눈빛들이

믿음안고 쳐다보는 영예의 높은 자리

그래서 불소나기 쏟아져도

비켜설수 없고

버리고 물러설수도 더욱 없는

병사의 목숨같은 그 자리

지켜내면 고향이 두팔 벌려 맞아주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치욕의 나락속에 영영 묻혀

돌아와 안길 고향도 없으리라

없으리라 다시 돌아와 마주했을

정든집 등근 밥상앞의 그 자리도

저녁마다 어머니가 이불을 펴주던

따스한 잠자리도 더는 없으리라

오, 그래서

순간도 총검의 빛 흐리지 않고

방아쇠의 손가락 풀지 않을 내 아들이

어머니는 너를 믿는다

어머니조국이 또한 너를 믿는다!

바뀌어진 주인공

김동호

내가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자들에 대한 작품을 쓰려고 언제건설장에 도착한것은 해질무렵이었다.

한겨울의 모진 추위는 가뭇없이 가셔지고 며칠째 잠퐁한 날씨가 계속되며 봄기운이 완연했으나 아직도 음달이 진 산락에는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었다.

건설장은 예나 다름없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 있었다.

눈뿌리가 시도록 성벽처럼 아찔하게 쌓아올라간 언제우로 버력을 만재한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달리었고 부리워놓은 버력을 불도젤들이 끌고루 떠나갔다. 그우로 집채같이 육중한 흙다짐기들이 읊술쉴쉴 굴러갔다. 맞은편 산락에서는 산을 들었다놓을듯이 련달아 발파가 일었다.

실로 가슴이 부풀고 심장이 켜다.

이때였다.

지척에서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려 그쪽을 돌아보았다.

길세가 험한 먼길을 달려온듯 자동차바퀴짚에 눈이 엉켜붙어있었다.

이윽고 차가 멎어서기 바쁘게 머리에 희끗희끗 흰서리가 내린 뚱뚱한 할머니가 운전칸에서 내리었다.

풀재장에서 드바빠 일손을 다그치던 두세명의 애젊은 처녀총각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며 반긴다.

《어머니, 또 오셨군요.》 그가 바로 언제인가 《강원일보》에서 본 기사 《청춘에 사는 녀성지배인》인 문천식료공장 지배인 한원덕이라는것을 알고 내심 기뻐다. 그를 한번 꼭 만나보고싶어서였다.

그래서 그날 밤 언제건설장 휴게실에서 그와 마주앉아 그가 걸어온 인생길에 대해 눈물겨웁게 들었다.

《제가 어지간히 나이는 들어어두 걸음걸이나 정력은 젊은이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방금전에 생각했던것두 잊기가 일쑤인데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이야기할테니 작가선생이 리해하시구 들어주십시오. 하기야 누구한테서나 들을수 있는 생활인데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주집머슴살이를 해오면서도 일단 마음먹은 일은 매를 맞으면서도 죽으나사나 해내군 했지요. 가난과 멸시가 나를 그렇게 거칠고 세찬 처녀애로 만들었는가 봅니다.》

그 한마디에서도 그의 성미와 기질이 대번에 느껴지였다.

《지난해 여름 어느날이었습니다. 퇴근시간이 퍼그나 지났는데 시당책임비서동지가 찾는데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시당청사로 걸음을 옮기였습니다. 무슨 일로 찾을가? 무슨 파업을 주자는것일가? 이런 생각에 문힌채 책임비서방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렸소. 어서 앉으시오.》

반색하며 손을 잡아주는 책임비서와 마주앉았습니다.》

문천식료공장 지배인 한원덕은 그때 있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시당책임비서의 책상우에는 조선인민군우편함 대호로 보낸 편지봉투가 놓여있었다.

속지를 꺼내서 읽고난 그는 정다운 눈길로 한원덕지배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지배인동문 오늘까지 시당위원회에서 주는 그 어떤 임무도 다 수행해왔지요. 식료공장지배인사업을 맡은 지난 30여년간 매해 계획을 초과수행해왔었구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탁아유치원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매일 먹였구. 그래서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나 받지 않았습니까.》

한원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비하면 자기가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다고 생각되어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여러명 데려다가 키웠구. 그래서 군대와 사회에 나간 아이들이 지배인동무의 신상을 걱정해서 내한테도 자주 편지를 보내오군 합니다.》

책임비서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편지를 더듬어 보며 뒤를 이어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임무를 맡기자는겁니다.》

《그 어떤 임무든지 어김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수행하겠다- 지배인동무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벅찰수 있는데 그래도 해낼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지시 않았습니까. 그 어떤 어려운 임무도 다 수행해왔따구...》

《좋소. 그럼 믿겠습니다.》

이윽고 그는 책상앞에 다가가서 가운데서랍을 열고 수첩장에 끼워놓은 하얀 봉투를 꺼내었다.

《그럼 정식으로 임무를 주겠습니다. 지배인동무가 동해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송단에 갔다 와야겠습니다.》

한원덕은 의아히 그를 쳐다보며 동해안에만 있는 특수어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가 하고 마음을 썼다.

《송단말입니다. 거기에는 송단휴양소밖에 없구 수산사업소는 읍에 있습니다. 수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그 지대를 그렇게 잘 압니까?》
《60년대에 제가 송단휴양권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일에 몰려 중시 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경치 좋은 휴양소라고 합니다.》

《그처럼 유명한 휴양소에 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일생에 단 한번의 기회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할수 없지요. 그런데 무슨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그저 갔다 오면 됩니다. 세면도구나 가지구... 거기동무들이 다 준비해왔으니까...》

《...》

한원덕은 도무지 가슴이 가지 않았다.

책임비서가 일에만 몰혀 휴식도 건강도 도무지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에게 《특수임무》를 주려고 한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자, 받으십시오. 휴양권입니다. 송단휴양소에 가서 꼭 휴식하십시오. 그저 휴식하기가 갑갑하면 걸어온 인생을 수기형식으로 써보십시오. 아마 그 글을 신문이나 잡지에다 실으면 인기가 있을겁니다. 얼마든지 잘 써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준비할게 없으니 래일 떠나십시오.》

책임비서는 휴양권을 내밀며 통쉬인 그러나 진정이 꼭 담긴 어조로 말했다.

한원덕은 마지못해 받아쥐었다. 눈급이 찌르르 해났다. 책임비서의 뜨거운 진정이 가슴에 젖어 들었던것이다.

《책임비서동진 저를 잘 아시면서두...》

한원덕은 눈물에 재웠다 난 목소리로 뜨적거리었다.

《잘 알기때문에 미리 약속을 단단히 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을 때까지 밤낮을 이어대두 끝이 없는 제일이 아닙니까. 어서 떠나십시오. 래일 첫차루...》

책임비서가 먼저 일어나서 문밖에까지 따라나와 그를 바래주었다.

한원덕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집집의 창문들에서 하나 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한원덕은 멀리 흘러간 인생길을 꿈속에서처럼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문득 망망한 바다가 펼쳐지었다. 검은 구름이 통채로 내려앉은듯싶던 어두운 밤바다, 세찬 파도 그 위에 실린 돛배, 아 나의 운명을 실은 돛배!

돛배는 산악같이 덮쳐드는 파도를 헤치며 인생의 부두를 향해 역세계 가고있었다.

유 년 시 절

모진 세상은 한원덕이 서있을 한치의 땅도 내어주지 못했다. 그의 유년시절은 피눈물속에서 숨가빠 흘러가고있었다.

《처녀애가 남달리 덩치는 커가지구 이 에미 속을 그렇게 태우느냐. 옷 한벌 짓자 해도 천이 한

자나 더 들지. 그 큰 배를 채울 한끼 쌀이 있길 한가...》

어머니는 남달리 몸집이 우람하고 복스럽게 생긴 딸을 대견해하면서도 가난이 집안을 개미허리처럼 조여매고있어 때로 이런 푸념으로 눈물짓곤 했었다.

한원덕은 여섯살때부터 지주집 부엌데기노릇을 했고 여덟살에 잡히자 소를 끌고 사내애들을 따라 산밭을 타며 풀을 먹이였었다.

사내애들이 소를 타고 다니는걸 부러워하던 한원덕은 너자라고 소를 못탄다는 법이 어데 있을가싶어 마음을 다잡고 몰래 소잔등에 올라타려다가 몇번씩이나 굴러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더벅머리총각애들이 코웃음치며 배를 끌어안고 돌아갔다.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려 한다더니 저 똥보가 깃도 돌기 전에 날자고 저 모양이야.》

그 말이 한원덕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였으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외딴 골짜기에 가서 밤늦도록 소타는 법을 익히였었다.

그 며칠후 해질무렵이었다. 그도 사내애들처럼 소고삐를 잡고 소잔등위에 보란듯이 앉아 노래를 불렀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

이때였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던 지주집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미친듯이 소리질렀다.

《이 계집애, 당장 내려. 소가 살이 내려. 너보고 소를 배불리 먹이라고 했지 소잔등에 올라타라고 했어. 미친년같은게...》

그 말에 울화가 정수리까지 뻗쳐오른 한원덕은 소잔등에서 험큼 뛰어내리는 서슬에 지주아들놈의 가슴팍을 냅다 떠박질렀다. 찰나 그 애가 뒤로 자빠지며 책가방을 바위에다 짓조았다. 쟁강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에서 휘뿌연 물이 솟새어나왔다. 우유병이 박살났던것이다.

지주아들애는 학교에 오갈 때마다 매일 우유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마시곤 했었다.

그날 밤 지주년놈이 아들놈을 앞세우고 한원덕의 집에 찾아와서 우유값을 내라고 생야단질을 하다못해 박살낸 병값까지 합쳐 몰라고 미친듯이 으르렁대었다.

우유라는 말조차 처음 들어보는 나어린 소녀애의 가슴에 《우유값》이라는 창살이 무자비하게 들이박히였고 그것이 인생의 첫걸음마를 뎌 그의 운명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리라고는 그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돌우에서 피운 《꽃》

80년대말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던 이른봄 어느날이었다.

문천식료공장 지배인으로 부임된 한원덕의 생 각은 깊어졌다.

여기가 내 인생의 《중착역》인가. 그사이 얼마나 많은 《역》들을 거쳐왔던가.

전쟁로병인 남편이 전후 50년대에 원산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김책시 트랙트르농기계작업소 기사로 배치되자 그를 따라 김책시 학송리에 이사를 가서 가두세포위원장(당시)을 했고 그후 남편이 재령군으로 소환되자 따라가서 련이어 일용품 공장, 종이공장, 화학공장 지배인을 했었다.

드바빠 지내야 했던 그 나날에도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해방이 되자 한원덕은 고향에서 고종까지 졸업했었다.

조상대대로 뿌리내린 고향땅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겪었고 전후에 전선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과 결혼하였으며 한배를 탄 그들은 《인생의 노》를 저어가며 사랑의 꽃을 피웠었다.

고향땅인 문천시에서 그는 장공장지배인사업을 맡아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10여년간 장공장을 훌륭하게 꾸려놓고 오늘은 규모가 몇배나 더 큰 식료공장을 아담하게 일떠세웠다.

처음 이 공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많은 일감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당면하게는 건물도 크게 새로 지어야 했고 원료기지도 조성해야 했던것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우는소리만 해서야 되겠는가. 누가 자재를 가져다줄 사람도 없었다. 더더욱 우에다 손을 내밀수도 없었다.

하나에서 열, 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야만 했다.

우선 낡은 건물을 밀어내고 고층으로 된 웅장화려한 공장을 일떠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하여 불과 몇해사이에 공장을 일떠세웠고 이어 자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떨쳐나섰다.

원료기지로 정한 곳의 땅은 풀뿌리와 잡관목이 무성한데다 땅을 파보니 흙 한삽에 돌이 절반이였다. 게다가 공장에서 수십리나 떨어져있었다.

이런 땅을 한두정보도 아니고 수십여정보나 개간한다는것은 공장의 노력만으로 하기에는 매우 간고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지배인이 일론 결심을 내리지 못해하자 일부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속에서 구구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지배인동지, 녀성로동자가 많은데다가 생산로력을 빼고나면 30 명 되나마나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방대한 부지를 개간하겠습니까?》

《농장들에 비경지가 더러 있겠는데 그들과 토론해서 그걸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 많은 돌과 바위를 무슨 수로 들어내겠습니까.》

한원덕지배인의 생각은 깊어지였다.

지금은 농장들에 비경지가 있다 해도 그것이 종당에는 알곡작물을 생산하는 밭으로 전환될것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새땅을 찾아내여 원료기지로 해야 한다.

그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였다.

즉시 작업조를 무어가지고 새땅을 일쿠기 시작했다. 수십톤에 달하는 막돌을 취내고 바위들을 들어냈으며 풀뿌리와 나무등걸을 뽑아냈다. 한편으로는 두엄을 생산하여 무지무지 쌓아놓았다.

이렇게 한정보, 두정보 원료기지를 개간해나갔다.

새로 개간한 원료기지를 감회깊이 바라보는 한원덕의 눈굽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였다.

시련이 많았지만 모두다 합심해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것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이 가슴 한복판에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이였다. 문제는 일군에게 달려있다.

일군이 마음먹고 앞채를 메고 달릴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그 신념과 배짱이였다.

무슨 일이든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지만 일단 자국을 내디디면 목적지에 가닿는것은 그리 힘들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애로가 한두가지만이 아니였다.

원료기지가 조성되니 또 하나 걸리는것은 전기였다.

이제는 전기만 있으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다.

순간 한원덕의 눈길을 끈것은 새로 개간한 원료기지 발머리에 집채처럼 쌓아놓은 막돌이였다.

최근에만 하여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군대와 사회의 여러곳에 일떠선 중소형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다는 감격적인 소식은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저 막돌을 그냥 내버려둘것이 아니라 하천을 막아 소형발전소를 건설하리라는 불같은 마음이 가슴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소형발전소를 건설해놓으면 원료기지작업반에서 불을 보게 되고 강냉이 1차가공설비도 돌릴수 있을것이였다.

한원덕지배인은 당조직에 제기하여 초급당결정으로 채택한 다음 곧 소형발전소건설에 달라붙었다.

원료기지조성도 거의 끝나가고 발전소 제방공사도 마지막단계에 이른 어느날이였다.

3년째 거의나 현지에 나와서 살다싶이 하다보니 집을 떠나 생활한 날들이 태반이였다.

한원덕은 영예군인인 남편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했고 부모없는 여러명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온 어머니로서 그들을 잘 키울 의무도 지니고 있었지만 노상 집을 떠나있다보니 그 모든 일을 딸과 남편이 대신하고있었다.

며칠전에 남편이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미처 가보지 못했었다. 원료기지와 발전소건설을 완공하고 집에 내려가서 남편과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리라는 일념으로 일에만 못박혀있었던것이다.

작업조원들이 어서 집에 가보라고 그를 떠밀다싶이 했다. 작업조원들은 자기들이 채취한 곰취, 두릅을 비롯한 산나물까지 한배낭 채워주며 막무가내로 등을 떠밀었다.

바로 이때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찾아왔다.

그를 본 한원덕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몸은 좀 어때요?》 《그깟 고뿔이야 이겨내지 못하겠소. 집을 떠난 당신이 고생이지.》

이때 아이들이 한원덕의 손목에 매여달리며 말하였다.

《엄마. 아버지가 앓았어. 밥도 잡숫지 않구. 왜 집에 오시지 않나.》

아이들이 품에 감겨들며 목이 메어 울먹거렸다.

아버지가 앓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수차 다짐을 주었으나 아이들의 철없는 마음만은 가두어둘수 없었던것이다.

《너희들이 보고싶어 이렇게 가려던 참이다.》

한원덕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야- 좋네.》 하고 환성을 질렀다.

《당신이 이렇가봐 내가 찾아온거요. 절대로 집 걱정을 말고 공사를 빨리 끝내기 바라오. 그래야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쿠파유를 생산해서 시내아이들에게 공급할수 있지 않겠소.》

한원덕을 통해 남편인 김용주의 가슴에도 《우유값》 이야기가 모질게 박혀있었던것이였다.

《고마워요.》

그러는 지배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렇하니 맺히는것이였다.

《그러지 마오. 당신이 이처럼 지배인의 사업을 잘해야 내 마음도 기쁠게 아니겠소.》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소형발전소건설을 위한 제방공사가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

어느날 그가 막돌을 등에 지고 재방꼭대기로 톱아오르는데 그만 우에서 망썩같은 돌이 굴러내려 바른쪽뒤다리를 쳤다.

한원덕은 눈앞이 아찔해져 그 자리에 폭 고꾸라지고말았다. 뼈를 어이는듯 한 무서운 아픔이 온몸을 톱질했다. 도저히 일어날수가 없었다.

더는 어쩔수 없어 시병원에 후송되였다. 발뒤축 힘줄이 끊어졌던것이다.

수술을 받은지 두주일째 되는 날이였다.

담당간호원이 한원덕의 집에 장달음쳐 가서 남편에게 지배인이 강짜로 퇴원하잔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일러주었다. 대바람에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가 난생 처음으로 한원덕을 뉘아세웠다.

《당신, 정신있소. 적어도 한달은 더 안정해야 한다구 의사들이 말하는데 제 마음대로 퇴원할 생각을 하다니!...》

그가 이렇게 성내기는 처음이였다.

《여보, 밥을 먹어야 일어나서 걸을수 있을게 아니예요. 병원에선 단 한술갈도 들수가 없군요. 밥상에 공사장만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였다.

도무지 잠들수가 없었고 소태를 씹듯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던 공사장이 지배인이 없으니 성수가 덜난다는 소리를 면회왔던 작업조원이 룡삼아 이야기했다는것이다.

그것이 한원덕의 불붙는 가슴을 더욱 키질했던것이다.

《당신은 늘 내가 지배인사업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원덕은 가볍게 미소지었다.

그를 보는 김용주의 눈굽이 찢릿해졌다.

《당신의 그 마음을 남편이라는 사람도 꺾지 못하는가보우.》

이윽고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차에 오른 한원덕은 그길로 공사장을 찾았다.

종업원들이 달려와 그를 에워쌌다.

쌍지팽이를 짊고 한걸음한걸음 자기들앞으로 다가오는 지배인을 본 모두의 눈시울들이 불깃하게 달아올랐다. 중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그가 완쾌되지 못한 몸으로 다시 건설장에 서려는 그의 억센 모습이 그들의 가슴에 세찬 걱정을 불러주었던것이였다.

《지배인동지, 공사는 넘려하지 마시구 곁에 있어만 주십시오. 지배인동지가 가까이에 있으면 힘이 납니다.》

공사를 책임진 작업조장 박정규의 말에 종업원들 모두가 호응하며 한원덕지배인한테 응석을 부리듯 마구 매달렸다.

《지배인어머니, 약속하시지요, 예?》 하는 애어린 처녀들의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어리광에 찬 애원에 저저마다 슬며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원덕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산을 허물어 강도 막을수 있다는 배심이 든든해졌다.

한원덕은 맞은켄 산락에 새워진 대형구호판을 바라다보았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얼마나 가슴을 치는 구호인가.

《작업조장동무, 날씨가 쌀쌀한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락회를 합시다. 식당에선 특식을 차리구...》

작업조장 박정규의 면밀한 분공이 한순간에 벌어졌다.

제방꼭우에 모닥불이 피여오르고 식당에선 칼도마소리가 높아졌다.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앉은 가운데자리에 한원덕지배인도 보였다.

몇해전까지만도 오락회라면 꿈무늬를 빼던 과자반 장아주머니도 지금은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휴식의 실참과 퇴근후의 한시간은 문화오

락시간이어서 이제는 종업원모두가 한가지이상 악기를 다룰수 있게되었던것이다.

오늘도 역시 파자반장이 먼저 지명되었다.
악자그르 박수가 터지는속에 한원덕의 박수소리가 제일 높았다.

...

저기 산으로 가자 저기 산으로 가자

...

당의 부름이라면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그 어데라도 달려나갈 드높은 결의를 담아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불렀다.

그는 공사장의 분위기에 맞게 2절부터 먼저 불렀다.

...

맑은물 철철 바위돌에 굴러가고
새소리 바람소리 마음에 들려오는
저기 저 산으로 우리 가자

...

그가 목청을 뽑아대자 어깨를 들썩거리던 처녀총각들이 하나, 둘 따라부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합창으로 번져갔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특별히 지명이 필요없었다.

런달아 노래가 울려나오고 출판이 벌어졌다.

이윽해서 출판이 가라앉자 박정규가 목청을 토크어 지배인의 노래를 청하자 모두가 좋아라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원덕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 하자 박정규가 그 앞에 다가서며 그냥 앉아서 불러도 일없다고 만류하였다.

했으나 한원덕은 그러면 안된다고 기어이 일어 서려 하자 젊은이들이 그를 부축해주었다.

《나는 오늘 이 흥겨운 자리에서 노래도 실컷 부르고싶지만 학생시절에 포연서린 복구건설장에 나가 읊던 시 한수를 랑송하겠어요.》

쌍지팡이에 의지하여 심연에서 울려나오는듯한 한원덕의 웅글은 목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쳐 흘렀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타고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어느새 한원덕은 바른손에 잡고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팔을 내뻗치며 더 높은 목소리로 웨치였다.

...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

시가 끝났으나 한원덕은 그 자리에 못박혀 서 있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동무들!》

한원덕의 목소리가 종업원들의 가슴에 불길마냥 날아들었다.

《조선은 이렇게 일떠섰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었구 우리 장군님께서 지켜가시는 조선을 우리는 부강한 강성대국의 나라로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장마철전으로 기어이 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원료기지에 전기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년 10월부터 시내아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먹일수 있습니다. 할수있지요!》

《할수 있습니다.》

하나같은 대답이 골짜기를 들었다놓을듯이 터져나왔다. 이처럼 벅찬 전투를 벌려 수십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했고 소형발전소를 건설해놓았다. 원료기지의 주변농촌지대에는 수유나무와 호두나무, 가래나무와 같은 기름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는 강냉이와 콩을 심었는데 매해 수십여톤의 알곡을 거두어들였다. 뿐만아니라 원료기지 옆에 축산기지도 조성하고 소, 염소, 돼지, 토끼 등 수천여마리의 집짐승을 기르고있으며 매해 많은 량의 도토리를 채취하여 술을 생산하고있다.

곰취, 두릅을 비롯한 산나물도 많이 채취가공하여 문천시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있으며 난알 부산물로는 매해 여러톤의 발효식초도 생산하고 있다.

한원덕은 이처럼 방대한 일판을 벌려놓고도 종업원들의 살림집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동에 수십세대의 아담한 문화주택을 건설해놓았다.

이제 남은것은 콩우유설비를 빨리 갖추어놓는 것이었다.

한원덕은 기술혁신을 벌려 공장설비를 개건하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한 상급일군이 그를 찾아왔다. 그 일군은 긴요치 않은 말을 이것저것 늘어놓던끝에 한원덕에게 조심스레 찾아온 용건을 터놓았다.

《설비부원동무가 지배인사업을 잘 받들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두루 알아보니... 그래서 내 생각엔 그를 다른데로 조동시키면 어떨지 해서...》

한원덕은 놀랐지만 인차 그가 자기를 찾아온 취지를 간파했었다. 그의 말을 범상히 듣고있던 한원덕은 웃으며 진정어린 가슴을 열어보이였다.

《무슨 일이나 새롭게 시작할 때는 주저하는 사

람들도 나타나는 법이 아닙니까.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나가면 성공하기마련이구 일단 성공하면 그들도 자신을 타매하며 머리를 숙이고 찾아옵니다. 설비부원동무도 인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한테 공장설비를 개조하는 문제와 우유가공설비를 맡기려고 합니다. 자식두 여럿이면 애먹이는 자식도 있기마련인데 밋다구 다른데로 보낸다면 제가 무슨 지배인이구 인간이겠습니까. 설비부원이 일에 열성을 내지 못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지배인인 이 한원덕이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몸도 허약한 동무인데 잘 돌봐주면서 손잡고 잘해나가겠습니다.》

그후 한원덕은 공장설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해 주변 공장, 기업소는 물론 강선과 김책 등 전국의 이름난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방조를 받아 자체로 새로운 보이라와 분쇄기, 저장탱크, 원심분리기 등 우유가공설비들을 꾸리었다.

이렇게 하여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매일 시안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했었다.

지난 10여년간 콩우유를 생산공급한 량만 해도 수천톤이나 되었다.

그 과정에 《3대혁명붉은기공장》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오늘은 《2중3대혁명붉은기공장》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

시당청사를 나선 한원덕은 큰길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을 따라 공장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생각할수록 당의 사랑과 은정이 가슴사무치게 젖어든다. 나같은것이 뭐라고 그토록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주는가.

한원덕은 이전날과 마찬가지로 당의 신임과 은정을 받아안을 때마다 그러했던것처럼 이번에도 그것을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무로 받아들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 나는 아직 편안히 쉴 여가가 없어. 산열매가공설비도 새로 꾸려야 하고 콩우유와 파자의 질도 더 높여야 하며 자동화생산설비도 빨

리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원덕의 생각은 또 온통 일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다나니 걸음은 자연 빨라졌다. 어서빨리 공장으로, 정든 일터로 가고픈 마음뿐이었다.

어느덧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원덕은 그길로 초급당부비서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그에게 《휴양권》을 내주며 설비부원을 휴양보내자고 말했다.

《내가 직접 주면 떠나려고 하지 않을수 있으니 부비서동무가 어떻게 하나 떠밀어보내주세요. 그새 일에만 몰려있다나니 휴식을 시키지 못했는데 휴양소에 가서 꼭 쉬고오도록 합시다.》

부비서는 눈곱이 뜨겨워졌다.

아. 이런 지배인과 함께라면 당의 뜻을 받드는 멀고먼 길을 내내 웃으며 갈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다.

《아까 달려온 3명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자래운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군대에 내보냈는데 편지마다 인젠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라는 당부입니다. 책임비서앞으로 보낸 편지도 그런 내용을 담아 보냈을겁니다. 기록한 아이들이지요. 나는 어데 가서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시내에 나가든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우유할머니》하고 품에 감겨드는데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이거 제 이야기만 하다보니 그만 잊었습니다. 발전소건설장에 저희 공장에서 생산한 콩우유를 싣고 왔는데 어떤가 맛이라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작가선생이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우리 콩우유를 잡셨다고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면 모두가 기뻐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마음을 달리었다.

한원덕지배인에 대한 글을 먼저 쓰자!

구름속으로 자맥질해가던 둥근달도 내 마음을 지지해주는듯 가웃이 고개를 내밀었다.

유모아

독특하고 훌륭한 작품을 쓰라

《당신의 원고를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훌륭〉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합니다. 현대 유감이지만 〈훌륭〉한 부분은 독특하지 못하고 〈독특〉한 부분은 〈훌륭〉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류의하여 훌륭하고 독특한 작품을 쓰기 위해 분발하기 바랍니다.》

한 이름있는 작가는 원고를 읽고나서 한 작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는가 웃는가

황승명

우는가
웃는가
새 논두렁에서 넘어져
일어설줄 모르는 동갑아

구수한 흙냄새에 그만 취했느냐
눈을 감고도 오갈수 있는
새 규격포전의 곧추 뻗은 두렁길에서
그 무슨 생각에 또
발을 헛디더 엉덩방아를 찧었느냐

너와 나는 이 룡천벌에서
소문난 가래장부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에도
울망줄망한 뻐기논의 그 많은 실두렁을
뛰며 살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늙었는가
나서자란 고향땅은
저렇게 주름살을 활짝 펴고
날마다 한껏 쭉어져서
우리의 끝없는 미래를 펼치는데

아 눈을 부비며 다시 보니
이 땅의 세기적숙망을 안으시고

오늘의 이 전변을 안아오시려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찬비에 젖으시고 솟눈을 헤치며 걷고걸으신
무수한 그 들길이 어려온다

뜨거움에 목메여 더듬는 그 자옥자옥
두렁설의 이 한줄 흙에서도
날알의 천만무게를 느끼며
너와 나는 참으로 감회도 깊고
할 말도 많은 여기

그 모든 나날이 자꾸만
따라서며 마주오며 앞을 가려
청청한 대낮에 눈을 뜨고 넘어졌다고
허허 웃으며 말하는 그 눈에
아직도 눈물이 고였구나

두어라
누구나 무심히 바라볼수도
걸을수도 없는 새 논두렁에서
가슴몽클 젖어드는 뜨거운 생각에
나도 지금 너처럼
운다면 우는것이고
웃는다면 웃는것이여라

고전작품소개

일화를 통하여 본 고전의인소설 《옥포동기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찬란한 문화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민족고전문화예술유산 가운데는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1980년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고전문화유산 자료조사과정에 처음으로 발굴한 장편형식의 고전의인소설 《옥포동기완록》도 있다.

창작년대는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18세기~19세기 초로 볼수 있으며 작가는 알려져있지 않다.

작품은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새들의 지저귂소리와 짐승들의 울부짖음소리를 듣고 그 뜻을 잘 해독할줄 아는 옛날 반야산 반야사의 총명한 늙은 중이 어느날 옥포동 골안에서 벌어진 생일잔치에 참가한 못짐승들의 기이한 놀이를 구경하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 나라 중세의인소설로서 널리 알려진 《두점전》과 그 이본으로 볼수 있는 《섬로전》, 《성로장전》, 《로섬상좌기》 그리고 《록처사연회》 등의 소설들에 기초하여 장편형식으로 창작된 작품에는 여러편의 우화, 민화들과 일련의 사건, 세부들이 일화형식으로 삽입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고전의인소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고전의인소설 《옥포동기완록》에 대한 사상예술적특성을 옹계 밝혀내자면 일화

의 형상적기능을 정확히 분석하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에서 일화는 우선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기본은 나라안의 문란한 정사를 바로잡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두 측면에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하나는 이른바 공로가 있고 덕행을 겸비한 봉건관료를 만나야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한 재판제도와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것이다.

덕행을 겸비한 봉건관료를 만나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는데서 고전의인소설 《토끼전》을 일화형식으로 삽입한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데서 의의가 크다. 작품에서는 고전의인소설 《토끼전》을 주제사상적내용이 부각되도록 원작의 인물들과 함께 두꺼비를 주요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광택왕과 두꺼비의 관계로 이야기를 변형시켜 두꺼비의 덕행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공평한 재판제도와 질서를 확립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는데서는 요사한 여우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범을 등쳐먹는 일화를 삽입하여 삶의 죄와 여우의 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섬로장(두꺼비)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소설의 주제사상을 부각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은 반야사의 중 해충과 두꺼비와의 대화를 통하여 밝혀지는바 여기에서도 일화의 형상적기능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레를 들면 두꺼비의 대사에 나오는 옛날의 어떤 황제가 부처를 충실히 믿다가 어진 신하의 배척을 받아 굶어죽었다는 일화는 참으로 실감있다.

작품의 일화는 또한 작품의 주인공 섬로장(두꺼비)의 성격적특징을 밝히는데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의 주인공 두꺼비는 의인화된 《리상적인》 봉건관료 혹은 봉건군주의 대변자이다. 그는 자기의 오랜 경력과 덕행으로 상좌에 뽑히며 못집 승들을 덕으로 감화시키고 제기된 송사도 제때에 공정하게 판결하는 긍정인물이다. 그는 생일잔치에 모인 모든 집승들이 무서워하는 구렁이를 혼자서 물리치는 용맹성을 지니고있을뿐아니라 들쥐와 창고쥐의 혼사를 두고 청개구리를 통하여 들쥐가 보내온 퇴물인 금과 은도 돌려보내는 청렴결백하고 대바른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온갖 허위와 위선에 찬 생활을 강요하는 당대 현실에 주의를 돌릴것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작품에서는 적지 않은 일화들을 통하여 주인공의 특징적인 성격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있다. 실례로 나이를 묻는 원숭이에게 두꺼비는 《손오공》에 대한 일화를 통하여 자기의 오랜 나이를 생동하게 보여주었고 지난 시기 어떤 버슬을 하였는가고 묻는 사슴에게 《록각간》에 대한 일화를 통

하여 자기의 경력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며 결국 경력과 높은 덕행으로 생일잔치의 상좌에 오른다.

작품에서 일화는 또한 구성의 립체성을 돋구는 데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구성 of 립체성을 살리자면 기본사건을 옹계 포착하고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면서 여기에 부차적인 사건선과 일화들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이 옹요하다.

문학적개념으로서 일화는 기본사건과는 련관이 없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구성의 필수적요소는 아니다. 그러므로 흥미진진한 일화보따리를 가지고다녀도 그것이 하나의 극적이야기를 엮고 성격을 특색있게 밝혀내는데 맞지 않는것이라면 옹히려 우환거리로 된다. 따라서 일화는 격에 맞게 제자리에 박혀야 성격을 살리고 사건을 전진시키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고전의인소설 《옥포동기완록》의 구성은 하루 동안의 사건과 이야기들로 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의인화된 30여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로부터 이 소설의 구성형식은 시간적으로 짧은 사건을 취급하고있으며 이야기전개방식이 폭넓은 횡적련관속에서 벌어지는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이러한 구성형식에 맞게 여러가지 사건과 민화, 설화들이 일화의 형식으로 이야기줄거리에 맞물려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특히 작품의 앞부분에서 두꺼비가 생일잔치의 상좌에 오르기까지의 두꺼비의 경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적지 않은 일화들이 삽입되어 이야기줄거리의 폭을 넓히고있다.

레를 들면 덕행에 대한 토끼의 물음에 대답하는 두꺼비의 이야기에 나오는 달나라 옥토끼에 대한 일화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전설을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변경시킴으로써 사건을 전진시키고 이야기줄거리의 탄력을 담보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는 주로 두꺼비가 반야사라는 절의 늙은 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두 인물의 대화속에서도 일화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일화들은 두 인물의 대화과정에 따분하고 지루한것을 없애고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어준다. 고전의인소설 《옥포동기완록》은 이 시기 우리 나라 의인소설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나라의 풍부한 고전의인소설유산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꽃피워나가야 한다.

류윤화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창작적재능과 지혜로 당의 위업을 높
이 만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주체95(2006)년 제10차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
식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빨간 저고리》 4.15문학창작단 단장
〈김일성상〉 계관인 김 정

장시 《폭풍의 생애》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 계관인 김만영

서사시 《만년 성벽》 작가동맹함경남도위원회
작가 최운철

장시 《45분》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학사 윤정
길

단편소설 《영원한 포옹》 조선작가동맹중앙위
원회 작가 리일룡

평론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 리계순사리원
제1사범대학 교원 박사, 부교수 리동수